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3월 21일 수요일(주간) 제311호



금주 법구

이 공부 처음과 끝 모두가 중요하나
구태여 가리라면 초발심이 중요하네
보살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제도하니
이래서 초발심자 기꺼이 맞이하네.

-대반열반경-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청거북 방생말자

"구속이나 억압과 질곡에 빠져있는 생명을 풀어준다." 방생(放生)이란 말을 풀이하면 이렇다. 〈범망경〉에서는 "불자들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업을 행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불설아난사사경〉에서는 "짐승들과 곤충 등 하찮한 것이 살려주기를 바라거든 항상 가엾이 여겨 먹을 것을 주고 깨어나게 할 것이요"라면서 방생의 대상이 미물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방생이 말썽이 되고 있다. 불교를 욕되게 하는 일로 인식되고 있다.

위의 경전에서 알 수 있듯 방생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차원이 아니다. 미물의 생명까지도 아끼듯 자비를 널리 펼치라는 뜻인데, 물고기를 풀어주는 것쯤으로 여기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물고기 놓아주기'가 성행하자 행정당국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최근 붉은귀거북(청거북)의 수입과 방생을 자제해달라고 각 종단에 요청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한강변 방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강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청거북, 배스, 중국붕어, 떡붕어, 미꾸라지, 메기, 가물치 등을 놓아주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정도가 청거북이라고 밝혔다.

미시시피강이 원산지인 청거북은 10여년 전 애완용과 방생용으로 수입되기 시작했다. 다른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고 배설물이 수질을 악화시켜 한강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어종이다.

방생 시 청거북을 선호하는 것은 값이 싸고(1kg에 5000~8000원), 생명력이 질기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갇힌 생명을 풀어주는 행위가 결국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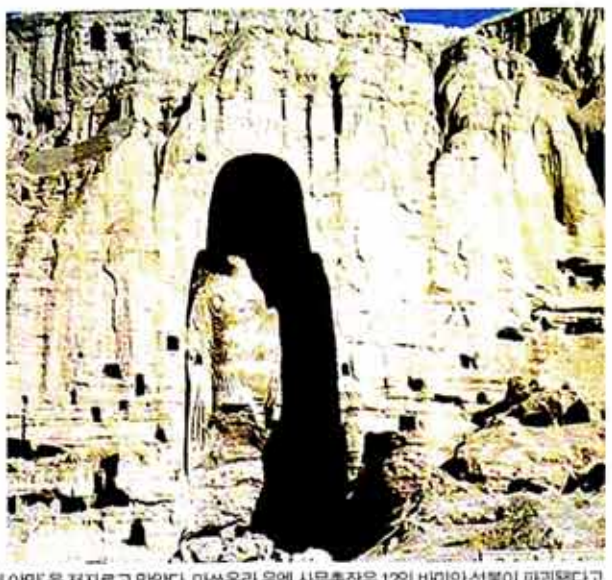


조계종 기획국장 만초스님은 "굳이 물고기 방생을 하겠다면, 하천에 적합한 물고기를 스님이 대표해서 놓아주되, 방생과 관련된 경전을 함께 독송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생지도'의 제작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불교계와 환경부가 함께 대표적인 방생지를 파악하고, 그곳의 생태 환경과 적합한 어종을 알려주는 것이다. 방생의 의미도 살리고, 생태계도 이롭게 하는 방법이다.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끝내 '종교라는 이름의 야만'을 저지르고 말았다. 마쓰우라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바미안 석불이 파괴됐다고 확인했다. 사진은 바미안 석불의 파괴장면과 파괴되기 전 모습(오른쪽). 사진=CNN 촬영

"석불파괴 반문명 범죄"

조계종·진각종 성명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3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정권의 바미안석불 파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 탈레반 정권에 외교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8면)

정대스님은 "탈레반정권의 석불 파괴는 반문명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정부에 대해 "탈레반정권이 노리는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 달성될 수 없도록 외교적인 제재 조치들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대정사도 14일 성명을 통해 탈레반정권에 대해 "폐불행위의 즉각 중단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조계사 '문화도량' 만든다

시민문화센터 개설… "신행·포교·관광 한곳에서"

옛 우정총국-조계사-수송공원 잇는 공원화 추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면서도 콘크리트 건물에 둘러싸인 초라한 모습이었던 조계사가 수행·포교의 중심지이자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갖춘 불교종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한다.

조계사추지 지홍는 우선 일주문 건립과 관련해 현 사찰 출입구 오른쪽편의 불구점 매입을 이달 하순경까지 마무리짓고 연내에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대웅전 맞은편 100여평 규모의 슬레이트 건물을 매입, 늦어도 부처님 오신날 전까지 이 건물을 모두 합어 대웅전 앞마당을 대폭 확장키로 했다.

이 두 불사와 함께 조계사는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는 총무원 신청사 기공 및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옛 우정총국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사찰을 공원같은 휴식도량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원 신청사 건립이 착공되면 총무원과의 경계를 나무를 심어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이 나무 길을 사찰 뒤편 해탈문까지 연결시켜 수송공원과 이어지게 하는 한편, 해탈문 옆 문화교육관을 회랑 형태로 개조해 옛 우정총국-조계사-수송공원까지를 하나로 묶는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대웅전 옆에 만불전을 새로 조성해 신도들의 신행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 포교원 건물을 시민문화센터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또 인사동에서 조계사로 이어지는 '불교문화벨트' 구축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조계사는 수행도량이자 교육·포교·문화의 중심지로, 또 관광명소이자 시민의 휴식처로서 완벽한 불교타운을 구축하게 된다.

지홍스님은 "불교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태고종 수습대책위 결성

중진·소장급 36명… "불화 계속땐 승려대회"

태고종 중진 소장 스님들을 중심으로 분규 종식을 위한 '종단현안수습대책위원회(이하 종단수습위)'가 꾸려졌다.

수종(전 전북종무원장), 원봉(전 충북종무원장) 지성(전 총무부장) 스님 등 태고종 중진 및 소장 스님 36명은 16일 서울 하림각에서 종단수습위를 발족하고 현 총무원장 종연스님과 80회 종회에서 선출된 법장스님 양측은 20일 이내로 납득할 만한 종단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것 등 3개 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종단수습위는 또한 불화가 계속될 경우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해 현사태를 수습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두 스님이 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종연스님과 법장스님은 16일 회동, 함께 사퇴하기로 합의했다.

이경숙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 '남도 산사' 특집 5면

"봉축 군위문품 보내자"

군불교진흥회, 5만개 준비

군불교진흥회(회장 정각스님)는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군장병 불자 위문품 보내기 운동' 간담회를 갖고 올해 5만개의 위문품을 보내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춘광 천태종 교무부장 스님, 김근태 민주당 최고위원, 남기춘 태립종합건설 대표 등이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해 2만여개의 위문품을 전달한 군불교진흥회는 올해 5만개의 위문품을 전군 불자장병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중국 하남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본산을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게 하고자 '중국 불교문화 기행'을 기획하여 삼국지의 무대이기도 한 하남성 지방의 유구한 역사도시 낙양, 정주, 개봉 등에 산재해 있는 불교유적을 찾아갑니다.

영화 '소림사'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少林寺)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진작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만나는 10만 개의 불상을 보시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68년)의 사찰인 백마사(白馬寺)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청빈한 관리로 중국에서도 추앙받고 있는 포청천의 고향인 개봉(開封)에서는 '천수천안관음보살상'으로 유명한 대상국사(大相國寺)도 참배합니다.



◇중국 3대 석굴 중의 하나인 용문석굴.

소림사·용문석굴·백마사·대상국사

◇일정: 5월2일(수)~5월6일(일) (4박5일)
◇참가비: 73만원(공항세·비자비 등 포함, 단 여권수속비는 별도)
◇접수및문의: 02)737-7055(담당: 이소희)
◇접수기간: 4월17일(화)까지(단, 여권소지자에 한함)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아주세계여행사
●후 원 :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불자님들의 구독료 불국토의 밑거름

▶자동이체를 이용하세요
▶문의 전화 (02)737-0090

一心佛院

각종 불사 /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단집

02-725-2030 / 725-2040

장-군-죽-비

◇참여불교 재가연대, 수행과 회향을 지향하는 불교 공동체를 향해 닻 올렸다. 초록마을로 가는 입구, 재가연대. (2면)

◇지금 남도의 산사에서는 동백이 붉게 타는 가슴을 열고 있다. 아가야 나오너라, 봄 마중 가자. (11면)

◇신돈, 요승인가 개혁가인가, 그것이 궁금하면 '공민왕 비사-파몽기'를 보라. (14면)

◇불교 사이트 사이버 테러에 무방비 노출. 컴퓨터와 잘못 사귀면 인간도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23면)

삼풍백화점 참사자

합동천도재 및 勝景地區 결계도량

귀의삼보하옵고,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발생한지 6여년이 흘렀습니다. 인연이 있는 공덕주의 발원으로 백화점 붕괴 이전 이후의 모든 원혼을 달래는 천도재를 봉행하고, 勝景地區를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 시 : 불기 2545(2001)년 4월 5일 오전 11시
장 소 : 서울시 서초동구 삼풍백화점 터(행정법원 정문앞)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 관 : 지리산 화엄사 및 총무원 직할 사암
영가법문 : 청화스님(성륜사 조실)
추 모 사 : 총무원장 정대
영 산 재 : 인묵스님

증명 : 천운·원명·종국
봉행위원장 :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위원 : 지홍 정락 법장 현해 지명 진허 법장 법성 성덕 법의 성타 세민 통광 성오 상수 법조 도영 다정 현봉 보선 중원 법현 부림 현고 성월 혜자 양산 종지 성국 계성 상운
집행위원장 : 화엄사 주지 종걸
위원 : 지하 청화 명진 원행 종림 현각 지현 성관 자승 세영 마근 정념 도완 도공 원담 장곡 진각 지운 선광 법등 법보 유광 혜정 장적 무이 종상 장주 수완 도각 영담 정인 석호 정각 근일 설송 지광 성오 화범 진만 종삼 영조 범종 몽산 월우 종하 탄우 대원 진원 태공 인묵 동욱 지광 현응 지욱 향적 학담 법안 혜창 정우 영배 여연 정휴 광조 장윤 원우 지홍 원명 수현 일법 본각 해주 법성 도문 운달 지형 계호 경륜

행사장 안내



◆교통편 안내
지하철 : 2,3호선 교대역 6번출구
버스 : 36,41,78,78-2,212-2경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제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종걸

사 설

사하촌 정비 시급하다

산자수명한 곳에 위치한 고찰을 찾아가면 누구나 고향을 찾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게 마련이다. 그러나 매표소 근처에 도착하는 순간 기분이 상하고 만다. 사찰 초입의 사하촌(寺下村) 대부분은 음식점들, 조잡한 기념품들을 파는 상가, 여관, 단란주점과 노래방들로 무질서하고, 심지어는 호객행위까지 하여 참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이다.

사하촌의 무질서와 향락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해져 수행환경을 크게 훼손시킴은 물론 사찰을 관광지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불자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동학사가 일주문 안에 자리잡고 있던 계룡휴게소 등 음식점 3곳을 경내지 밖으로 이전시키고 이곳을 새롭게 보수해 불교문화센터로 꾸민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동학사는 이곳을 대대적으로 수리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여름불교학교와 불교도서관, 서예실, 부처님가르침과 한문을 같이 배울 수 있는 불경서당 등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포교센터로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한다. 이렇게 사하촌이 정비되는 데에는 주지 일연스님의 수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지자체가 수익 때문에 사찰과 연계시킨 관광개발사업을 가속화시킴에 따라 사찰의 수행환경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지난 99년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찰환경 수행환경을 보호할 안전판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례제정에 소극적이다.

사하촌 정비와 올바른 사하촌 문화 정립은 단시일에 가능하지 않다. 사찰측이 인내력을 갖고 꾸준히 설득하고 주민들과의 분쟁이 일지 않도록 그들의 이익도 고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찰소유의 상가일 경우 사찰 품위에 맞는 상가나 음식점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스님들과 사하촌 주민들이 일체가 되어 깨끗한 사찰, 청정한 수도도량이 유지되도록 무질서한 사하촌을 정비하고 올바른 사하촌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재가연대' 발전적 변신

봄이 왔음을 아는 데는 매화꽃 한 송이로 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징후 혹은 조짐을 통해 한 사회나 집단의 미래를 전망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격월간 잡지 형태로 창간 준비호를 낸 '참여불교 재가연대'의 변화를 보면서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전망할 몇 가지 희망의 단서를 발견한다.

그 희망 하나. 불교 시민 운동의 밝은 미래를 예감한다. 이번의 변화는 불교 시민 운동의 구심체로서 한국 사회를 향해 활동의 외연을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참여불교 아카데미'나 출판, 주말 생태농장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희망 둘. 참여불교운동의 본격화를 기대한다. 20세기 초·중반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 인도의 암베드카르와 태국의 붓다 다사 등에 의해 이념적·실천적 기틀을 닦은 '참여불교'는 아시아 불교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고, 오늘날에는 달라이 라마나 틱낫한 같은 스님들이 왕성한 활동으로 이어오고 있지만 한국 불교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개될 참여불교 운동에서 재가연대의 구실은 실로 막중하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참여불교의 방편 제시, 이것이 재가연대에 거는 기대의 핵심이다.

희망 셋. 재가연대의 내적 역량 성숙과 자신감이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겸손은 건강한 자신감의 다른 표현이다. 이미 재가연대는 올 2월 24일을 기해 애초의 이름인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에서 '참여불교 재가연대'로 이름을 바꾸고 이념과 실천의 지향점을 '수행과 희망의 불교공동체'로 설정했다. 자기 존재 확인에 대한 강박이나 노선의 선명함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 동안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발행해 오던 회보를 유가 잡지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역량의 성숙과 유연성으로 보인다. 이론과 실천 양면에 걸쳐서 내실 있는 단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준공

7개동 7년공사…발전기원법회 5백명 참석

중앙승가대학교의 김포학사 시대가 열렸다. 이로써 중앙승가대는 조계종의 중추 승가교육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여 제 2의 중흥기를 맞게 됐다.

중앙승가대(총장 종범)는 14일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 원로의원 성수 도원스님과 명예총장 석주스님을 비롯한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본관 앞에서 김포학사 준공식 및 발전기원법회를 거행됐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준공식 이 14일 대학본관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회에서 총장 종범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그동안 힘을 아끼지 않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7년 간의 공사 끝에 완공한 김포학사 준공을 계기로 학교의 모든 역량을 내실있는 교육발전에 쏟겠다"고 밝혔다.

총장 종범스님은 중앙승가대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교육여건 개선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후생복지사업 △지역사회 봉사 △국제교류 등의 사업에 역량을 결집하여 대학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3면>

이어 이사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치사를 통해 "김포 학사 이전을 계기로 중단발전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세간에 회향할 인력 불사를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대학원을 설립하여 학교 위상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학사는 53,000평 부지에 대학본부(2,429평), 교수회관(1,027평) 강의동(1,332평), 비구수행관(2,303평), 비구니수행관(1,946평), 에너지관리동(225평)등 7개 건물과 운동장 야외강당을 갖추고 있다. 특히 비구·비구니 수행관이 건립돼 480여명의 재학생들이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재가연대 교단자정 운동

대안공동체委도 결성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28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2주년을 맞아 교단 자정센터 발족식을 갖고 교단 청정성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자정센터는 불교 공동체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가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종단상을 재정립하고,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불교계 자정운동과 교단 감시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한편 각 사찰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재가연대는 9일 박광서 상임대표와 류성국 법사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 초록마을 공동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안공동체 초록마을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초록마을 준비위'는 앞으로 생태마을 조성, 가족소농에 의한 태평농법 실현, 대안고등학교 설립 등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태묘원 조성, 허브농원 조성, 도농네트워크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효사상' 한일불교대회

5월14~17일 봉은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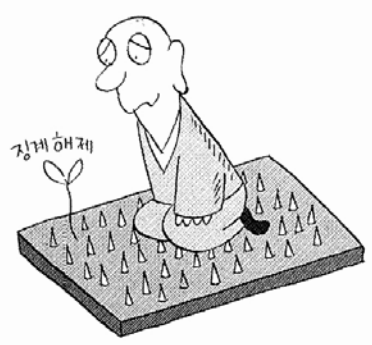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홍파)는 15일 서울 하림각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오는 5월 14~17일 서울삼성동 봉은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불교의 효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한국 일본 두 나라에서 300여명의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월 10일 부여에서 불교전래기념비 건립 30주년을 맞아 관련 법회를 두 나라의 불교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로 했다. 불교전래기념비는 70년 일본 불교협회가 세웠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또 11차 이후의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화보집을 5월 발간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봄도 오는데…

부처님오신날 청와대불상 참배

박준영 공보수석



박준영 청와대불자회 회장(공보수석)은 15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종단협의회 이사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후로도 편향없는 종교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처님 오신날 이전에 청와대 석불을 참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민족문화 보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불교계에서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박 공보수석에게 부처님 오신날 특별가석방의 확대 실시, 사이비종단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과 부회장인 태고종 총무원장 종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대정사 등 각 종단대표 28명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재추진

대만방문에 힘받아…국제인사 66명도 지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달라이 라마가 31일 대만을 방문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국내의 달라이 라마 방한운동이 다시 시작됐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12일 참여불교재가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지난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가 우리의 초청을 다시 수락했다"며, "외교당국자들도 지난해 11월 달라이 라마의 비자발급을 거부할 당시 올해는 방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만큼 올해는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준비위는 "중국이 한나라임을 주장하는 대만조차 올해 3월 달라이라마를 세 번째로 맞이하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방한 반대 압력을 계속할 경우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유치 반대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한 준비위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 시기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붕 중국 총리 등의 방한이 이뤄진 후 상반기 말이나 늦어도 중반기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넬슨 만델라의 방한을 환영하는 논평과 국제적인 저명인사 66명이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을 촉구한 66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일본 도쿄주재 티베트망명정부 동아시아대표부 자툴 린포체 대사는 25일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 달라이 라마 방한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종단협 통일기원 대법회 연다

4월 23일 롯데호텔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15일 올해의 첫 상임이사회를 열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기원 대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대법회는 4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각 종단 총무원장과 신도 대표, 정·관계 인사, 시민단체 대표 등 1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한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봉축테마열차 운영에 각 종단이 적극 참여키로 하고,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이 테마열차 4칸중 3칸의 장엄 비용(7500만원)을 내기로 했다.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홍보만화를 제작 배포키로 하는 한편 가두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으며, 부회장에 지하스님(조계종 종회의장)을 추가 선출했다.

상임이사회는 또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불교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의 과잉 진압과 화염병 사용 등 폭력 시위 자제를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서산대사 탄신 제 481주년 봉찬행사 초대

서산대사의 禪사상과 호국정신을 오늘에 꽃 피웁니다

초대의 글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서산 휴정스님의 정신을 오늘에 꽃 피우고자 합니다.

대둔사(대흥사)는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수된 이래 13 대종사와 13 대강사를 배출하여 조선시대 선교양종의 대도량으로 위상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서산 휴정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교육, 연구, 수련, 장학, 문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현재 호국성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이어 '조선불교연구소'를 발족하여 조선불교를 새로이 조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서산대사 탄신 제 481주년을 맞이하여 봉찬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서산휴정스님의 禪사상과 호국정신이 오늘날 계승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봉찬행사에 두루 참석하여 주실 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행 사 안 내

■ 서산대사 탄신기념법회 및 성역화사업 출범식
일 시 : 불기 2545(2001)년 4월 4일(음3월11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해남 대둔사

■ 호국성지 건립발원 10만등불사 점등식(오후5시)

■ 제7회 나라사랑 글쓰기대회(오전9시)

■ 대둔사 제1회 학술세미나
주 제 : 조선시대불교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일 시 : 불기 2545(2001)년 3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조계사 교육문화관

■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둔사(대흥사)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번지
☎ (061) 534-5502.5503.5588 전송 (061) 535-5357
홈페이지 : http://daedun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 둔 사

조실 천운 상원 주지 보선 합장



목어

100년전 한·미·일



"지금 지구의 동서 정반대의 지점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서진과 동진을 시작했으며, 어디에선가 충돌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160여년 전 불란서의 정치학자 A. 도 똑빌의 전망이었다. 결국 그 충돌 지점이 한반도였으며, 19세기 말에서 오늘날까지 한민족은 계속 그 여파에 시달려 왔다. 일본은 재빠르게 국제역학의 흐름을 감지하고 1905년 미국 대통령 태프트(Taft)와 밀약을 맺어 일본이 조선을, 미국이 필리핀을 점유할 것을 다짐했다.

일본은 한반도가 강한 통일국가가 될 것을 은근히 두려워한다.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이 평양 방문을 서둘고 있을 때 일본은 납치 일본인의 문제를 구실 삼아 클린턴의 평양 방문을 방해했을 정도다. 대북한 강경노선을 취하는 부시 정권의 수립은 일본과의 강한 우대를 전제로 한다. 부시는 NMD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 분명하고, 일본 또한 군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좋은 구실이 된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도 이런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교과서의 개악은 일본 군국주의를 찬미하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합리화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보수화와 일본의 우경화는 100년 전 미일간의 밀약을 상기시키는 구도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의 민족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국적 견지에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역사 흐름의 방향을 직시하고 행여나 지역 차별이나 남북한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인류 문명사는 거대한 정보화·국제화의 흐름이며, 때로는 역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국엔 상생의 길을 걷게 된다. 역사의 시대적 상황 구도는 같아질 수 있어도 결코 시간의 흐름을 무의미하게 되풀이하지 않는다. 1세기 전의 한국인과 오늘의 한국인은 같을 수 없으며, 그간 우리는 민족적 역량을 길러왔으며, 미래를 직시하는 이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신하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종회 안건 산정…통과는 불투명

조계종 사면 어떻게되나

본사 주지 19명 등 1080명 사면·복권운동 서명 동참

정화회의 소송취하 관건

종헌 개정안이 20일 개회한 중앙종회 안건으로 상정됨으로써 사면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덧붙여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 운동본부(사면운동본부, 상임대표 원성)'가 20일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청원서와 탄원서를 종회의장과 총무원장에게 제출한 것도 사면 논의를 뜨겁게 달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면운동본부는 20일 승려의 사면·복권 청원서와 탄원서를 중앙종회와 총무원에 냈다. 사면운동본부는 이날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을 순회해 본사주지 19명과 중진스님 1080명이 사면·복권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히고 "지난 날 종단과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안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에는 조계사 금산사 화엄사 관음사 월정사를 제외한 19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종진 성우 철우 흥교 무비 명성 종광 스님 등 1080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종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사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중진 종회의원은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잘라 말하고 "정화개혁회의측에서 계속 사회법에 제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면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사면복권운동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면복권 청원서와 탄원서에 본사 주지와 중진 스님 1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스님은 또 "사면에 대해 적극적이었던 스님들도 정화회의에서 상급법원에 상고한 이후 사면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집행부쪽의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집행부에서는 2월이면 재판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한 사면 실시 가능성에 비중을 두었다.

현재 정화회의의 제소에 의해 진행중인 재판은 두 건이다. 종회의원 자격상실 확인 소송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정화회의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소송도 항소한 상태이다.

정화회의에서 모든 소송을 취하해야 사면 실시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라는 것이 종회 주변의 분위기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라면 종회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증헌 개정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사면운동본부의 한 스님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정화개혁회의에 소송의 취하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면 논의가) 정점에 이르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사면이) 가시화되면 양쪽 어른들이 만날 것으로 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와 함께 사면운동본부는 "이후 승납 3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2차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며, 사면·복권 청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멸빈제 폐지 운동, 서명자 대회의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면·복권 문제를 종단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사면·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과열될 경우 청사 신축, 금강산 신계사 복원 등 대형불사를 앞둔 조계종이 자칫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승가 대표교육기관 위상 확립 '재도약'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시대

재정자립·우수교원확보 '과제'

중앙승가대학교가 14일 김포학사 준공식 및 발전기원법회를 갖고 제2의 출발을 선언했다. 1979년 개교 이래 수 차례에 걸친 이전, 빈약한 재정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20년이란 역사를 지탱해온 중앙승가대학은 김포학사 이전을 계기로 조계종의 대표적 승가교육기관으로의 위상확립을 꾀하게 됐다. 나아가 종학을 체계화 극제화시키고 종단교육 및 종책 개발, 포교프로그램 개발의 중심도량으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기대를 짊어졌다.

중앙승가대학이 21세기 새로운 승가상을 확립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 대학원 설립, 우수교원 확보, 입학정원 미달사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중앙승가대의 위상 문제이다. 현재 중앙승가대학이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사미·사미니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재학생 중에서 비구·비구니 비율이 3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재학 학인과 동문들도 중앙승가대 성격에 대해 사회지식 교육기관과 고급인재 양성기관, 재교육기관이라는 응답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위상 재정립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수교원 확보도 시급하다. 현재처럼 재학생 정원미달로 인해 법정 교원 21명을 채우지 못해 16명의 교원만 재직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중앙승가대가 학문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소 기능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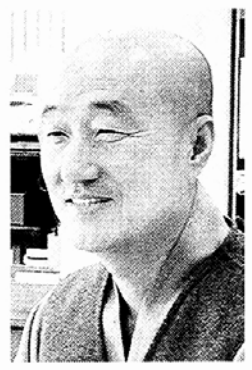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 확충이다. 김포학사로 이전되면서 예상되는 년 3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교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종단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의 경우 전체예산 34억원에서 중앙승가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10억8천만원이나 돼 30여개 종단 기초, 기본, 재교육, 특수교육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승가대 운영의 재정자립 없이는 종단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승가대의 위상을 변화시켜 입학정원을 확충하는 것과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설립, 종학연구소 활성화, 안암학사 활용, 후원회 발족 등의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중앙승가대학을 육성시킴으로써 교육과 복지, 포교 등 전문승가를 양성하여 승가교육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전환도 절실하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봉선사 새 주지 취임 일면 스님

"대중공의제 도입 투명-공정성 확보"



일면스님이 17일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 새 주지로 취임, 업무를 시작했다. "대중스님들을 잘 보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로 취임 소감을 대신한 일면스님은 "봉선사 교구를 본말사 운영의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먼저 중책을 맡은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봉선사 말사가 77개인데, 이들 사찰이 잘 운영되도록 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또 우리 봉선사 교구에서 수행, 포교하는 대중스님들을 잘 보필해야 하는 세심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복짓는 일이라 생각하니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후배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협조와 충언을 기대할 따름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지니지 못했지만, 사심없이 헌신하겠습니다.

—봉선사는 교학, 역경 도량입니다. 전통을 잇는 일이 곧 봉선사 특유의 사격을 이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년고찰인 봉선사는 조선시대 선교양종 중 교종의 수사찰(首寺刹)이었으며, 근대에는 교종대본산으로 지정되어 교학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래에는 운허, 월운스님이 주석하며 고려팔만대장경의 한글화를 이룩한 모태 같은 곳입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 한글대장경 전산화를 시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능엄학림도 봉선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봉선사 인근에는 군부대가 많습니다. 교도소도 있습니다. 본사의 7직 스님들이 사중의 일을 보며, 포교사로도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말사와 인근 군부대·교도소의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능력과 신심을 겸비한 포교사들을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사중의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 살림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주지, 총무, 재무 등 7직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고, 주지는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도록 하는 역할에 더욱 신경을 쓸 것입니다.

주요 의사 결정은 봉선사 상임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일상적인 행사와 업무에 관한 것은 7직 소임자와 신도대표들이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는 대중공의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특히, 말사 주지 인사와 관련, 소임을 잘 수행해 포교와 교육에 공로가 크면 재임토록 하고, 제대로 못할 경우는 대중공의를 거쳐 과감히 인사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을 맡으셨는데, 다른 본말사 주지스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람되지만, 종단의 모든 스님네들이 자기 분야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스님들은 산중에서 조용히 앉아 있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스님된 것이 아닙니다. 늘 회향을 생각해야지요. 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을 합리적이고, 순리를 좇아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성운 기자

창종 제 21주년 기념대법회

증 명 영산일공
고 문 법신, 송산, 선명, 효계, 보인

봉 행 위 원

위 원 장	법 륜
부위원장	대월, 성견, 평신, 정관, 선진
위 원	보광, 체인, 체도, 보월, 체승, 체의, 호연, 은혜, 혜림, 도광, 영운, 해공, 명문, 체두, 보운, 보정

추 진 위 원

위 원 장	성 관
부위원장	벽봉, 인관, 천호
위 원	정광, 혜광, 선덕, 진연, 체명, 체정, 석천, 성욱, 보선, 보각, 태종, 법성, 청해, 청암, 광명, 혜인, 보광, 정수, 혜성, 체혜, 체선, 지관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 일 시 : 불기 2545년 3월 26일 (음 3월 2일) 오전 11시 ■ 문 의 : 02)853-0531 FAX : 02)853-0532
■ 장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413-80 (한빛빌딩 4층) 원융종 총무원

일주문



임학사 삼존불 봉불 증명

서암 前 조계종 종정은 11일 충북 괴산군 임학사 대웅전 삼존불 봉불식과 후불탱화 · 신중탱화 점안법회를 증명했다.



도선사서 700명에 보살계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9일 부처님열반재일을 맞아 도선사 호국참회원에서 700여명에게 보살계를 수계했다.



문무왕 수중릉서 수륙재

남정 총화종 총무원장은 29일 경주 문무왕 수중릉에서 국운융창과 안민태평을 기원하는 영산수륙대재를 봉행한다.



서울시장 표창 받아

자용 군불교진흥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달 22일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



불교텔레비전 출연

회정 진각종 총무부장은 22일부터 26일까지 연속으로 불교텔레비전의 '향기로운 말씀'에 출연, 설법한다.



청주 정토법당 개원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는 11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81-17에 청주 정토법당을 열었다. (043)275-5951.



선원사 대웅전 기공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12일 대웅전 불사에 착공, 내달 16일 오전 10시에 상량식을 갖는다.



월드컵 문화운동 강사

법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은 19일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문화시민운동 강사로 위촉됐다.



삼화불교대 신입생 MT

혜인 삼화불교대학장은 13~15일 안성수련원으로 제12회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연합 M.T를 다녀왔다.



'선어의 묘미' 출판회

정광수 해동문학 주간은 31일 오후 2시 서울 대우주택문화관에서 〈선어의 묘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대둔사 · 무량사 성보 절도범 검거

문화재청 · 서초서 감사패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대둔사와 무량사에서 발생한 성보문화재 도난범을 검거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과 서초경찰서에 13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강정태 과장, 윤광진 학예연구관, 강신태 · 도중필 사범단속담당과 서초경찰서 조삼랑 경찰서장, 이종석 형사과장, 장인성 형사계장, 조상복 강력반장, 양수용 경사 등 13명이 이날 감사패와 포상금을 받았다. 지난 2월 13일과 19일 대둔사 불서 13권과 무량사 불상 3구(충남유형문화재 제100호) 등 성보문화재 16점을 회수한 공로다.

지난 89년 충남 무량사에서 도난당한 금동보살좌상 등 불상 3점은 12년이 지나 다시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경찰과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의 끈질긴 공조수사로 2월 19일 서울 낙원동 모 화랑에 이 불상들을 판매하려던 범인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두 사건을 지휘한 장인성 경감은 "도난 문화재는 무량사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지나 잊혀져 갈 때쯤 시중에 흘러나온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끝까지 포기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 장 경감은 문화재사범 수사에서는 알아주는 베테랑.



"성보문화재가 도난당할 때마다 절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장 경감은 "지난 95년 도난당한 송광사 16조사 진영도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 경감은 "성보문화재는 종교적 의미를 떠나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이다.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지키는 건 온 국민의 관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산사 · 선방의 禪 생활속에 활용"

선학연구원장 박선영 교수



"선(禪)을 선방에서 일상으로 가져오는 일에 모든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지난 3일 무불선원 부설 한국불교선학연구원장에 취임한 박선영(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대인에게 선의 정수를 알리기 위해 학술적인 접근은 물론 일상 속에서도 실참할 수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의 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이기도 하지만, 불이문자(不異文字)도 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박 교수는 "선을 이론화, 대중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강좌나 세미나, 선실수 등에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학술세미나, 월례발표회, 덕숭학술상, 선어록강독회, 학술비 지원 등의 정례 사업을 강화하고, 연구원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개편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또 "홈페이지에 선학 관련 논문과 저술을 색인하고, 학술지의 이름을 〈한국선학〉으로 바꾸고,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논문심의위원'을 위촉하는 등 연구원이 사회에 다가설 수 있게 조직개편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오는 30일 수덕사 황하루에서 '만공과 한국선'이란 주제로 기념학술회의를 갖는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밀랍기법 재현…범종 5천구 제작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匠 지정 원광식 씨



40여 년간 범종 제작에 몰두해온 원광식(59 · 성종사 대표)씨가 1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분야의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았다. 주철장은 일정한 틀에 쇳물을 부어 기물을 만드는 장인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종목. 원 씨는 우리 전통적인 범종 제작방식인 '밀랍주조기법'을 되살려낸 공로를 인정받아 '인간문화재'가 됐다.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이나 상원사 동종처럼 신라시대에 활발하게 제작됐던 밀랍주조기법은 조선 중기 이후 맥이 끊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막주물 기법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봄 · 가을에만 작업할 수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자연건조방식인 밀랍주조기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섬세한 문양을 새겨 넣을 수 있고 특히 소리의 신비함은 막주물 기법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원 씨는 3대째 내려오는 장인집안 출신이다. 17살 때부터 어깨너머로 종 만들기를 배우던 원 씨는 21살 때 본격적인 장인의 길에 들어섰다. 지금까지 만든 범종은 5천구가 넘는다. 전국 사찰의 범종과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의 종 가운데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별로 없다. '재야의 종'으로 유명한 보신각종도 그가 만들었다. "일본에는 현재 신라종 42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밀랍주조기법으로 만든 것들이지요. 그 중 20여 구는 소재조차 찾지 못하고 있구요. 이 42구를 전부 복원하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권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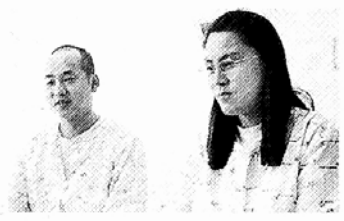
"부처님 자비 가르침 따랐죠"

불자에 신장이식 만성 스님

신장병을 앓고 있는 한 불자에게 신장을 이식해 준 스님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담양 법천사에서 수행중이던 만성 스님은 지난 1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7년 간 신장병으로 투병해 온 불자 최정영(여 · 32)씨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었다.

지난 99년 화엄경을 공부하던 중 스님은 고통받는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부처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스님은 곧바로 생명나눔실천회에 신장을 기증했고, 마침 최정영씨와 조직이 일치해 이식수술을 하게 됐다.



수술 전인 13일 최씨와 만난 스님이 "정영씨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건실한 불자가 되면 더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하자, 최씨는 "부처님의 가피로 수술을 받게 된 만큼 불제자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답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1주년 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지하 중앙종회의장, 법장 수덕사 주지, 원택 총무부장, 상운 포교부장,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등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1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김기병 단장은 "올해는 특히 교육 포교 조직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한불자가수회 노인잔치

대한불자가수회(회장 장미화)는 동불라이온스와 공동으로 신림사 회복지관에서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시고 노인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흥국, 머루와다래, 현당, 김경현 등 불자가수회 원들이 민요, 트로트 등 흥겨운 노래공양을 했고, 동불라이온스 회원 30여 명이 음식준비 등을 도왔다. 한편 정판수 대한불교회 회장은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빵과 우유를 보시했다.



김청련화 보살 일산병원에 1억 기탁

독실한 불교신도인 김청련화(사진 오른쪽) 보살이 14일 오전 동국대 송석구 총장을 방문, 동국대 의과대학 · 한의과대학 부속 일산병원 건립기금으로 써달라고 1억원을 전달했다. 청련화 보살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의료시설에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야문화원 서울 인사동에 개원

불교 및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마야문화원(원장 김문용)이 13일 개원식을 갖고 19일부터 불화교실, 도예강좌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13일 개원식에는 법왕정사 청견 스님, 광운포교원 법현 스님, 생명나눔실천회 손양호 이사, 정중화 거사, 붓다의 마을 최학봉 대표, 신상철 고전문화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직장직능 불자회 봉축 준비 한창

"이웃과 함께 자비 나눠요"

직장직능 불자회들의 봉축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올해는 동일직종 연합불자회를 중심으로 불자회 특성에 맞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 직장직능불자연합회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철도청불교협의회(의장 박창식 이하 철불협) 소속 구로승무사무소법우회는 4월말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구로 관내 200여 독거어르신을 모시고 펼쳐질 노인잔치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투신 참뜻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성북승무사무소법우회도 4월 21일 부처님오신날 기념 열차안전운행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성북승무사무소법우회원의 부인들 모임인 승만부인회에서 만든 전통등을 전시한다. 승만부인회는 지난달 19일~21일 3일간 전통등을 만들었다. 그 밖에 철불협 소속 전국 13개 지역 불자회도 청사에 봉축연등과 현수막을 걸어 부처님 오신날을 일반시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전국병원불자회(회장 김주호)는 올해 처음으로 불자회의 특성을 살려 조계사 일대에서 펼쳐질 거리축제에 부스를 설치해 혈압측정, 당뇨검사, 기타 건강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릴 봉축대법회에서 혹시 생길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 구급반을 운영, 약사여래보살의 자비를 실천할 계획이다.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도 44개 개별 교정기관별로 불교 종교교화위원들과 연계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개별 교정기관 불자회는 이날 행사에서 떡, 다과 등 의문품을 전달하고 재소자들과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할 예정이다.

도시철도공사법우회(회장 이정완)와 서울지하철공사법우회(회장 민병훈)는 각각 148개 도시철도 구간 역사와 115개 지하철공사 역사에 인근 사찰 또는 조계종 포교원과 연계해 봉축연등과 현수막을 단다. KBS불교연구회(회장 정종철)도 KBS 홀 앞 광장에 봉축탑을 제작, 설치한다. 또한 회원들에게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봉축 케익을 나누어주고 소쩍새 마을 등 교계 복지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운전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는 지역회 별로 제등행렬시 교통봉사나 장내 질서 봉사를 실시하고,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도 '한국불교의 불교교육'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동국대병원 불자회원들이 부처님오신날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위해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철 불 협 구로구 200여 독거노인 위안잔치
병원 불자련 당뇨검사 건강상담 등 의료봉사
KBS 불교班 소쩍새마을 · 복지기관에 후원금

4월 29일 동대문에서 열릴 봉축대법회에 참가하는 서울경기지역 직장불자회도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경우 직장직능불자회라는 이름으로 200여명이 참석한 것과 대조적으로 올해는 지금까지 조계종 봉축위에 금융단 150명, 철불협 200명,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 50명, 도시철도공사법우회 20명 등이 이미 참가신청를 제출했고 동일직종 연합회이름의 만장과 연등, 장엄물을 밝히며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할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 김병주 포교계장은 "많은 직장불자회들이 자신들의 직장 특성에 맞는 봉축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직장이 새로운 신행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석불회 7돌 기념법회



대한중석초경 석불회(회장 임갑수)는 지난 10일 가산 최정사에서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최정사 주지 금봉스님, 대구신행단체연합회 심업 총무국장 등 사부대중 3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그동안 석불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나유근, 우윤택, 김춘하 법우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4월부터 정기법회와 별도로 참선교실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임갑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IMF이후 회원이 절반으로 주는 등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들의 금강같은 신심으로 석불회가 7주년을 맞았다"며 "삼배를 해도 삼천배를 하는 마음으로 수행, 경전공부 등 모든 일에 열심인 불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우종기 사찰순례

대우종합기계 · KAI불교법우회(회장 정진한)은 11일 산행 및 사찰순례 법회를 다녀왔다. 3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창원 정병산을 산행하고 우곡사를 참배했다.

석불선양회 충주답사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11일 충북 충주시 소재 보물 제98호 미륵사지 부처님과 충북 유형문화재 제114호인 양성 모점리 석불좌상을 친견하는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40여명이 참석해 신심을 다졌다.

보련회 봉사 기금조성

경상대학교병원 불자회인 보련회(회장 강석휘)는 11일 진주시청 앞 '죽향'에서 일일찻집을 개최했다. 보련회는 이번행사의 수익금으로 올해 추진중인 중국 연변 길림시 무료 의료봉사 기금조성과 경상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백혈병어린이를 도울 방침이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현대인에 주는 깨달음의 세계

정토회 두달동안 '불교와 새문명' 강좌

정토회(대표 법륜스님)는 3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불교와 새로운 문명'이라는 주제로 법륜스님의 강좌를 개설, 불교를 통해 본 문명적 비전과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길을 안내한다.

법륜스님은 전 지구적 과제인 환경의 문제로부터 통일의 문제, 그리고 미래문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간상에 대해서까지 불교의 사상을 현대문명의 여러 문제들에 투영시켜 볼 예정이다.

△3. 21 [환경] 생태위기의 시대 수행적 삶과 깨달음 △3. 28 [통일] 불교적 관점에서 본 민족, 민족주의 △4. 4 [평화] 소극적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생태적 통일론 △4. 11 [복지] 기아, 질병,문맹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 △4. 18 [노동]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4. 25 [과학] 과학의 패러다임과 불교의 세계관 △5. 2 [수행1] 괴로운 없는 사람,자유로운 사람 △5. 9 [수행2] 미래문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간, 보살 (02)587-8993

김재경 기자

"한반도 평화 · 통일 디딤돌 놓는다"

불교통일연대 발족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불교통일연대'가 14일 서울 안국동 길상사 법당에서 발족됐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에는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이, 공동대표에는 지원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재원(동국대 교수) 석담 진욱(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공동의장) 현지(원효사 주지)스님과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 이두근 경남 엠네스티준비위원장이 선임됐다.

불교통일연대는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불교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키고, 한반도 평화선언과 정상회담 및 정례화를 비롯한 전쟁방지와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02)734-6401

김재경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동백꽃에 묻힌 남도산사

3월:백련사 · 대둔사 · 미황사



◇동백꽃에 묻힌 백련사 경내.

'지역 문화의 해'를 맞아 현대불교가 연중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지역불교 문화기행'이 첫 걸음을 옮겨놓습니다. 3월은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 숲에 묻혀 있는 남도의 산사를 찾아갑니다.

8명의 국사를 배출한 천태종 결사도량인 백련사에서는 만덕산과 강진만 바다가 빚어내는 환상의 정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대둔사에서는 조선후기의 명필 원교 이광사가 쓴 현판이 돌보이는 대웅전과 통일신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삼층석탑(보물 제320호) 등을 만나실 수 있고, 초의선사가 차문화를 일으킨 일지암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남도의 봄냄새가 가득한 미황사도 새봄을 맞는 불자 여러분들께 청량제가 될 것입니다.

◇출발: 3월 24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5만5천원(조식 · 중식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게시판

알림

▲청각장애인 무료운전교육=광림사 연화복지원은 청각장애자들의 자활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취득에 관해 무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능교육은 송파구 탄천장애인 운전연습장에서 실시하며 농아인 강사가 직접 교육한다.(02)2202-5831

▲실버페스티벌 대축제=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21일 오후 1시 은평구 연신내 소재 한국관 나이트클럽에서 60세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실버페스티벌을 펼친다. 이날 행사에서는 댄스페스티벌,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02)385-1351

▲탁구대회=일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21일 오전 9시 30분 복지관 대강당 및 탁구장에서 서울 · 경기지역 노인종합복지관 탁구대회를 개최한다.(031)919-8677

강좌

▲수화교실=장애인포교 전담 신행단체인 원심회는 4월9일부터 3개월간 수화교실을 운영한다. 강의는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7시 원심회 법당에서 진행된다. (02)720-4528

▲미혼남녀를 위한 강좌=불교여성개발원은 23일~4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미혼남녀를 위해 '지혜로운 가정생활, 알뜰한 가정 경제'라는 주제로 교양강좌를 개최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이영호 성균관대 가족 경영 · 소비자학과 교수가 강의한다.(02)722-2101

모집

▲재활프로 자원봉사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체육활동, 방과후 교실 등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2)989-4215

▲보호 시설 관리자=한국불교교육대학은 장애인 주 · 단기 보호시설을 관리 운영하실 비구니스님이나 여성불자를 모집한다.(02)821-0541

▲컴퓨터 등 수강생=자양사회복지관은 컴퓨터교실, 가족옷만들기, 자기연출미용반, 생활에어로빅 등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동참할 수강생을 모집한다.(02)458-1664

▲종무원=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은 신규 종무원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대졸 및 동등학력 이상 35세미만의 신심 돈독한 불자로, 불교학 관련 전공자나 불교단체 활동가는 우대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이며 원서 마감은 22일까지이다. (02)732-4885

부음

▲남동화 불광 편집부장의 어머니 주근례(81)씨가 14일 서울 강남삼성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장지는 전남 여천 선영이다. (02)3410-6914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에서
신사년 음력 4월 14일(양력 5월 7일) 불탄절을 맞이하여
1인 1등 1만원 수희동참 1만 관등불사 법회 봉행 안내

귀의 삼보하옵나이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신 불탄절을 맞이하여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조실 불심도문 법사를 증명으로 하여 1인 1등 1만원 수희동참으로 1만 관등불사를 지난번과 같이 성대히 봉행하고자 하옵나니 십시일반의 동참으로 이 거룩한 관등불사의 화주가 되어 주시고, 시주가 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 부처님 당시에 난타 빈녀 1등으로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듯이 성불 인연을 지으시고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대웅보전을 건립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공덕으로써 자손만대에 길이 빛나는 복전을 이룩되게 하여, 생전에 공덕을 지은 바로써 사후에는 기필코 왕생정토하여 장차 열반락을 증득하여지이다.

(추 신)

지난 병자년 서기 1996년도의 불탄절을 맞이해서 불타탄생성지 룸비니원에서는 관등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년 동안의 관등불사 성금은 대성석가사 제1요사 무우수당 건립과 대웅보전 건립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국내의 4부대중 7중불자 등께서 염려하여 주시고 후원하신 공덕과 성지순례시 혼쾌히 헌금하여 주신 성금과 명선회,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고문진, 회장단, 뜻 있는 회원 등의 간절한 후원으로써 제1요사 무우수당 3층 783평을 기와를 이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하였고, 대웅보전 기단부 포함 3층 374평 등 1935평 건립 중, 현재 기단부 공사를 완료하고 제1층 대웅보전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요사 마야부인당 3층 783평을 건립하기 이하여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협조하여주신 스님네와 신도님 등과 국민 제위님에게 이 지면을 통하여 물심양면의 협조와 후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지극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일시 : 신사년 서기 2001년 음력 4월 14일(양력 5월 7일) ■장소 : 불타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네팔 싯타르타나가르 루판데히 룸비니 국제사원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 주지 각현법신 합장
(Korean buddhist Mahabodhi Society Daesung Shakya Sa Temple
Bhairahawa Rupandehi Lumbini Nepal.)
전화 : 001-977-71-80123 팩스 : 001-977-71-80125

(서울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산 140번지 우면산 대성사
주지 묘성 법안, 회장 김 묘성화 사무국장 박 정광,
사무장 김 주연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회장 한 수승행 합장
전화 : (02)583-1475 팩스 : (02)583-2700

(경주연락처) 경주시 내남면 용장 3리 887번지 남산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
주지 환희, 원감 강 금강업, 사무국장 박 도념
신도회회장 김 무량수, 화주 강 무량화, 박 대명심, 대 범선행,
유 백련화, 경주신도 대표 송 봉도화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부회장 김 관음주, 총무 정 법왕자 합장
전 화 : (054)748-8815~7 팩스 : (054)748-8818
핸드폰 : 011-558-8815(강 금강업 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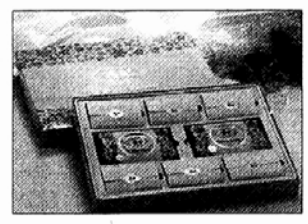
(부산연락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 1485-5번지
불타탄생성지 룸비니포교원
신도회장 백 정혜월, 룸비니회 회장 강 자재왕
룸비니 대성석가사 명선회 회장 배 명선형, 관리장 김 정광 합장
전 화 : (051)746-6092 팩스 : (051)741-8023
핸드폰 : 019-567-4691 (배 명선행 회장)
핸드폰 : 011-714-1476(김정광 관리장)

(구미 선산 연락처)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2리 347번지
아도모례원
부전 보승, 사무장 김시용 공양주 김보현화
관리장 황혜산 합장
모례원 전화 : (054)747-0839
만불보전 전화 : (054)474-5108~9

(장수연락처)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죽림정사
관리장 김원일화, 부전 혜력 사무장 장문업 합장
전 화 : (063)353-0108 팩스 : (063)353-8500
핸드폰 : 016-552-7083 (김원일화 반야회 회장)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항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뱃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담담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7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7년째 달마다 '소쩍새' 돌보기

신행현장 제천 불교어머니회

14일 오전 10시. 강원도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정신·지체 장애인의 보금자리인 소쩍새 마을. 소형 미니봉고 한 대가 운동장에 들어서자 원생들이 달려나온다. "엄마 왜 이제 왔어? 엄마 오늘 점심은 뭐 해줄꺼야" 여러명의 원생들이 차에서 내리는 15명의 보살들의 손을 잡으며 안긴다. "엄마도 많이 기다렸어" 보살들은 저마다 아이들을 안아주며 인사를 나눈다.

이들은 제천 불교어머니회 회원들. 지난 95년부터 매달 한차례씩 소쩍새 마을을 방문해 원생 목욕, 빨래, 공양준비, 주변 청소 등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30대에서 80대까지 제천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로 구성된 '제천 불교어머니회'는 그저 내가족, 내자식만을 위해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 생활만을 할 것이 아니라 경전공부도 하고 큰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키우자는 취지로 창립됐다. 1981년 10여명으로 시작된 어머니회는 현재 소속 회원이 400여명이 넘는다. 그동안 회원들의 가정이나 가계에서 멸치, 김, 국수 등을 팔아 제천 시내에 자체 법당까지 가지고 있는 전통깊은 신행단체로 성장했다.

특히 어머니회 내에 합창단과 사물놀이패를 운영하고 있고 법당도 순번을 정해 매일 사시공양을 올리는 등 신심이 대단하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후원에서 일하는 보살들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오늘 점심은 미역국에 반찬은 오이절임, 깻잎, 김 등. 저마다 일손을 분담해 210여명 원생들의 점심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

원생들이 점심공양을 끝낸 이후에야 어머니회원들은 저마다 아침에 싸온 도시락을 꺼내 공양을 한다. 어머니회 회원들은 그동안 소쩍새 마을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매번

회원 4백여명

공부-봉사 둘다 열심

봄·가을 성지순례

사물놀이패도 운영

봉사 때마다 도시락을 싸와 공양을 하고 있다. 아침에 바빠서 도시락을 못 싸 가져온 장법기행(67) 보살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본 한 후원보살은 "밥도 많은데 왜 컵라면을 먹고 그래요"라며 투박을 주지만 장보살은 연신 웃기만 한다.

공양을 마친 보살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원생들이 먹을 김을 굽는다. 반선의화(66), 장인혜심(46), 김법화성(48) 보살 등 대 여섯명의 보살들은 일렬로 서서 자동차공장 조립라인처럼 김을 굽고 먹기 좋게 잘라 반찬 통에 차곡차곡 담는다. 이들이 굽고 있는 김은 전 원생들이 일주일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 환갑이후의 삶은 내세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최고령 박법보화(77)보살도 원생들이 김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떠올라 더욱 정성을 기울인다.



◇소쩍새마을 후원에서 파, 마늘 다듬기를 하고 있는 제천 불교어머니회원들.

한켠에서는 당뇨와 관절염으로 치료중인 현본각행(66)보살과 지난해 김장봉사에 참가했다 혈압이 올라 실신한 경험이 있는 서여래심(68)보살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파를 썰며 "아직까지 남을 도울 수 있어 좋다"며 파의 매운 향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반찬준비를 끝내고 허리를 펴며 활짝 웃는 어머니회 보살들의 얼굴에서 부처님의 잔잔한 미소를 느낄 수 있다.

젊은 보살을 보면 20년 전 처음 어머니회를 결성할 때가 생각난다는 회장 정보런화(67)보살은 "어머니회 회원들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남을 위해 봉사하며 불법을 알릴 것"이라며 " IMF이후 후원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쩍새 마을에 더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체 회관을 건립하고 싶다는 서원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 불교어머니회는 봉사활동 이외에도 제천지역의 독거어르신, 백혈병 환자,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돕기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매주 첫째주 화요일마다 법당에서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봄·가을 성지순례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황소걸음이 천리 간다

어떤 사람이 봄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마당에 매화가 피어 있더라고 했다. 불법도 그렇다. 먼 곳에 있는게 아니라 바로 내 생활 속에 있다.

물 한모금 마시는데, 밥 한 술 떠넣는데에 불법이 있다. 일하고 움직이는 거기에 불법이 있다. 말하고 생각하는 자리에, 손 뻗고 발 걸음 떼어 놓는 데에 불법이 있다.

불법은 법당에만 있는게 아니라 안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다. 밥 짓는 일, 청소하는 일, 설겆이 하는일, 아이 돌보는 일에도 불법이 있다. 물건을 만드는 일, 농사 일에도 불법이 있다.

스님들의 살림에만 불법이 있는 게 아니라 중생들의 살림살이 구석구석에도 불법이 있다. 고로 사찰만이 도량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도량이 되고, 내가 딛고 선 어떤 곳이든 그대로 여래의 집이 된다. 불법은 현실의 법이요 생활의 법인 것이다.

따라서 불법 공부란 경전이나 예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법당에 가야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산 속으로 들어가 틀고 앉아야만 공부가 되는게 아니다.

공부는 지하철 속에서도 되고 저잣거리에서도 된다. 거기서 되지 않으면 산에 가서도 되지 않고 법당에 가서도 되지 않는다.

주부들의 밥 짓고 빨래하는 일에도 도가 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공양의 도리가 있을 수 있고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이 세탁하는 도리가 있을 수 있다. 설겆이를 하면서는 마음 비우는 도리를 염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를 하면서는 청정한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법공부야 말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만큼 쉽다는 비유도 있다.

불법은 생활의 법이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냥 생활처럼 하면 된다. 필요한 게 있다면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그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보겠다는 의지뿐이다. 믿음과 의지를 밑천삼아 뚜벅뚜벅 황소처럼 걸어가면 된다.

황소걸음이 천리를 간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마음가짐 어떠냐 따라 염불공덕 차이 많아요"



대혜스님
구미 원각사 주지

완연한 봄입니다. 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겨우내 쌓였던 집안 구석구석의 먼지도 털어내는 등 봄맞이 청소를 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마음에 찌든 때는 씻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신행하는 불자들은 이러한 때 마음의 청소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의 하나로 염불을 권하고 싶습니다.

염불이란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는 간절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결국 부르는 대상을 통해서 원력을 세워서 그와 같이되는 것입니다. 아장아장 걷던 갓난아기가 어른이 돼서는 마음대로 걷듯이 염불은 부자유한 중생이 업장을 하나씩 녹여 자유자재한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하는 수행법입니다.

일하면서 염불하고 쉬면서도 염불하고

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그 비운 마음에 부처님을 담는 염불을 한다면 어떨까요. 마음 속의 짐도 떨쳐버리고 지겨움도 힘듬도 없이 편안하게 산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산을 오르면 정상이 비록 가깝게 보일지라도 몸과 마음의 번뇌로 인하여 오르기에 힘겨울 것입니다.

염불은 입으로 읊조리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염불의 공덕에는 열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이 없어지고, 천마(天魔)·불법을 방해하는 자가 두려워하며, 염불소리가 주위에 퍼지고, 삼악도의 고통이 쉬며, 잡다한 소리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염불하는 마음이 흐려지지 않고, 용맹스러운 정진심이 나며, 제불이 환희하시고, 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부처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란 점입니다.

네팔에는 티베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팔을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티베트인들이 염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염불은 참으로 끊이 없었습니다. 우연하게 50대로 보이는 티베트 불자 3명과 함께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타자마자 목에 걸고 다니던 염주를 들고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생각에는 조금하다 말겠지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오전 8시부터 점심 먹는 시간을 포함해 오후 5시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9시간동안 염불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염불은 정해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염불이 곧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도 염불을 합니다. 하지만 티베트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염불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염불을 복을 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염불을 간절함없이 하거나, 조금하고서 큰 복을 바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기보다는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간절함없이 염불을 하는 불자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 염불 수행관을 바꿔 보십시오. 그리고 염불을 법당이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란 생각도 봄맞이 대청소 하듯 깨끗이 털어버리세요. 일하면서 음식 만들며 등산하면서도 염불을 하십시오.

신행 캘린더

3월 21일 (수)

■조계종 중앙종회 세미나=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오후 2시 총무원 청사 1층 회의실에서 중앙종회 운영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02)735-5860

■LMB 싱어즈 정기공연=LMB 싱어즈는 오후 1시 육군사관학교 법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011)9059-1737

■시흥시청 불자회 정기법회=시흥시청불자회는 오후 6시 30분 법륭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031)310-2023 김정규

3월 22일 (목)

■지안스님 대승기신론 강설법회=한국불교교육원 부산구도회는 오후 7시 법당에서 통도사 지안스님을 초청해 대승기신론 강설법회를 봉행한다.(051)462-5062

■능인선원 성지순례=능인선원은 전남 장흥 보림사와 화순 쌍봉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5시 30분 능인선원.(02)577-5800

3월 23일 (금)

■금강정진회=부산 금강정진회는 여수 향일암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6시 30분 부산역 앞. (051)632-0383

3월 24일 (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임원순례법회=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25일까지 1박 2일간 경주 불국사로 임원순례법회를 떠난다. 출발은 서초동 구민회관 오후 2시 30분.(011)746-8078 정효순

■보살수계 및 진신사리 친견법회=충북 괴산 흥천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보살수계 및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한다. 회향은 25일 오전 10시.(043)833-6440

3월 25일 (일)

■지장경 고승 49분 대법회 및 49일 지장천도 기도=삼보사는 5월 12일까지 삼천불전에서 지장경 고승 49분 대법회 및 49일 지장천도 기도를 봉행한다.(02)352-6406

3월 27일 (화)

■팔만대장경 정대불사=조계사는 29일까지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한다.(02)732-2115

■성동구청 바라밀회 사찰순례법회=성동구청 바라밀회는 오후 6시 옥수동 미타사 정수암으로 사찰순례법회를 떠난다.
(02)2290-7355~8 김형권

中央僧伽大學校金浦學舍 法堂三千佛奉安佛事를 爲한

高僧大德 및 重鎭作家禪書畵展

祝中央僧伽大學校金浦學
舍法堂三千佛奉安佛事高
僧大德重鎭作家禪書畵展

辛巳新春 金井山人 菩提

귀의삼보하옵고
중앙승가대학교가 역사적인 김포학사 시대를
맞이 하였습니다. 종단도제양성에 한 획을 긋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학인스님들이 정진하고 조석으로
예불을 드릴 본관 대강당과 비구, 비구니 수행관 법당에
삼천불 원불 모시기를 서원하였습니다. 부디 청년여래를
북돋우시고 대복전을 지으시어 대작불사를 원만히
회향하게 인연공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발원합니다.

大韓佛敎曹溪宗 總務院長 正大
中央僧伽大學校 理事長
中央僧伽大學校 總長 宗梵
中央僧伽大學校 總同門會長 圓行 合掌

◐ 초대일시 : 2001년 3월 28일 (水) 오후 3시 ~
◐ 전시기간 : 2001년 3월 28일 (水) ~ 4월 3일 (水)
◐ 장 소 : 공평아트 센터 2층 (종로구 공평동)
◐ 문의전화 : 02)733-9512~4, 02)922-7881



主催 中央僧伽大學校 · 主管 中央僧伽大學校總同門會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호계원, 중앙종회, 25교구본사주지회의, 전국비구니회,중앙신도회,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 영화사, 능인선원, 보문사, 영주암, 사자암, 개운사,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승가대신문, 중앙승가대학교총학생회



박태원 교수의 29

불교로 보는 인생

'1973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는 것은 기억이다. '백운대 바라보며 풀밭 위에 누워 뒹굴고, 전날 치른 농구 결승전이 끝난 후 상대학교 응원단과 장충체육관 주변에서 벌렸던 무용담들을 과장하여 떠들던 그 들뜬 시절'은 추억이다. 지난 정보의 단순한 입력과 출력이 기억이라면, 경험이 내면화되어 정서가 된 것을 회상할 때를 추억이라 하겠다. 기억은 무미건조하나 추억은 색깔이 있다. 정서가 된 추억은 삶을 곱게 채색한다. 정성이 깃든 추억은 더욱 아름답다.

뒤늦게 '철도원'이라는 일본 영화를 보았다. 밤늦게 귀가하면서 빌려온 비디오 테이프라 다음 날 보려 하다가 잠시 맛만 보자며 시작했는데, 끝내 눈을 못 떼고 훌린 듯 다 보았다. 새벽 2시였다. 추억으로서의 인생, 그 아날로그적 정서와 미학이 따뜻한 숭늉처럼 훈훈하게 담겨있었다.

감동의 원천 하나는 정성이었다. 평생 답답할 정도로 철도원 외길에만 매달려온 사람, 그러느라 결혼도 흘날리는 눈발도.

땅과 함께 어울리던 농업사회에서는 정성이 자연스러웠다.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땅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정성을 몸에 익힌 어른들은 아직도 물건 하나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 연필 하나 수저 한 벌에도 '아끼는 정성'이 배어있다. 사람에게든 물건에게든 '차마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느림, 아날로그, 낭만은 그렇게 정성에 닿아있다. 경제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정성이었기에, 그 시절의 일과 작품과 지혜들은 긴 생명력과 감동시키는 힘으로 가득하다. 소재와 기법이 눈부시게 발달했지만, 오늘의 작품들에서는 감동을 받기가 어렵다. 아직도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울림은 70대의 작품에서 나온다.

작품에는 반드시 정신이 반영된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경제 정신은 알게 모르게 정성을 변질시켜 감동을 앗아갔다. 모든 것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버리는 상업정신은 정성마저 변색시켜 '울림의 힘'을 거세시켰다. 심혈을 기울인 경이로운 문화와 문명의 작품들이 속출하건만, 아직도 영혼을 감동시키는 영성의 힘은 옛것만 못해 보인다. 정성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도 절이 좋다. 아직 절에서는, 절 사람들에게서는 정성이 살아있다. 맛있게 먹나 살피는 공양주 보살님의 눈에, 손수 차 다려 내놓으시는 스님의 손에, 돌아가는 신도들을 일일이 배웅해 나오는 스님의 마음에, 어느 것 하나 함부로 취급되지 않는 도량의 풍속에서, 변질 안된 인간의 정성을 만난다. 느림, 정성, 낭만, 아날로그의 품격이 절에는 살아있다. 물건에, 일에, 사람에 건성으로 넘나드는 부박(浮薄)한 마음들, 정성이 변질되고 말라버린 '참기 힘든 존재의 가벼움'에 지친 예민한 심성들을 어디에서 푸근히 안아줄까. 절 집안 그 아늑한 정성의 품이 우리를 반긴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정성스러운 삶 '감동'

절이 좋은 이유 하나

'인간의 정성'과 만남

17년만에 얻은 늦둥이 딸아이의 감기를 제 때 돌보지 않아 여의고, 병든 아내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 그러나 그의 삶은 정성스러웠다.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는 시골 역장의 단순한 업무를 한 치 소홀함 없이 가꾸어 가는 정성, 배려와 절제 속에 인간애와 신뢰를 눈처럼 소복이 쌓아 가는 정성. 노선 폐지로 조기 퇴역을 앞둔 어느 날, 깜찍한 어린 계집애와 초등학생, 고교 여학생이 매일 차례로 나타난다. 아내가 입던 조끼를 걸치고 식사 준비를 해놓는 여학생의 얼굴에서 그는 아내의 모습을 본다. 실제처럼 나타난 그들은 죽은 딸아이의 환영이었다. 젖먹이 때 여읜 딸의 성장 과정을 차례로 보여주느라 나타난 딸의 환영임을 알아차리고는 "제대로 돌보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 아빠의 품에 안겨, 딸은 이렇게 말하고 사라진다. "그래도 아빠를 사랑해요." 이튿날 플랫폼 눈 속에 묻힌 역장의 도자. 정성으로 일군 삶의 추억들과 함께 그는 그렇게 눈에 안긴다. 정성은 천지만물을 감동시키는 법. 정성스럽게 삶을 가꾼 한 인간을 만물은 따뜻하게 껴안는다. 동료도 귀신도 흐뭇해 하는 그런 역장이었다.

"참 나 찾자"…전국 50여곳 운영

참불자의 길

참선⑩ - 재가선방

참선은 우리 모두가 본래 자신으로 돌아가는 자각의 실천수행이다. 또한 하루하루 이어지는 일상생활속에서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런까닭에 삶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내면의 참나를 찾는 수행처로 재가선방을 찾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유니텔 불교동호회 등과 같은 신행단체들도 회원들의 신심함양을 위해 정기적인 참선수행을 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센터 강좌와 외국인 한국불교체험 등에서도 참선은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었다.

매년 봄과 가을 선학강좌를 열어, 참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을 지도하는 선학원 선정회를 비롯해 현재 전국 50여 사찰과 단체에서 일반인을 위한 선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 참선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찰이나 단체뿐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선방도 늘고 있다. 이들 선방 가운데는 주말 상설수련회와 참선강좌, 참선법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도하는가 하면, 동 하안거 때와 같은 특정 기간에만 선원을 일반에 개방하기도 하고, 또 1년 365일 누구나 참여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일상 속에서 한순간 만이라도 내면의 참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틈을 내어 가까운 시민선방을 찾아가자. 참선을 통해 일반인이나 재가불자들을 수행의 길로 이끌고 있는 전국의 주요 시민선방을 소개한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전국 주요 재가선방

	단체명	내 용	연락처
서울	선정회	셋째 토요일 오후 8시 철야참선정진. 평일개방	(02)732-3327
	수선회	평일개방	(02)732-5960
	강남포교원	평일개방	(02)539-2631
	조계사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금요시민선방	(02)732-2183
	화계사	토요일 오후 7시 철야참선정진	(02)902-2663
	금강선원	토요일 오후5시 참선법회 일요일 오전9시 청소년 참선법회	(02)445-8484
	임제선원	첫째 일요일 오후 2시 일요참선법회	(02)888-6397
	길상사	감상선원 평일개방. 매월 마지막주 1박2일 출가수련회	(02)3672-5945
	봉은사	평일개방	(02)541-0002
	법련사	금요일 오후 7시 불일선방	(02)733-5322
	무불선원	평일개방	(02)541-0002
	천축사 무문관		
	시민선방	토요일 철야참선정진	(02)954-1474
	도선사 무치선원	평일개방	(02)993-3161
경기	한마음선원	토요일 오후 7시 참선수행	(031)470-3100
	봉선사	토요일 오후 5시 철야 참선수련회	(031)527-1951
	도피안사	셋째 수요일~일요일 참선수행	(031)676-8700
부산·경남	금회사	수요일 오후 8시 참선법회	(051)582-3042
	범어사	토요일 오후 7시 참선법회	(051)508-3122
	영주암	일요일 오전 9시 참선법회	(051)754-2210
	통도사	토요일 오후 9시	
	부산포교원	철야참선정진. 평일개방	(051)816-2241
부산·경남	해운정사	토요일 오후 8시 철야	
	금모선원	참선정진. 동하안거 수행	(051)746-2256
	혜원정사	동하안거 수행. 평일개방	(051)866-7771
	부산불교교육원		(051)466-4080
	정인사	회요일 오후 7시 참선법회	(055)256-5450
	황대마을선원	동하안거 수행. 평일개방	(055)963-9551
	통도사 보살선원	동하안거 수행	(055)383-8334
	해인사	넷째 토요일 오후 9시 철야참선법회. 동하안거 수행	(055)932-7300
	백련암	첫째 토요일 오후 8시 동하안거 수행. 철야참선정진	(055)932-7308
	원당암	철야참선법회 동하안거 수행	(055)932-7308
대구·경북	보현사	평일개방	(053)254-6966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평일개방	(053)472-6268
	부석사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9시 철야참선법회	(054)633-3464
	직지사	토요일 오후 8시 철야참선수행	(054)436-6606
대전·충청	대전구도회	목요일 오후 7시 참선법회	(042)524-2157
	보현문화회관	평일개방	(042)624-6555
	대자암	동하안거 수행. 평일개방	(041)857-5880
	용화사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참선수행	(041)274-2159
광주·전라	석탄사	동하안거 수행	(063)538-1268
	전국불교대학	일요일 오전 9시 참선법회	(063)226-7878
	홍련암	셋째 토요일 오후 8시 철야참선정진	(063)263-6072
	보광사	평일 개방	(061)763-1192
	미황사	토요일 오후 7시 철야참선정진	(061)533-3521
제주	남국선원	평일개방	(064)733-2278
	원명선원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참선법회. 평일 개방	(064)755-3322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⑥

증시랑에 대한 답서(4)

좌선도 방편…내면의 눈에 맡겨라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눈먼 자가 사람들에게 잘못 지시하는 것은 모두 고기 눈알을 밝은 구슬로 잘못 알고서 명칭에 머물러 이해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말아 유지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곧 눈앞의 지각(知覺)에 머물러 이해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쉬고 또 쉬라고 가르치는 것은 곧 생각을 잊은 텅 비고 고요함에 머물러 이해한 것이요, 쉬어서 감각도 지식도 없는 곳에 다다르면 흙이나 나무나 기와나 돌과 같은 것이나, 바로 이러한 때에 혼미한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묶인 것을 풀어주는 방편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인연따라 비추고 돌아보되 악한 생각이 앞에 나타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식(情識)에 집착하여 이해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다만 놓고 비워버려서 자연에 맡겨두고 마음을 내거나 생각을 움직임에 관여치 말 것이니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본래 실체(實體)가 없는 것이므로 만약 이것을 진실하다고 여겨 집착한다면 생사심(生死心)이 생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연체(自然體)에 머물러 그것을 구경법(究竟法)으로 여겨 이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병은 도를 배우는 사람의 탓이 아니라, 모두 눈먼 스승이 잘못 가르친 때문입니다."

〈금강경〉에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낸다'고 하였듯이, 깨끗한 마음 바탕에 계합하려면 머무름이 없어야 한다. 마음에 머무름이 있다는 것은 곧 어떤 모양의 식(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모양 있는 식(識)이 아닌 본래 깨끗한 마음 바탕은 허공과 같아서 붙잡을 것도 머물 곳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은 깨끗하다고 여겨도 안되고 더럽다고 여겨도 안되며, 흘러간다고 여겨도 안되고 머물러 있다고 여겨도 안되며, 이렇다고 해서도 안되고 이렇지 않다고 해서도 안되고 이렇기도 하고 이렇지 않기도 하다고 해서도 안된다. 즉 마음은 어떻게도 규정할 수가 없으니, 어떻다고 규정하면 그것은 이미 식(識)이 되어 허공과 같이 깨끗한 마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관(觀)하고 저렇게 유지하며, 이렇게 챙기고 저렇게 놓아버려야 마음을 깨닫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견해와 집착을 풀어주기 위한 방편상의 말일 뿐, 공부인이 진실로 의지할 진리는 아니다. 방편이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가짜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방편이 인연이 되어 도(道)에 들면 다행한 일이지만, 방편을 도에 들어가는 참된 길이라고 여겨 붙잡고 의지한다면 방편은 또 하나의 장애가 될 뿐이다.

이처럼 선문에 들어가는 정해진 길이나 문은 없기 때문에 선문(禪門)은 문 없는 문이다. 즉 특정한 수련의 과정을 아무리 오래 거치고 특정한 수행방법에 아무리 익숙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문에 들어가는 것을 보증해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수행이라는 것은 모두 일정한 형식의 조작의 과정으로서 특정한 병통의 치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선에의 입문과 직접적 관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선이란 특정하게 조작된 마음[有爲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조금도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는 완전무결한 본래의 마음[無爲法]이기 때문이다. 선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이러한 본래의 마음임을 자각(自覺)하는 것이지, 특정한 이미지[相]의 상대적 마음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선은 취사선택(取捨選擇)의 행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진실을 깨닫기만 하면 어리석음은 본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용한 곳에서 좌선(坐禪)하는 행위도 "병을 따라 약을 쓰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만약 그것이 곧 선이라거나 선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수단에 머물러서 목적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짓일 따름이다. 선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편을 얼마나 오래 동안 갈고 닦았느냐가 아니라, 선을 향한 얼마나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문 없는 관문[無門關]을 통과하는 길은 눈을 밖으로 향하여 이리저리 살피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눈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이다. 원래 갖추고 태어난 내면의 눈만이 본래부터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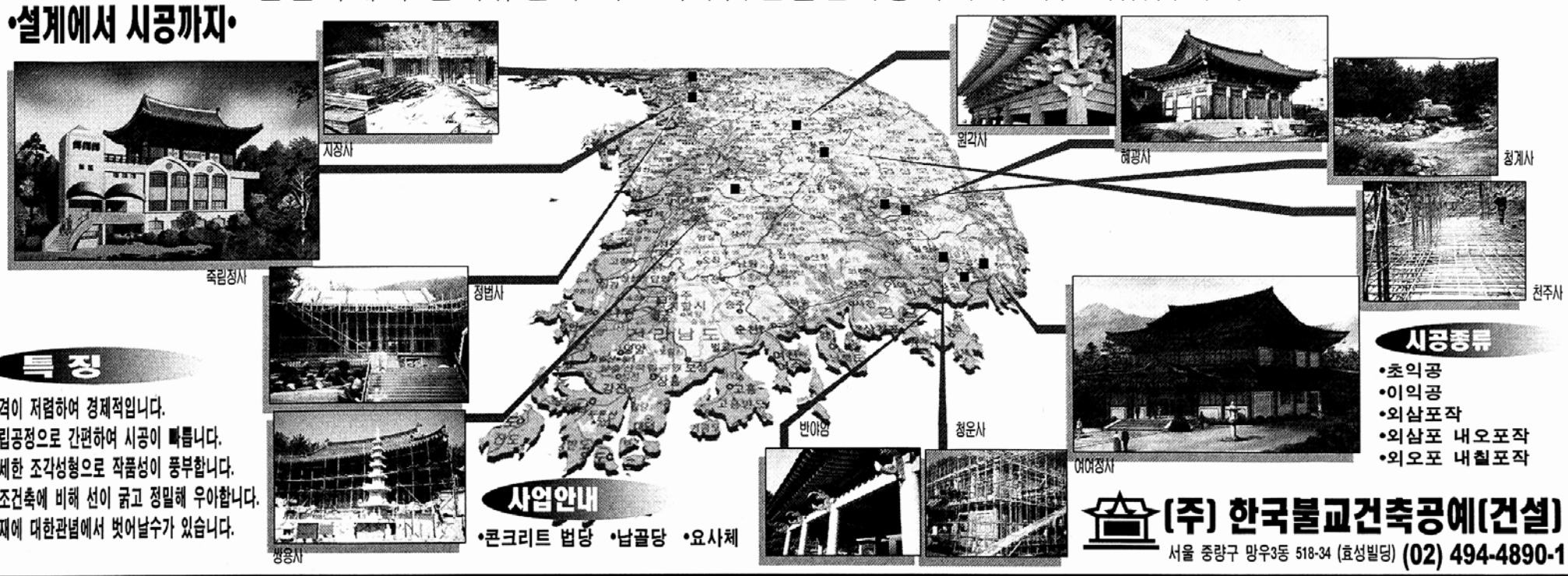
시멘트법당

스님! 지금 전국에서 (주)한국불교건축공에에서 시공되는 사찰건축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흉내는 낼수있어도 "금과 은"의 가치는 분명이 다릅니다.

천년대계의 문화유산이 되도록 (주)한불건축공예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특 징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조립공정으로 간편하여 시공이 빠릅니다.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 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화재에 대한관념에서 벗어날수가 있습니다.

사업안내
•콘크리트 법당 •납골당 •요사체

시공종류
•초익공
•이익공
•외삼포작
•외삼포 내오포작
•외오포 내칠포작

(주) 한국불교건축공예(건설)
서울 중랑구 망우3동 518-34 (효성빌딩) (02) 494-4890-1

이렇게 들었다

사이버 범죄

악행은 결국 제 몸 파괴

▨선악의 행위는 제 마음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복(禍福)이 사람 탓으로 생김은, 마치 그림자가 형태를 좇고 산울림이 소리에 응하는 것 같아서, 계행과 덕은 저절로 응하게 되어 있다. <아난분별경>

▨온갖 중생이 지은 행위는 백 겁을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하여, 인연이 결합되는 때에 가서는 응당 과보를 스스로 받아야 하느니라. <광명동자인록경>

우리 나라 사이버 범죄가 3년 간 무려 1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인터넷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며 사이버 범죄 발생이 지난해 1693건으로 97년 123건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설문 조사한 '사이버 공간의 범죄피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10명중 7명 이상이 사이버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통계가 나왔다. 사이버 범죄 유형으로는 △스팸 메일 29.7% △컴퓨터 바이러스 21.9% △인신공격 · 언어폭력 · 협박 21.7% △사이버 성희롱 · 성폭행 11.5%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번 발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범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의 흐름은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 사실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기술의 그늘에서 사기, 해킹, 사제 폭탄제조, 자살사이트 운영, 마약거래, 음란물유통 등 인터넷의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범죄인 줄 모르고 단순히 호기심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이버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명쾌한 법 집행을 못하는 등 대처방안도 미흡하다. 사이버상의 비밀보장과 익명성을 이용하여 언어 성폭력 등을 행하는 사이버 범죄는 정보화시대에 척결해야할 과제이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설했다. 이 말씀은 항상 자기에게 견주어 생활하여 남에게 나쁜 말과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이버 폭력으로 남을 해치려는 자는 자신의 만족을 얻을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불법의 이치이다.

사이버 범죄에 처벌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다. 규제에 앞서 사이버세계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윤리규범확립이 근원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법구경〉에 "악한 행위는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지만 도리어 제 몸을 파괴한다. 쇠에서 녹이 생겨나 도리어 그 몸(쇠 자체)을 좀먹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있다. 사이버 범죄는 결국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광신이 부른 어처구니없는 훼불

특 별 기 고



정진홍 교수
서울대 · 종교학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하기야 불길한 예상이 없지는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 회교단체인 탈레반(Taleeban)이 집권하면서부터 그런 낌새가 보였다. 여학교를 폐쇄한다든지, 회교식 처벌을 부활한다든지 할 때부터 그랬다. 그런데 마침내 이 정권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자기 나라의 '도덕'을 황폐하게 한다면서 불상파괴를 명령했다. 이미 가즈니, 헤라트, 잘랄마드 등 소도시에서 불상 파괴가 시작되었고, 지난 8, 9일에는 드디어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일컫는 바미안 마애석불 2좌마저 폭파시키고 말았다.

직접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슬람이 불교를 철저하게 배제하려는 짓이다.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를 승인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한 도습이다. 하지만 이 일을 그저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종교적 편견이나 독선이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반문화적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 독선'이다.

무릇 '독실한 신앙, 또는 돈독한 신심'의 경지에 이르려는 것은 종교인의 이상이다. 종교인이라면 자기의 신앙을 마땅히 그렇게 지녀야 한다. 어떤 얼룩도 없이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녀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순수에의 추구는 '정통'을 주창하면서 자기와 다른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하게 한다. 마침내 그러한 태도는 모든 인식이나 판단을 자기를 준거로 하여 행하면서 자기만의 정당성 안에 머무는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이에 이르면 그 돈독함은 자연스럽게 배타나 독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서서히 '일상적'인 정서를 잃어버리고 마침내 '광기나 광신'으로밖에 묘사할 수 없는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돈독함은 이미 자신 안에 광신을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 둘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이른바 '종교적 현실'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비단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슬람과 불교간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종교가 생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의 '작은' 돌출일 뿐이다. 온 세계의 비난에 대하여 그 정권이 항변하고 있는 내용은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 경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들을 담고 있다. 유네스코 대표가 파괴의 중지를 호소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1991년 힌두교도가 인도의 이슬람 바브리 사원을 파괴했을 때 세계는 단 한마디도 발언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사원을 점령했을 때도 아무 소리가 없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염려하는 소리를 문화 일반을 제외하고는 불교 아닌 다른 종교로부터는 들을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벌어지는 신할레족과 타밀족간의 살육이 종교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불교가 어떤 발언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슬픈 일이다.

자칫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러한 발언은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살펴야 한다. 종교적 광기는 모든 종교의 잠재적 가능성이다. 그것을 간과한다면 '바미안 석불'의 파괴는 끝내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본 난은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미안 대불' 완전파괴…지구촌 '경악'

유엔 · 유네스코 중지 촉구
비웃듯 반문화적 폭거

"탈레반 정권 편협"
이슬람 국가들도 비난

세계적 문화유산인 '바미안 대불'이 완전 파괴된 것으로 13일 최종 확인됐다. 또 바미안 석불 파괴 2주일 전에 또다른 불교 유적지인 가즈니 유적도 파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13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바미안의 고대 석불들을 이미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CNN 방송은 바미안 석불이 폭파되는 장면을 13일 공개했다. 관계자들은 이 대불뿐만 아니라 바미안 계곡 근처 절벽의 수천개 인공동굴 속 불상군들도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AP통신은 같은 날 지난 2월 중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남서쪽에 있는 가즈니 유적을 파괴했다는 탈레반 고위관리의 말을 전했다.

이번 바미안 석불파괴는 어떤 이유에서든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무차별 파괴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탈레반의 행위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타종교의 귀중한 문화양식을 파고 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바미안 석불 파괴는 '반달리즘(vandalism · 문화 예술 파괴행위)'의 차원을 뛰어넘은 '반문명적 폭거'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

●배경 및 과정-바미안 석불 파괴는 아프가니스탄 집권세력인 탈레반의 최고지도자 모하메드 오마르가 2월27일 모든 불상들을 이슬람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고 이를 파괴하라는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오마르는 포고문에서 "신은 유일하기 때문에 형상을 신앙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불상은 지금부터 신앙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유네스코는 물론 유엔 189개 회원국이 불상 파괴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집트, 터키,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들조차도 탈레반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탈레반 정권은 이같은 세계의 비난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2일 바미안 석불의 머리와 다리 부분을 파괴한 데 이어 12일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완전 파괴했다.

●탈레반 정권의 실체-오랜 내전으로 혼란을 겪던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군사정권이 집권한 것은 1996년. 그러나 테러수출국으로 낙인찍히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교조적으로 내세우며 불상파괴와 여성들의 교육을 금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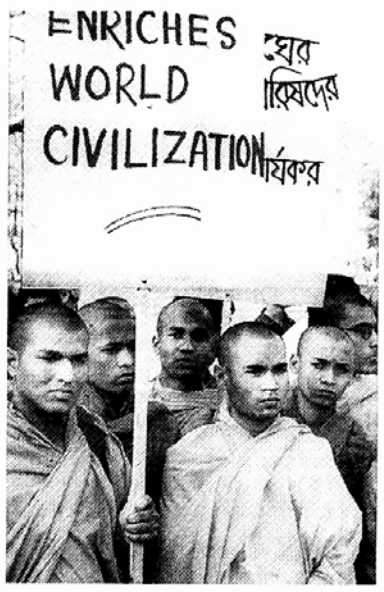
탈레반 정권이 이슬람 국가들로부터도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집단으로 낙인찍힌 것은 탈레반 정권의 행위가 이슬람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탈레반을 유일하게 국가로 승인하고 있는 파키스탄조차도 이번 행위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코란(이슬람 경전)'이 다른 신앙도 수용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탈레반 정권의 이슬람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탈레반의 편협성과 배타성-이번 사태는 편협한 광신자들의 타종교 공격행위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非이슬람 우상과 싸우겠다"는 탈레반 지도자 오마르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파괴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탈레반의 편협성과 배타성은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서 출발한다. 어떤 가치든 자신들의 종교에 앞설 수 없으며, 파괴대상으로 삼는다.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는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뿐인 것이다.

타인의 기본적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한 '다름'과 '다양함'을 용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와 종교의 기본양식이다. 그런 점에서 타인의 종교적 권리를 훼손하는 탈레반의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방글라대시 스님들이 14일 다카에서 탈레반의 불상파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미안 석불은?

세계 최대 53m 입불상

간다라 불교미술 '대표작'

바미안 석불은 세계 최대의 입불상이라는 것만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게다가 웅장한 간다라 불교미술의 절정기에 만들어진 대표적 불상이다.

'간다라'는 인더스강 지류인 카불강 하류에 자리잡은 평원지역으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 해당한다. 기원 전 · 후에서 5세기경까지 동 · 서문명이 융화된 불교문명이 찬란하게 꽃핀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바미안은 인도에 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이란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세계 최대 불교유적지 중 하나다. 산 절벽에 약 3km에 걸쳐 2000여 개의 석굴이 뚫려있는데 그 중 유명한 것이 바로 동대불(37m)과 서대불(53m) 등 대형불상이 있는 석굴이다.

동국대 문명대(불교미술) 교수는 "바미안 석불은 세련미가 풍부하고 신체의 양감표현이 뚜렷한 점으로 볼 때 간다라 미술의 절정기인 3~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미안 석불은 주변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영향 또한 크다. 이 석불양식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의 키질 석굴과 중국의 돈황 · 운강 · 용문 석굴로 이어졌고 다시 우리 나라 초기불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문 교수는 "1960년대 서울 뚝섬에서 발견된 금동불좌상 등 5세기경 만들어진 초기 불상들은 바미안 석불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들"이라며 "8세기 초 조성된 감산사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도 그 변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 의 문

지난해 11월 23일 제79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선출된 총무원장 송종연 스님의 자격과 제척사유 등을 문제삼아 2001년 2월 13일 제 8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당선취소를 의결하고, 김법장 스님을 새로운 총무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1종단 2총무원장이라는 전대미문의 최악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 경남의 태고종도들은 이러한 종단 내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참담한 심정과 구종의 비장한 각오로 제 25회 경남교구 임시지방종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 첫 째 : 우리는 제 79회 정기중앙종회의 결의사항을 존중, 적극 지지 한다.
- 둘 째 : 우리는 제 80회 임시중앙종회를 불법종회로 간주하며 결의사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 셋 째 : 우리는 송종연 총무원장의 거취문제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 넷 째 : 우리는 불법적인 제80회 임시중앙종회를 강행한 종도들을 의법 조치하기를 촉구한다.
- 다섯째 : 우리는 아집과 편견에 치우쳐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일체 용납하지 않으며 파사현정의 길을 택할 것이다.
- 여섯째 : 우리는 종권야욕의 일체행위를 배격하고,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결의를 존중 지지하며 경남교구종도들은 일치단합하여 구종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결의한다.

불기 2545년 (2001) 3월 13일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지방종의회 의장 권 무애 및 지방종회의원 일동

제25회 경남교구 임시지방종회의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이광진.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사정위원장 김지각

사·부·대·중

불교대학의 고민


홍승 스님
대구 부도암

동화사 부설 대구불교대학이 얼마 전에 개학을 하고 강의를 시작했다. 2년제 불교대학으로, 해마다 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내가 그 곳의 소임을 맡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아니라, 대구불교대학을 통해 교육에 대한 승가와 불자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한다.

일반 전문대학 수준인 대구불교대학은 그래도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서 입학생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는 경제가 어려운 탓인지 입학생이 예년의 3분의 2 정도에 머물렀다. 학생들의 학비로 운영되고 있는 불교대학으로서는 당연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각 임원들이 사찰들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만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 재학생 임원단들이 다녀와서는 신심 떨어져서 못 다니겠다며 하소연하는 것이 아닌가.

얘기를 들어본즉, 꽤 규모가 큰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느 스님에게 찾아가 신도들의 불교대학 입학을 권유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나는 우리 신도들 불교대학 안 보내. 불교대학 보내놨더니 쓸데없는 것만 배워와서 중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으려고 한다"며 등을 떠밀더라는 것이다. 또 다른 사찰에서는 "불교대학 오라고 꼬셔서 신도를 가로채려고 한다"는 얘기를 전하는 학생들 앞에서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물론 그 스님들 얘기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재가자들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지면을 통해서 소수의 그런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흉을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아직까지도 신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스님들이 있다는 사실과 불교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재가자들이 양산된다는 사실에 가슴아플 뿐이다.

목탁소리

'대책없는 비판'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불교여성개발원이 지난 13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혜진스님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혜진스님 사건 이후 교계단체로서는 처음있는 입장표명이었다.

이날 불교여성개발원이 밝힌 입장은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개 여성단체가 진상규명없이 이 문제를 '성폭력'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공식사과하고, 따라서 현재 이들 여성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번 사태가 나눔의 집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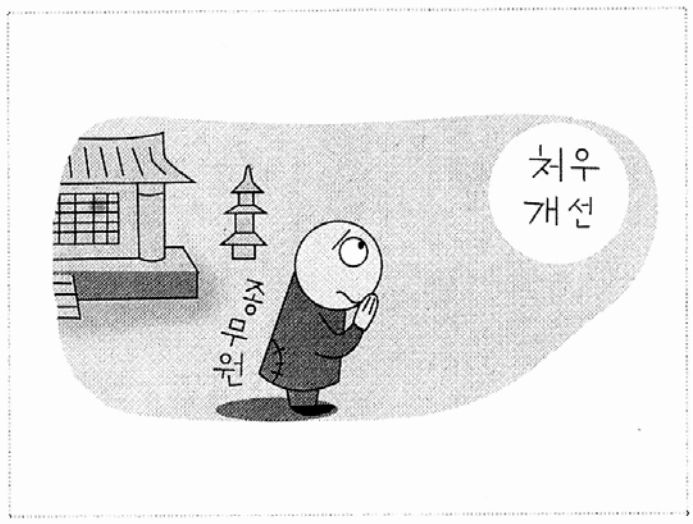
그러나 사실상 불교여성개발원이 중점을 둔 부분은 이들 3개 여성단체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 내용중 "여성은 언제나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을 잘 보여주었다. 잘못된 여성운동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기자회견은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우선 혜진스님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나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그 이유를 "정서적인 분위기만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입장표명을 미뤄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교여성개발원은 3개 여성단체와 문제를 제기한 여성, 그리고 혜진스님을 만나지는 않았으며, 진상조사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스님만을 만났을 뿐이라고 했다. 자체적인 노력없이 상황전개의 추이를 지켜보다 3개 여성단체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이에 편승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논리였다.

게다가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이인자 원장을 비롯한 두 명의 상임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해 놓고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왜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세 사람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방법을 찾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좀더 일찍, 그리고 뚜렷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기자회견이었다.

재가 종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처우개선 없이 信心만 강요 '한계상황'



최근 서울 봉은사 재가 종무원의 해고-복직 사태를 계기로 사찰에 근무하는 재가종무원의 신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스님들의 지도아래 사찰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재가종무원. 노동자와 신도(또는 수행자)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재가종무원은 과연 어떤 존재이며, 왜 이 시점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을까. 재가종무원들의 살림살이를 통해, 재가종무원에 대한 스님과 불자들의 바른 인식은 어떠해야 할 지 알아본다.

■재가종무원의 신분

조계종 〈종무원법〉에 따르면 '재가종무원'의 개념은 '불교신도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자'를 말한다. 승려로서 종단에 봉사하는 '교역직' 종무원을 제외한 일반직·잡무직 종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본사급 재가종무원 월급 80~130만원 '그래도 좋은편'

중소사찰 경우 고정 급여 없이 주지 재량따라

우바새·우바이도 사부대중 포함 공동체 인식 절실

일반직 종무원은 각급 종무기관의 재가직원, 종립학교 교법사, 본·말사에 근무하는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재가포교사, 사무보조자 등이 포함된다. 또 잡무직 종무원은 환경미화원, 기사, 경비원과 안내업무 종사자 등을 가리킨다.

재가종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종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년을 보장토록 하고, 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종무수행비)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 규정과는 달리 재가종무원의 신분은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다. 대다수 사찰에 근무하는 종무원들의 경우 일정한 업무에 따른 급여를 받는 노동자라는 거념보다는, 불교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일반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신도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봉은사 재가종무원들의 해고-복직사태는 재가종무원들이 스님들에게 '노동자'이기 보다는 '신도'로서 인식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종무원들의 근무여건

그렇다면 사찰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재가종무원들의 근무여건은 어떨까.

본사급 재가종무원들의 급여가 80~130만원, 상여금은 0~400% 임을 감안할 때, 말사급 재가종무원들의 처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 일' 하려면 맞벌이는 기본, 신심으로 버틴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지난해 10월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등 34곳을 대상으로 재가종무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직장 가입),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무원의 사회보장

따라서 재가종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종단차원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대 보험 가입은 종교단체의 성격상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고정급여가 없이 사찰 주지스님의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급여를 받고 있는 중소 사찰 재가종무원들의 급여체계는 중앙종무기관에서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본·말사 재가종무원의 신분보장과 급여체계 등을 규정한 종무원 복무규정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2일 봉은사 재가종무원의 복직 조치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재가종무원의 신분이 사회적 규범에 걸맞게 안정적으로 보장되기를 희망한다"며, "나아가 재가종무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뿐만 아니라, 건강·실업·재해·노후 보장 등 국민 전체가 누리고 있는 사회보장에 대해 종단 차원의 각별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재가연대는 또 "재가종무원의 신분은 '각급 종무기관의 장'이 교체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과 해고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요 직할 및 직영사찰과 교구본사 등 핵심 사찰들에 있어서는 상호 인적교류가 가능한 '전문직 종무원제'의 도입을 범종단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부대중의 사찰 운영

그러나 재가종무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에 앞서,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출가 수행자의 단체만을 일컫는 말이 된 '승가'라는 말이 초기에는 출가수행자인 비구·비구니 뿐만 아니라, 우바새(남성신도)·우바이(여성신도)를 포함한 사부대중으로 구성되었듯이, 재가종무원을 사찰운영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간 재가자들은 '사부대중의 참여에 의한 종단 및 사찰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재가자를 교단의 일부로 인정하는 스님들의 인식전환과 재가자들의 신행혁신 및 참여의식 제고를 통해 출·재가가 함께 하는 불교공동체를 일궈나가자"는 것이 재가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시각은 더 이상 남원 실상사, 파주 보광사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교공동체운동 관계자들만의 목소리는 아니다. 스님과 재가종무원, 신도가 한마음이 될 때만이 이 땅에 불국정토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봉은사 부당해고 직원 복직결정

봉은사 전 직원 두 사람의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사찰측이 복직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근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봉은사의 파행적인 인사행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종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건 경위를 보면 이같은 지적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은사 전 기획과장 박금직씨와 불교용품 판매점인 응향각 팀장이었던 민경대씨는 지난 2일 재가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단 한차례의 소명기회조차 없었으며,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통보만 받았다"며 "아무런 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봉은사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7일 첫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박씨의 경우 근무태도가 불량했을 뿐만 아니라 해고 당시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민씨는 응향각 팀장직을 보직해임했으나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봉은사는 마침내 12일 종무회의를 통해 두 사람의 복직결정을 내리는 한편, 불자들에게 공식사과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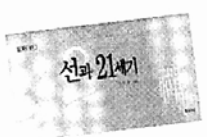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佛의 세계

극에 달한 물질문명과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선과 21세기

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저자가 몸소 체험한 선 이야기를 펜으로 옮겨 놓았다.
극도로 오염되고 훼손된 정신세계의 복원과 인간성 회귀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요즘 들어 일기 시작한 고전 붐에 편승하기에 앞서 선에 눈을 돌려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저자가 쉽고 편안하게 들려주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혼란상을 바로잡기 위한
절대적 수단으로서의 선의 역할에 대해 명쾌하게 제시해 놓고 있어
현대인들이 새로운 밀레니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안내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 주리라 믿는다.



석원연 지음/값 6,600원

선방의 아침
선당 생활을 체험한 선승이 직접 쓰고 그림까지 곁들인 안내서
선방의 세계에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품어봄직한 궁금증에 대한 해설서인 동시에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모든 현대인들의 교양서

함께 건너는 세상
짧은 글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현대인들의 화집

도서출판 들꽃누리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72-70 연남빌딩 4층 전화 02)3672-1387 팩스 02)762-1387 E-mail : draba21@dreamwiz.com

감사의 말씀

한국불교여래종 제1본산 남한산성 약사사 회주 종정 석인왕 자모이신 숙현 윤봉순 대보살님의 입적(음 2월15일, 양 3월9일) 영결 행사에 포교와 수행의 바쁜 날에도 찾아주시며 함께 애도해 주신 분들께 지면을 통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대중은 먼저 가신 대보살 유지의 뜻과 애도를 함께하여 주신 분들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하여 포교 수행정진으로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금사리 1과 외 오색사리 500여과가 수습하였습니다. ※
사리친견은 남한산성 약사사 (031-734-3205)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석인왕
호상대표 명안 신일섭
인왕문도대표 법우 김월봉
약사사 주지 혜안 신재섭
재가전교사 회장 장세영
약사사 자문회 유희정

외 종단 단체장 및 신도회 올림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①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육성에 가장 가깝다는 아함불교에서부터 고도로 발달한 대승화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한 진리 아닌 것이 어디 있으랴마는, 금주부터 화엄의 무궁한 광맥을 캐나가는 한 사람의 광부, 화엄의 바다를 가르는 뱃사공이 되어,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한다.

화엄에 마음을 두고 연구를 시작한 지도 벌써 십년여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모든 경전의 서막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불자들의 제일의 애독서인 〈금강경〉의 첫머리는 부처님의 일상적인 탁발 모습에서 시작하고 있다. '평상심이 바로 도'라는 말과 통한다고 볼 수 있으리라. 또 〈능엄경〉에서는 대중공양에 임하는 교단의 모습과 별청(別請)을 받은 젊은 비구가 겪을 수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실마리를 찾고 있다. 〈법화경〉에는 설법을 마친 부처님께서 조용히 삼매에 드시어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양 눈썹 사이에서 백호상광명(白毫相光明)을 방출하는 정경이 나온다.

〈화엄경(華嚴經)〉에서는 어떠한가! "한 때에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아란야법보리도량(적멸도량)에 계실 적에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었다."(一時에 佛이 在摩竭提國阿蘭若法菩提場中하사 始成正覺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는 도량의 장엄을 밝힌다.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어있나니, 가장 미묘한 보배 바퀴와 온갖 보배꽃과 청정한 마니(摩尼)로 장엄하여 모든 색상들이 끝없이 나타났다." 이른바 '땅의 장엄, 보리수의 장엄, 궁전의 장엄, 사자좌의 장엄', 이런 네 가지를 통하여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또 여래의 위신력으로 그 보리수에서 항상 미묘한 음성이 흘러나와 가지가지 법문을 연설하여 끝이 없었다."(又以如來威神力故로 其菩提樹가 恒出妙音하야 說種種法호대 無有盡極하니라), "그 때에 세존께서 이 자리에 계시사 일체법에서 최정각(最正覺)을 이루시었다."(爾時에 世尊이 處于此座하사 於一切法에 成最正覺하시니라)

보리수나 장엄구, 정수리 광명에서 미묘한 음성이 흘러나와서 설법을 하고 있단다. 이런 환경에서 세존께서는 가장 바른 깨달음에 이르신 것이다. 참으로 감동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강원시절 목판본을 펼쳐놓고 뜻도 모르면서 한없이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어보곤 했다.

몇 해 전 필자가 〈화엄경청량소〉 제1권의 번역을 마무리하고 대구 팔공산의 한 노스님을 찾아뵈었더니 "화엄경 연구가들이 주로 십지(十地)나 입법계품(入法界品)을 주목하곤 하는데, 수좌는 세주품(世主品)에 눈독을 들였구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화엄에서는 광명이 설법을 하고 공양구에서 설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 화엄의 모든 설법은 세존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살이 대신하고 상수대중이 게송으로 설하는 것이다. 두 가지로 파악한다면 첫째는 워낙 수준 높은 설법인 때문이오, 둘째로 육성은 아니지만 깨달음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 설법을 한다는 말이다.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필자소개>반산 스님 : 1980년 봄 통도사로 출가하여 고원 명정(古圓明正)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84년 2월 해인총림 강원 졸업. 이후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다가 교학에 뜻을 두고 중앙승가대학에 입학하여 91년 1월 졸업하고, 93년 쌍계사 중강, 95년 통도사 중강을 거쳐, 강사수련 과정인 승가대학원을 99년 졸업했다. 99년 해인사강원 사교강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봉선사 능엄학림의 화엄학연구원으로 있으며, <청량소>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장엄한 깨달음의 세계

세주품 "광명 · 보리수도 수준높은 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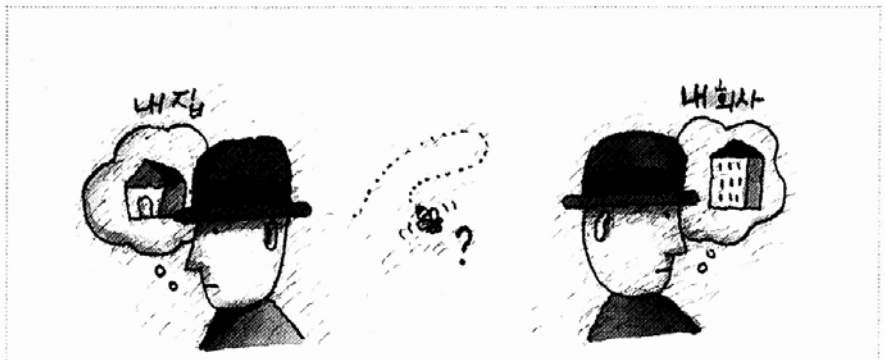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자비심 가질때 영원히 산다

불교와 과학 〈22〉

이타주의 ②

개미 · 벌 집단보존 위해 죽음 불사

이수현 씨 살신성인 공생 실천

벌에 쏘여 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 나는 몇 년 전에 말벌에 쏘여서 119에 실려 간 적이 있었던 지독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벌이 사람에게는 위협적이지만 그 꿀벌의 집단 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숭고한 이타적 행위를 한 것이다. 벌의 침은 끝이 낚시바늘처럼 되어 있고 안쪽은 자신의 내장과 독액샘에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쏘면 침이 빠지면서 내장도 함께 빠져 벌은 죽고 만다. 동시에 독액의 냄새는 다른 벌들을 자극하여 다발적인 공격을 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벌의 죽음은 개체의 입장에서 자살이지만 군집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군집을 지켜주고, 여왕벌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인 결과를 낳는다. 생물체에서 진화의 기준은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라는 기제를 따르지만 그 방향은 후손 번식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일벌의 탄생 자체가 후손번식과 무관한 무정란의 탄생이며, 유전자의 손실이 전혀 없어서, 일벌의 존재의미는 말 그대로 일하고 자신을 희생하는데 있을 뿐이다.

흰개미의 경우는 더 심하다. 흰개미들은 응고 분비샘에서 나온 노란 분비액을 복부 근처에 모아 놓고, 다른 적을 공격할 때 복부를 강하게 수축시켜 자신의 복부를 터뜨려서 액을 분출시키고 자신과 상대방을 응고하게 하여 같이 죽고 만다. 이런 흰개미는 자신의 후손 번식을 포기하는 대신에 번식력이 뛰어난 자매 흰개미를 보호함으로써 전체의 자손을 늘려 자신과 같은 희생용 흰개미를 간접적으로 늘어나게 한다. 이와 같이 친족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의 번식방식을 친족선택이라고 한다. 이런 친족선택 역시 생물계 자연선택 중의 하나인 훌륭한 선택 방식일 수 있다.

작은 새들은 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저 매의 접근을 미리 알아차리고 도망가는 수가 최고다. 그런데 새떼의 모든 새들이 매의 접근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면 먹이를 제대로 찾아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새떼 중의 어떤 한 마리만이 일선 경계를 한다. 경계를 하는 새는 최전선에서 매가 오면 경고음을 내어 다른 새들이 미리 도망가도록 해준다. 그러나 경계를 맡은 새는 매에 가장 접근되어 있는 동시에 경고음의 소리까지 내느라 매에게 잡혀 먹을 확률이 매우 높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는 이타적 행위를 한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이타적 사례는 실제로 자연 동물계에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특히 포유류와 같은 고등동물의 경우 이타적 행위는 드문 편이다. 원숭이의 일종인 비비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하여 공동의 희생을 통해서 대장 수컷에 대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미의 모성애를 통한 이타적 행위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포유류에게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직계 혈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불행히도 사람의 경우는 더욱더 이타성을 찾기 어려워진다. 부처님의 고행은 인간 군집의 극심한 이기성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행을 그만두기로 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성이 윤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풀려질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간은 이타성보다는 이기성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 차가운 현실이다. 이런 인간사의 현실을 부정하고 세간 속에서 인간의 이상적인 이타성만을 찾으려했다면 아마도 부처님은 고행을 계속해 나갔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행을 멈추고 인간세계 밑에 더 깊이 있는 윤회의 흐름을 보았던 것이다. 그 흐름은 아마도 일벌이나 병정 흰개미의 이타성과도 맥이 닿아질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벌이나 흰개미가 최소한 어떤 명예욕의 의도를 갖고 이타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훗날 보상을 바라거나 혹은 자기가 속한 소집단만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구성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이타적 행위는 궁극적인 이타주의가 아니다. 부처님은 어린 시절, 자비심을 빙자하여 자신의 친지만을 위하고 다른 이를 배척하는 숨겨진 이타심을 보면서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하여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후일 부처님은 의도조차 없는 자비심만이 영원한 삶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일본 유학생 이수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진정한 이타성은 단지 남을 위한 희생으로만 보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수현의 죽음은 남을 위한 희생의 차원에서 더 더하여 그의 영원한 삶의 길과 연결되어 있음을 한번 더 생각해 본다.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영문불교사이트 2천개 '사이버 포교사' 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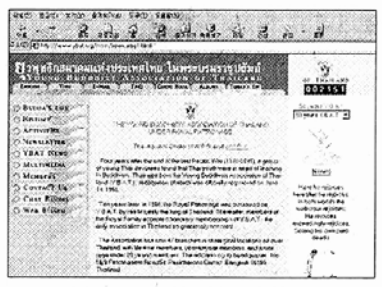
지구촌 불교 / 태국 인터넷 열풍

지금 태국의 인터넷 가상 공간에는 영어로 제작된 불교 관련 사이트들이 붐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BBC와 태국의 방콕 포스트(Bangkok Post) 지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이들 사이트 수는 2천여 개로, 세 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불자 네티즌이 이들 사이트를 방문하는 횟수 역시 두 배나 늘었다.

이들 사이트는 불교 교리와 수행 방편을 주요 콘텐츠로 삼고 있으며, 불자 네티즌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대화방을 개설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의 불자들 외에도 세계 곳곳의 불자들은 서로의 불심을 북돋우고 정보를 나누는 장소로 선호하고 있다.

특히 방콕 포스트는 태국의 승단에서 인터넷 열풍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에도 주목했다. 그동안 승단은 사찰을 방문하거나 출가를 결심하는 불자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데 적잖은 우려를 보여 왔다.

태국에서 불교 사이트 개발팀을 이끌고 있는 붕바니지(Vongvanij)씨는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단지 인터넷에 그 가르침을 올리는 게 아니라, 불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청년불자연합회 초기화면.

대화방 · e-메일 통해 불심 전파

폴란드 · 네덜란드 등서도 클릭

봉바니지 씨가 개발한 사이트 중에는 '태국청년불자연합회'(www.ybat.org) 등 주요 불교 사이트들이 많다. 이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100여 통의 이메일이 들어오고 있는데, 태국의 불자는 물론 여러 나라의 불자들이 두루 관심을 보이고 있다. 봉바니지 씨는 "사이트를 개발하는 일은 작은 노력이지만, 폴란드나 네덜란드의 사람에게까지 불심을 심는 결과를 낳아 환희심까지도 맛보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의 불자 중에는 다른 이유로 인터넷에 관심을 쏟는 사람도 있다. 국제참여불교연대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술락 시바락사(Sulak Sivaraska) 씨는 "오늘날 불교는 포교나 사회참여를 위한 새로운 매체를 찾아야 한다"며 "가상 현실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요구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국 불교계의 인터넷 열풍을 보도한 토니 윌탐(Tony Waltham · 방콕 포스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들 사이트는 태국인의 일상에 녹아 있는 생생한 신행과 수행을 주로 다루고 있어, 작게는 태국 불교를 부흥시키고, 나아가 세계에 태국 불교를 알리는 창구가 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한편 영국의 BBC는 인터넷이 영적인 매체로써 적합한 지에 대해 태국 불자들의 의문을 다루었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영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중심에는 세계불교도교우회(WFB) 방콕 지부장을 맡고 있는 난타사른 세살랍(Nantasam Seesalab) 씨가 있다. 그는 "인터넷이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종교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며 "초발심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좋은 스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改訂增補版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招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점복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과 神明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天役者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 · 양장제본 · 금박 · 200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배 답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전 화 : (02)993-8680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 시(每日 · 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올림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달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17까지 촌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동백에 묻힌 백련사는 남도 사찰 중에서 꽃, 바다, 단아한 절집 등이 조화를 이룬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봄물 오른 남녘산사 동백 나들이 '초청장'

백련사 동백림-대둔사 입구 숲길 '절경'

]봄바람에 봄이 튼 시골색시 같은 꽃. 활짝 만개도 못한채 목을 꺾고 떨어져 잿빛 겨울땅을 발갛게 꾸며 놓는다. 필 때보다 질 때가 더 아름다운 동백. 하남 미황사에 동백꽃이 고개를 내밀었다. 달마의 눈처럼, 부도전으로 가는 길과 삼성각 주변에 살포시 얼굴을 내민 동백의 향연없이 어찌 봄이 오랴. 여수의 향일암과 진도의 쌍계사에는 벌써부터 동백들이 꽃망울을 터트리며 객들을 맞고 있다. 지금부터 4월 중순까지 남도의 사찰들은 온통 철 정을 이룬 동백꽃 물결로 일렁일 것이다.

사찰 주변에 많이 피는 동백꽃은 동장군의 위세가 늙아 있을 때 봄의 전령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뒤늦게 피어난 여느 꽃들이 모두 지고 난 다음까지도 꽃망울을 달고 있다. 목이 꺾인 뒤에도 다시 이끼 낀 돌 위에 피어나 한참 동안 곤질긴 생명력을 자랑한다. 동백은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꽃이 피는데 봄에 피는 동백을 춘백이라고 한다. 동백꽃은 보통 홑동백과 겹동백이 있는데 7~8조각으로 갈라진 홑동백은 주로 겨울에 피며, 꽃잎이 많게는 50조각으로 갈라진 겹동백은 주로 봄에 핀다. 남도의 사찰은 이런 동백이 있어 더 가슴시리도록 아름다운지도 모른다.

그 중 고려말 천태종 부흥의 본산이었던 백련사의 동백림(천연기념물 151호)은 남도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7천여 그루에서 피어나는 동백꽃들



◇꽃망울을 틔운 미황사 동백.

은 강진만 바다, 그리고 단아한 절집과 조화를 이루며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이 절경을 혼자보기 아까워서일까, 백련사는 동백꽃이 만개하는 4월 8일 '제1회 동백축제'를 연다. 꽃도 보고 동백화전 등 전통음식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인근에 있는 다산초당 주변에도 동백꽃은 피어난다.

해남 두륜산 대둔사 주변의 장춘계곡도 남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길로 유명한 곳. 서산대사가 중창한 이후 선종의 총본산이 되었던 대둔사를 둘러본 뒤, 표충사에서 서산대사에게 '인사'를 드리고 일지암으로 발길을 돌린다. 숲 속의 동백꽃에 매혹돼 꿈 같은 길을 20분정도 걷다 보면 어느새 붉은 꽃이 화사하게 핀 동백나무 아래 단아한 일지암이 모습을 드러낸다. 대둔사에서는 이달 말이 돼야 활짝 핀 동백을 볼 수 있다.

대둔사 재무국장 월우 스님은 "동백나무는 조경은 물론 볼에 잘 타지 않는 특성 때문에 화재 방지의 목적으로 사찰 주변에 많이 심어진 것 같다"며 보통 "3월 중순이면 만개하지만 올해는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 개화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도에서 가장 늦게 동백이 피는 선운사에 들어서면 얼마 전 타계한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비 〈선운사 동구〉가 나그네를 먼저 맞는다.

'선운사 골짜기로/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다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었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었읍니다'

미당이 노래했듯이 선운사는 동백꽃이 있어 완성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동백은 자신의 모습을 아주 잠깐 밖에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 올해 선운사의 동백은 4월 20일을 전후해 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그 절에 가고싶다

선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는 조선 후기까지 50여 개의 산내 암자를 거느린 대찰이었으나, 현재는 도솔암, 동운암, 참당암, 석상암 등 4개만이 남아있다.

선운사에서 꼭 봐야 할 곳은 추사가 쓴 백파대사적비와 채제공이 썼다는 설파대사사적비이다. 이 중에서도 백파사적비에 새긴 행서체 글씨는 추사 말년의 최고 명작으로 꼽힌다. 서로 서신을 주고 받으며 불꽃 튀는 사상 논쟁을 벌였던 백파의 죽음 앞에 숙연하게 고개 숙인 추사의 문장을 감상하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



◇탑과 대웅전이 어우러진 선운사 경내.

▲찾아가는길 =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22번 국도를 타고 고창쪽으로 가다 삼인동에서 선운사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면 된다.

대둔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둔사는 조선의 억불정책 속에서도 13 대종사와 13 대강사를 배출하며 법맥을 이어온 조선불교의 중심도량이다. 한때 대흥사로 불리기도 했던 대둔사는 초의선사가 추사 김정희 등 당대의 문인들과 교류하며 유불선 사상과 글(詩) · 글씨(書) · 그림(畵) · 차(茶) 등의 문화를 꽃피운 곳이기도 하다. 일주문을 넘어서면 서산 · 연담 · 초의스님 등 대둔사가 배출한 고승 대덕들의 유골을 모신 부도밭이 첫 마중을 한다. 50여기의 부도와 14기의 탑비는 근대 불교의 중심지 였음을 짐작케 한다. 서산대사의 찬림을 비롯해 초상화와 금란가사, 발우 등의 유품들이 전시된 성보박물관과 서산사명 · 처영 스님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표충사도 볼만하다.



◇대둔사 입구에 서 있는 일주문.

▲찾아가는길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에서 나와 해남 읍내까지 와서 대둔사 이정표를 보고 16㎞정도 들어가면 매표소가 나온다.

미황사

미황사는 위도상 우리나라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한 절이다.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수려한 달마산 기슭에 위치한 미황사는 조선시대 화엄학의 대가였던 연담 유일 스님이 '수륙도량'과 '점회법석'을 개설하고 '임하록'을 탈고한 곳이다. 조선시대 중 · 후기에 걸쳐 융성을 거듭하다 1백년 전 주지 혼허 스님이 중창 불사 모금을 위해 스님 40여명과 함께 완도와 청산도를 가다 조난을 당한 뒤 퇴락했다. 10년 전부터 중창불사를 한 미황사에는 현재 대웅보전(보물 947호)을 비롯해 응진당(보물 1183호), 명부전, 삼성각, 달마전 등이 있다.



◇달마산을 배경으로 한 미황사 대웅전.

▲찾아가는 길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에서 나와 해남을 거쳐 완도 방향으로 가다 완도를 25㎞ 남겨 놓은 지점에 있는 월송주유소에서 미황사 이정표를 보고 10㎞정도 더 들어가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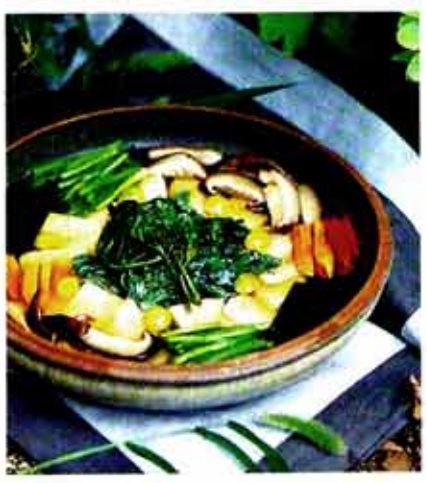
백련사

백련사는 고려 후기 서민불교운동의 중심지로 고종 19년(1232)에 참회와 정토(淨土)를 강조한 '백련결사운동'을 주창했던 곳이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8대 국사를 배출해 명찰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대웅전 내부에 봉안된 목조삼존불중 중앙 본존불이 석가여래이기 때문에 좌우에는 보살상이 배치되야 하는데도 여래상을 안치한 점이 특이하다. 또 백련사 사적비(유형문화재 137호)는 이수 부분에서 반결(盤結)하는 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등 조각기법이 전통을 잘 고수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백련사 주불전인 대웅보전.

▲찾아가는 길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나와 강진 읍내로 와서 18번 국도를 타고 해남 쪽으로 2㎞쯤 가다가 학명리 추도 삼거리에서 좌회전한다. 여기서 백련사 이정표를 따라 6㎞정도 간 뒤 갈림길에서 우회전해 조금만 오르면 백련사 입구 주차장이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두릅전 두부전골

그가 그 곳으로 돌아오는 데는 4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인천 감옥을 무사히 탈출하여 피신하던 때, 머리에 굴갓 쓰고 염주 걸은 채 끌어오르는 우국충정을 억누르면 사미승의 신분에서 한나라의 주석(主席)이 되어, 그가 돌아온 것이다. 도망치듯 빠져나간 산문(山門)이었는데 이제는 환영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룬 마곡사로 돌아온 것이다.

48년 전, 자신의 손때 묻은 법고며 목탁, 무쇠솥, 후원의 살림들은 변함이 없었다. 바뀐 것이라곤 김창수라는 지명수배자에서 이 땅의 희망으로 우뚝 서 돌아온 그의 이름이 김구라는 것과 열혈 청년이 이제는 반백의 온갖 풍상을 겪은 민족의 지도자로 변신한 것 빼고는 산천의 모습은 그때 그대로였다.

마곡사 요각실에서의 하룻밤은 노객의 평생에 가장 편안한 관세음보살의 따듯한 품 속과도 같은 처음이자 마지막 밤이었을 것이다. 김구 선생은 생전에 유난히 두릅과 모과를 좋아하셨다. 대식가였던 그는 한때 두릅향에 취해 공양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다. '두릅은 비록 가시가 비쭉거려 못생겼지만 그 새살은 얼마나 부드럽고 향기로운지 모르오.' 그는 임정요인들에게도 춘삼월이 오면 마곡사 뒷산의 두릅나무 이야기를 자주 했다. 가시 돋힌 두릅나무를 좋아했던 것은 험난했던 당신의 삶 때문이었을까. 김구 선생을 생각하며 새봄에 돋아나는 두릅과의 만남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인다.

당뇨병과 신장염, 만성 두통이나 어깨 결림 등에도 좋은 두릅은 봄철 싹이 나기 전의 두릅 껍질이 좋으며, 식전 식후에 자주 복용하면 좋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성두통 · 어깨결림에 효과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두릅 100g, 두부 100g, 밀가루, 은행, 미나리, 다시마, 표고버섯, 볶은 소금, 청 · 홍고추, 들기름, 간장

요리법 ① 다시마, 표고버섯으로 다시 국물을 만들고 다시마와 표고는 먹기 좋게 썬다. ② 두릅은 깨끗이 씻어 먹기 좋게 다듬어 밀가루옷을 얇게 입혀서 노릇하게 지져낸다. ③ 두부는 0.5㎝두께로 썰어 소금을 조금 뿌린 후, 들기름에 노릇하게 지져낸다. ④ 전골냄비에 다시 국물을 붓고 가운데에 다시마와 두부를 둘러 앉히고, 그 위에 두릅전, 주위에 은행, 미나리, 고추를 장식해서 한번 끓인 후, 불을 줄여 간장을 넣고 끓여낸다.

효능 당뇨에는 봄철 싹이 나기 전의 두릅껍질을 식전 식후에 먹으면 좋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㉔

以愛敬三寶淳厚心故 蒙佛威加
이애경삼보순후심고 몽불위가
能所業障 善根不退 若能如是自力他力
능소업장 선근불퇴 약능여시자력타력
內外相資 志求無上之道
내외상자 지구무상지도
則豈不具美乎
즉기불구미호

이렇게 삼보를 공경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 업장이 녹고 선근(善根)이 물러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자력, 타력의 안팎으로 서로 도와 최상의 도를 구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此內外相資中 有二種人所願各異
차내외상자중 유이종인소원각이
或有悲願重者 於此世界 不厭生死
혹유비원중자 어차세계 불염생사
自利利他 增長悲智 求大菩提
자리이타 증장비지 구대보리
所生之處 見佛聞法 以之爲願也
此人意謂雖專內照 忍力未成
차인의위수전내조 인력미성
留此穢土 逢諸苦難 恐有退失之患
유차예토 봉제고난 공유퇴실지환
此內外相資二種人志願 心諧聖教
차내외상자이종인지원 심해성교
皆有道理 此中求生淨土者
개유도리 차중구생정토자
於明靜性中 有定慧之功
어명정성중 유정혜지공
緜契彼佛內證境界故
현계피불내증경계고
望彼但稱名號 憶想
망피단칭명호 억회
尊容 希望往生者 優劣可知矣
종용 희망왕생자 우열가지의

이런 사람은 비록 마음을 관조하는 일에 전념하였으나 인내력이 모자라서 더러운 이 사바세계에 머물다가 여러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공부를 포기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어쨌든 안팎으로 도와 수행하는 두 종류의 사람은 마음이 모두 성인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도리가 있다. 그러므로 정토에 나기를 구하기만 한다면 이미 밝고 고요한 성품 가운데 선정과 지혜의 공로가 있으므로 저 부처님이 깨달은 경계와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니 단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고, 거룩한 형상만 생각하며 극락왕생을 바라는 사람과 견주어보면 그 우열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러운 마음 일으키면 어느 부처가 맞아주겠는가

소생지처 견불문법 이지위원야
此人不別求淨土 亦無逢難退失之患
차인불별구정토 역무봉난퇴실지환
或有淨穢苦樂 欣厭心重者
혹유정예고락 흔염심중자
所修定慧 及諸善根
소수정혜 급제선근
回向願求生彼世界 見佛聞法
회향원구생피세계 견불문법
速成不退 來度生 以之爲願也
속성불퇴 극래도생 이지위원야

안팎으로 서로 돕는 것에도 소원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즉 비원(悲願)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하며 자비와 지혜를 더욱 늘리어 큰 보리를 구하므로 태어나는 세상마다 부처를 뵙고 법을 듣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따로 정토(淨土)를 구하지 않더라도 어려움 때문에 후퇴할 염려가 없다. 다른 하나는 깨끗함과 더러움,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해 기뻐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수행하는 선정과 지혜와 모든 선근을 회향하되 저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힘을 얻어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중생을 제도할 것을 소원하는 사람이다.

智者大師 臨終謂門人曰火車相現
지자대사 임종위문인왈화차상현
一念改悔者 猶能往生 況戒定慧薰
일념개회자 유능왕생 황계정혜훈
修行道力 功不唐損 淨名經云
수행도력 공불당손 정명경운
欲淨佛土 當淨其心
욕정불토 당정기심

지자 대사는 임종 때 제자들에게 '지옥의 불수레가 나타나더라도 한 생각만 고쳐먹어도 극락왕생하는데 하물며 계정혜로 닦으며 수행한 도력이라면 어찌 그 공력이 헛되겠는가' 하였고, 〈정명경〉에는 '불토(佛土)를 깨끗이 하려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세 웅 스 님

상주 갑장사

"어떤 일이든 욕심이 화 부른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계에는 입(言)이나 손(文)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존경받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며 '행위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한암 스님은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三春)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오대산으로 들어가 투철한 정진력으로 지금까지 수행자의 사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요즈음은 행주좌와 어묵동정 모두가 '산 법문'으로 귀감이 되는 수행자는 드문 현실이다.

올해 초 모 사찰 주지 스님으로부터 상주 갑장사에 수행자 본분사에 철두철미한 선승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스님은 수행과 계율에 철저할 뿐 아니라 수좌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진짜 선지식'이라는 것이다. 그 스님의 법명은 세웅 스님.

기자는 스님을 만나기 위해 사전 취재를 시작했다. 하지만 세웅 스님을 아는 사람은 선방에서 오랜 수행을 한 몇몇 수좌와 본사인 직지사 그리고 상주지역 불자들 외에는 드물었다. 이들도 대부분 '스님을 오랫동안 산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선승'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스님은 언론의 인터뷰는 물론 사진촬영도 일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갑장사 거사회에서는 스님의 개인 사진이 없는 관계로 영정사진 마련을 위해 회의까지 따로 했을 정도라는 것이다.

두문불출하시며 정진에 힘쓰시는 스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스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 생겼다. 하지만 요즘처럼 힘겨운 시대에 부처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하고 계시는 세웅 스님의 수행생활 편린을 소개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은 물론 신행의 사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상주 갑장산(806m) 정상 부근에 위치한 갑장사로 무조건 떠났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상주시 지천동 산 5번지.

갑장사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잡고 티 없이 살라하네…"라는 유명한 싯구를 남긴 나옹 혜근 선사가 고려 공민왕 22년(1373년)에 창건한 고찰이다.

상주시내에서 승용차로 20여분만에 도착한 곳은 진감 국사가 창건했다는 비구니 선원 용흥사. 이곳부터 갑장사까지는 걸어야 한다. 잔설이 남아 있는 산길을 걷기 시작한지 50여분만에 도착했다. 부처님께 참배하고 스님을 찾으러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 거사가 "어디서 오셨는데 이렇게 일찍 왔느냐"며 반갑게 맞이한다. 그 거사는 기자를 대중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과일과 떡을 내놓는다. 갑장사에 큰스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하러 왔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갑장사 스님이 어떤 분인지 여쭈었다.

10여분 동안 거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작업복 차림에 밀짚모자를 푹 눌러쓴 한 노인이 들어오더니 "왜 손님들에게 음식을 그렇게 대접하세요? 다시 상을 차려 드리세요"라고 나무라시고 나가신다. 그런데 문을 여닫는 모습이나 나가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닫았다. 어찌나 조심스러우신 지 그냥 쳐다보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어떤 분인지 궁금해 거사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 분이 바로 세웅 스님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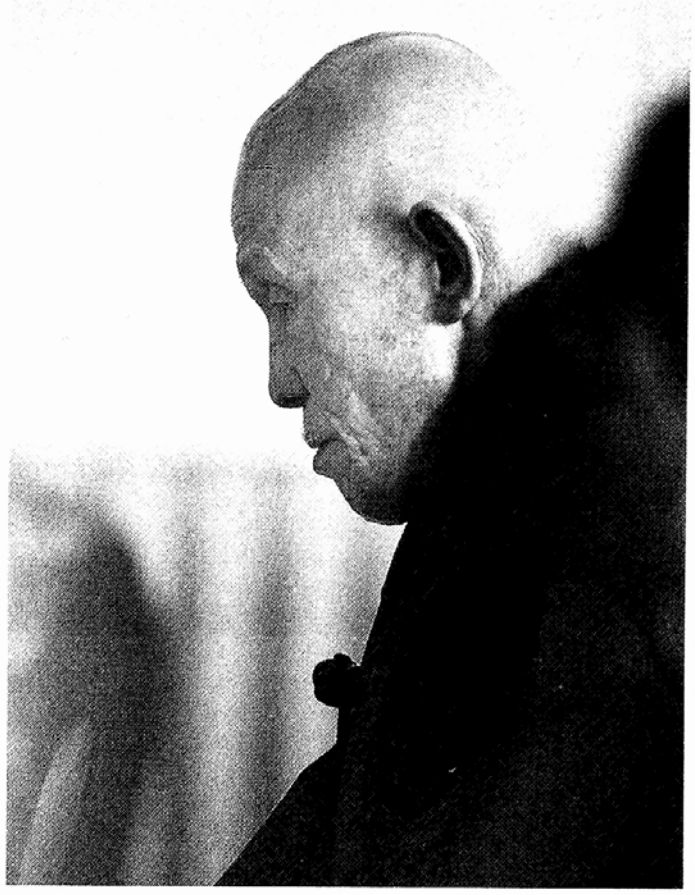
세웅 스님은 예불과 기도 시간 외에는 항상 작업복 차림을 하고 계신다. 그 이유

예불 · 참선시간 외엔 항상 작업복차림 텃밭 일구고 절 보수

는 사찰의 모든 일들을 손수 하시기 때문이다. 텃밭을 일구는 농사일부터 사찰의 크고 작은 보수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심지어 스님은 몇 년 전 태양열 보일러 설치 등의 큰 작업도 직접 했을 정도다.

스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사찰의 울력을 하다보니 늘 작업복 차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국 선종의 청규 창시자 백장 스님의 '일일부작 일일불식(日日不作 日日不食)'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이다.

문득 수 십 년 전 일간지의 한 기자가 하동 칠불암 선방에서 두문불출하는 선승을 취재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사연은 이렇다. 칠불암에 도착한 기자는 군불을 지피고 있는 노인에게 "이곳에 두문불출하시는 큰스님이 계시다는데 한번 뵈러 왔습니다.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군불을 지피는 노인은 이곳엔 그런 스님이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 결국 그 기자는 스님을 만나지 못했다. 나중에야 군불 지피는 스님이 바로 큰스님임을 알고 아차 했다는 것이다.



◇세웅스님은 법상에서의 법문은 물론 사진촬영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사시마지 기도를 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대중방에서 문틈으로 촬영했다.

대중방에서 나간 사람이 세웅 스님이란 사실을 알고 좇아 나갔지만 스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스님을 다시 뵌 것은 2시간여가 지난 사시 마지 시간이었다.

가사장삼을 수하고 법당에 들어오신 스님의 첫 인상은 여느 스님과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신도들에게 일일이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스님 모습에서 부처님의 미소와 같은 자비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스님이 불전을 향하자 법당에는 적막이 흘렀다. 그 사이로 나지막한 염불이 시작됐다. 세수 77세의 노스님이기 때문에 염불 소리가 그렇겠지 라는 생각은 선입견이었다. 스님의 염불소리는 서서히 높아지더니 법당은 물론 계곡까지 멀리 울려 퍼질 정도로 힘이 있었다. 젊은 사람 못지 않았다. 게다가 스님은 이날 갑장사를 찾은 30여 신도들의 축원카드에 적힌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 주셨다. 간혹 읽기 난해한 글자가 있으면 종무를 보고 있는 보살을 불러 확인한 후 다시 축원해 주기까지 했다. 이러한 스님의 지극 정성으로 인해 사시마지 기도는 여느 사찰에 비해 두 배가 걸렸다. 신도들은 "스님은 늘 우리가 미안해할 정도로 자상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해 주신다"며 입을 모은다.

사시 마지를 마친 스님께 인사를 드리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외환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연등초벌용 8Cm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핸드폰:(016)552-9360

상표등록

미 수 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그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본 제품의 가벼움과 완벽한 결선으로 법당 내부에 늘어지는 현상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인등은 내부전압 변환 트랜스 에 전혀 발열이 없음.
◎ 주문시 법당 일년등용 전구설치는 법당 규모와 등의 규격에 따라 전구의 간격이 달라지므로 전화 주시면 일차 방문하여 간격과 수량을 맞추어 드립니다. (설치예정일 2~3주전에 전화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1, 전남1, 서울, 경기2
◈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경남, 서부대리점
011-599-8287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경주 054-772-2667
충남대리점
017-209-9042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주)TG 반도체 [illegible] 하산곡동 74-20

세웅스님은?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선승
갑장사 주지 소임 유일한 이력

세웅 스님은 이력이나 수행생활이 일반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선승이다. 1925년 태어난 스님은 1956년 서운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은사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스님의 유일한 이력은 1968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지낸 갑장사 주지 소임이다. 이것도 스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갑장사에 스님이라곤 세웅스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무행정상 주지 소임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주지 자리를 상좌에게 맡겼음에도 조실이나 회주 등의 자리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한다. 조실로 앉게 되는 순간 모든 공부가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주사암연합회 고문자리까지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다. 특히 스님은 "사람 없는 조용한 곳에서 공부해야 한다"며 지난 40여 년 동안 갑장사를 떠난 적인 한번도 없다고 한다. 스님은 오후불식을 하며 현재 대웅전에서 100m 떨어진 산자락에 조그마한 토굴을 마련해 정진하고 있다.



◇세웅스님은 예불과 참선 · 기도시간 이외엔 항상 작업복 차림이다. 사시 마지를 위해 법당으로 걸어가고 있는 스님.

77세 믿기 어려운
쩌렁쩌렁한 염불소리

고 하니 스님은 "기도를 또 해야 한다"며 명부전으로 향하셨다.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스님은 해질 녘까지도 명부전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한 보살이 다가와 "기자님들께서 오신 걸 알고 일부러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인터뷰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날 점심공양도 거르시고 약 5시간 이상을 독경 삼매에 드셨다. 그것도 80에 가까운 노스님이 말이다. 신도들은 "스님은 웬만한 젊은이들을 능가할 정도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고 계시다. 한마디로 초인적이라 할 수 있다"며 "그것은 오랜 세월 지속하신 수행 때문"이라고 말했다.

갑장사에서 만난 박인석 씨(상주법우회 부회장)는 "세웅 스님은 참선과 울력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법상에 올라 법문은 절대 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신도들이 스님께 법문을 해달라고 하면 늘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법문을 하겠는가. 나는 법문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갑장사에는 여느 사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문 법회가 열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법문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갑장사에 가면 많은 법문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한다. 스님의 행주좌와 어묵동정 모든 것이 신도들에겐 산 법문이기 때문이다. 스님께서는 살아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불성의 작용임을 신도들에게 몸소 보여주신다. 갑장산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으면서 밝은 선지(禪旨)와 산 법문으로써 불자들의 정신적 스승이 되고 있다. 즉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선의 구현이며, 청정율의(淸淨律儀) 그 자체인 것이다.

스님은 '불교가 무엇입니까', '선(禪)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면 아예 말문을 열지 않으신다. 그래서 신도들이 터득한 '법문듣기 비법(?)'이 있다. 생활에서의 고민을 묻는 것이다. 그러면 스님은 그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러 방편을 토대로 자상한 가르침을 준다. 그래서 갑장사의 법회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늘 열리고 따뜻한 문답이 오간다.

스님은 '무욕(無慾)의 삶'을 자주 강조하신다고 한다. 어떤 일이든 욕심은 마(魔)가 된다는 것이다. 가정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란 것이다. 특히 깨닫고야 말겠다는 지나친 수행 욕심과 많이 알려고 하는 지적 욕심을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화 하나. 얼마 전 상주시내에 거주하는 한 신도가 개업 불공을 하며 20만원을 갑장사에 보시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들은 스님은 그 신도에게 돈을 그대로 되돌려 보냈다. 보시를 많이 한다고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갑장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란 것이 그 이유다. 스님은 재물이 많아지면 게을러지고 욕심도 많아져 수행에 마가 된다고 경계하시며 보시에 대해서조차 엄격하다. 결국 보시는 어떤 식으로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 깃든 순수하고 지극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 어떤 때는 스님이 신도들에게 보시금을 주기도 한다. 사찰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인 것이다.

공양주 보살과 거사 그리고 스님만이 살고 있는 갑장사에 얼마 전 컴퓨터 한대가 들어왔다. 갑장사를 찾는 불자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변화다. 약 8천 여장의 신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이 문제. 할 수 없이 컴퓨터를 잘 아는 신도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스님은 그 신도가 밤새워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루는 고생한다며 정성껏 마련한 보시금을 내밀어 그 신도를 어쩔 줄 모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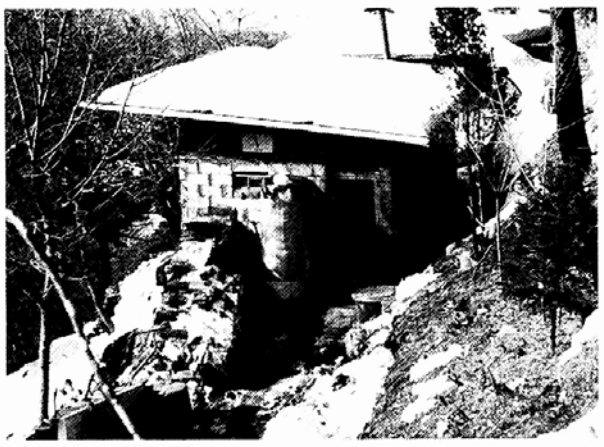
갑장사에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스님의 수행력 때문이다. 물론 신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수행의 길을 묻는 스님들과 나름대로의 투철한 수행을 오랫동안 해온 재가 불자들도 많이 방문한다.

80년대 초 등산을 왔다가 스님을 알게돼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행지도를 받고 있다는 김종재(상주공고 교사) 씨도 그 중 한 사람. 그는 "스님을 뵙게 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며 "무엇보다 수행의 길을 쉽고 자세하게 지도해 주신다"고 말한다. 김 씨가 스님을 만나기 전 화두로 삼아 온 것은 '나는 누구인가'다. 하지만 수없이 참구해 봐도 도무지 진척이 없었다. 의문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스님의 '컴퍼스 강의' 덕택이다. 답답해하는 김 씨에게 스님은 하얀 종이 위에 컴퍼스로 둥근 원을 그려 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원을 그리는 중심 축은 보려 하지 않고 모두 둥근 원에만 집착한다. 무상(無常)한 참된 나는 보려하지 않고 끝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허상을 자기의 본래 보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허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신을 찾는 지름길이다."

스님은 수행의 길을 묻는 수행자들에게 화두를 권하거나 좌선작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바르게 사유하는 것(正思惟)을 먼저 가르친다. 이것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 제1의 수칙이며 마지막까지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사유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화두를 참구하라는 것은 의심도 안 되는데 억지로 참구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스님은 불자들에게 '죽음은 곧 삶의 결산이다'며 절제된 말과 행동으로 자신과 보이지 않은 싸움을 하는 수행만이 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한다.

남장사 주지 성웅 스님도 "상주 지역의 스님과 신도들은 세웅 스님을 정신적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웅 스님을 가까이서 뵌 불자들은 한결같이 "갑장사는 경제적으로는 비록 풍족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사찰이다"며 "그것은 세웅 스님과 같은 선지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옛말에 산무도인 조무양신(山無道人 朝無良臣)이란 말이 있다. 산중에 도인이 없으면 배회하는 수행자가 많아지고, 조정에 신하가 없으면 백성은 시달림을 받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불교가 지금까지 명맥을 꾸준히 잇고 있고, 21세기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세웅 스님과 같이 두문불출하며 수행을 끊임없이 탁마하는 선지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세웅스님은 갑장사 대웅전 왼쪽 작은 언덕 넘어에 작은 토굴을 만들어 40여년동안 절밖을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수행하고 계신다.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 초일스님

20년간 오로지 참선수행만
'출가' 의미 일깨워주는 스님

'출가'.

단순히 정들었던 집과 가족을 버린 것으로, 또 삭발염의한 것으로 대 만족을 삼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없다.

출가란, 고정화된 관념과 익혀온 많은 습들을 뚫고 자신을 자신답게 드러내 놓으면서 대자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삭발을 할 때마다 진정한 출가의 의미, 집을 떠나온 이유를 생각하며 삭발한 머리를 만져보고 또 신심을 다져 올곧은 수행자의 자세로 정진하라고 일깨워주는 스님들이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자기 자신을 자신답게 드러내 놓는 일은 쉬운 듯 하면서 참으로 어렵다. 많은 허구의 집에서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가 빈번함은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대 자유의 길이 누구앞에나 놓여있지만 수행의 길목에서 많이도 번민함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굴레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 자기자신을 걸치레의 도구에 합류시키지 않고 답답히 자유의 길을 만들어 가면서 진정한 출가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스님이 있다. 나는 그 스님을 '바람'스님이라고 부른다.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며 떠나고 싶을 때는 주저없이 훨 하니 떠나는 스님이기 때문이다.

스님의 전 재산이라고는 걸망 하나가 전부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더 만들어 가지 않는다. 때론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자신에게 철저하다. 그러나 남에게는 관대하고 망상의 집을 결코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어릴 때부터 출가를 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함은 많이 만들어 놓은 반연 때문이었다고 그 반연들에게 진 빚을 어느 정도 갚고나면 진정한 출가의 길을 가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는 초일스님. 스님은 출가하는 그 날까지 결코 자신의 꿈을 놓지 않았으며 3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출가를 해 20년간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참선수행만 고집하며 변함없이 살아오고 있다.

늦은 출가였지만 그 늦음을 늦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른'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면서 형식적인 무소유가 아닌, 참 무소유를 빚어내고 있는 숨은 수행자이다. 비쩍 마른 몸매에 피부엔 윤기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초라한 행색이지만 스님의 눈빛은 그 어떤 것도 녹일 수 있을 만큼 형형하니 살아 있다.

스님이 기거하는 토굴은 말 그대로 '토굴'이다. 요즘 일부 스님들이 대중을 떠나 나름대로 수행을 하겠다고 토굴을 만들어서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추어 놓고 "나는 토굴에서 정진하는 수좌" 라고 말하는, 기름기 흐르는 그런 토굴이 아니다.

방은 딱 한 칸이다. 따로 부엌도 없다. 왜냐하면 초일 스님은 대부분을 생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다 생식을 못 하는 이들이 찾아가면 정말 간단히 먹을 거리를 해결해 준다. 방 구석에 놓인 휴대용 가스버너로 끓인 된장국에 김과 간장이면 밥 한 그릇을 비울 수 있도록 해준다. 빈 그릇들은 흐르는 냇가에 가져가서 씻으면 그만이고…

살던 토굴을 떠날 때도 간단하다. 소지품 전부를 걸망 하나에 차곡차곡 넣고 그 나머지는 다음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고 간다. 물건이 많으면 떠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고, 또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집착이 가서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마는 물욕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라며, 물건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다.

스님은 출가는 대중처소에서 했지만 이후는 대중처소에서 살아 본 적이 없는 '완전 토굴형' 스님이다. 강원이나 선원에 얼굴을 내민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행사에 동참하는 스님도 아니라 몇몇 도반 외에는 스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아는 도반이 도움을 좀 주고자 하면 어디론지 숨어버려 몇 해나 지나야 얼굴을 겨우 내민다.



누군가 이쩌다 보시금을 좀 넉넉하게라도 주게되면 초일 스님은 안절 부절이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할 지 두려워하며 마침내 누군가에게 다 주어버리고는 그제서야 마음 편해한다. 그런 스님의 모습에 답답하다고 말하니, 답답하기 때문에 정진을 하지 답답하지 않고 이(利)에 밝으면 화두는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비어있기 때문에 늘 자유로운 초일스님. 최소한의 시은으로 더 큰 자유로움을 만들어 가는 그 당당함이 이 시대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지만 우린 그 귀감조차 흘려 보내고 있지나 않은지 모르겠다.

대중과 더불어 하지 않고 홀로이기를 고집하는 스님, 어쩌면 '괴각' 인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진정한 괴각' 스님이 많을수록 우리 승단의 구도심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 세원사 주지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2545년 봉축 현수막

13도 칼라

불기 2545년 5월 1일(음.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
관음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세로 연수막도 제작 가능

불기 2545년 5월 1일(음. 사월초파일)
마음청정 나라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각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주문 완영

2545 Buddha's Birthday 우리도 부처님같이 5월 1일 사월초파일 도선사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가능

연등축제
■ 90cm×6m, 7m, 8m, 10m, 12m ※ 폭 105cm, 150cm 제작 가능 ✠ 불법제작 판매 불허

봉축깨릭터기 색상(분홍색,황색,흰색) ▲차량용 깃발
▲불자의 집 교패
▲봉축(차량용) 스티커 색상:군청,흰색,분홍,주황 (50매 1세트)
불교기 (20cm×30cm) ▲차량용 깃발
◀불자의 집 교패
▲차량용 옴마니반메훔
※ 불교기, 법륜기, 태극기, 관자기 크기별로 있습니다.
▲봉축 캐릭터 풍선 (풍선대롱 포함)
▲방생 타이슬링 색상(녹색, 청색)
▲봉축 타이슬링 색상(주황, 분홍, 흰색, 청색)
▲봉축 버튼 색상(군청, 분홍, 주황, 백색)
▲봉축 캐릭터 티셔츠 (그림 종류 다양)
▲앞치마 색상(노랑, 빨강, 녹색, 청색)
▲차량용 연꽃염주
▲봉축 캐릭터 등 색상(적색,분홍,녹색,노랑,청색)
▲성인모자
▲아동모자 색상(빨강,노랑,청색)
▲봉축 리본 (색상다양) 일반 고급 3단귀빈용
▲부채 (앞면) (뒷면)
▲봉축 어깨띠 색상(흰색,노랑,오렌지,분홍,연두) 100매이상 사찰명 인쇄 (앞) 마음청정 나라청정 (뒤) 부처님오신날
▲지아철(장엄)연수막 (105cm×200cm) 마음청정 나라청정 / 낫마다 좋은날 되소서
▲봉축 장엄 번 제등행렬용(7가지) 법체내시종사승 / 날마다 좋은날
◀봉축 팬시스티카 (12종 1세트)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 · 4307 · 4309 FAX.(02)738-8682

전국보급처 ■부산-고려불교예술원(051)807-6842 · 종합불교관(051)816-2926 ■대구-삼영불교서적(053)425-4097 ■광주-무등원(062)232-0904 ■인천-인천불교서적(032)763-7885 ■대전-보문불교서점(042)253-6446 · 용해불교(042)283-3727 · 중앙불교(042)222-7840 ■경북상주-고려문헌사(054)541-5599 ■구미-대중불교문화원(054)455-1068 ■충주-중원불교마당(043)851-8477 ■공주-시대불교사(041)856-3280 ■경기광주-광주만물(031)762-1083 ■의정부-삼보불교사(031)856-1020 ■경남밀양-밀양불교사(055)355-5742 외 전국유명불교용품점



'문화재 소설' 나온다

성낙주 씨 성보에 얽힌 이야기 '불교와 문화'에 단편형식 연재



우리 문화의 보고인 불교 문화재에 이야기의 옷을 입혀 현대적으로 되살려낸 문화재 소설이 선보인다.

문화재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소설가 성낙주 씨가 불교 문화재를 소재로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했다.

성씨의 문화재 소설은 원고지 50매 분량의 짧은 이야기다. 하지만 문화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세심한 관찰력, 거기에 동화적 상상력을 동원한 서사방식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성보에 깃든 심미적 역사적 의미와 부처님 가르침까지 담아낸다는 것 또한 이 문화재 소설의 장점이다. 이같은 시도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불교문학계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풍부한 불교 문화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창작인들의 게으름과 인식부족으로 그 유산들을 오늘의 언어로 살려내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성씨는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들을 재창조하는 작업에 보다 많은 작가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편 형식으로 이어지는 문화재 소설은 격월간 〈불교와 문화〉를 통해 연재되는데, 이번 3·4월호에서 '석굴암 아난존자편-미타의 사랑'으로 첫선을 보였다.

'미타의 사랑'은 사람과 결혼하길 원하는 생쥐 미타의 이야기다. 인간이 아닌 생쥐를 주인공으로 삼아 석굴암 부처님과 나한, 관세음보살까지 우화적 시각으로 접근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야기 속에서 미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석굴암 아난존자는 '삼짝 옆으로 돌린 말끔한 이마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고요한 눈길에 부드러운 콧날…남자의 아름다움이란 온간 아름다움이 모두 그 한 사내한테 모여있었다'고 묘사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석굴암 아난존자에서 발견한 후 그와 결혼하기 위해 석굴암 부처님께 100일간 지극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 미타. 마침내 100일이 되던 날 석굴암 벽에서 튀쳐나와 인간의 생명을 얻은 아난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과 결혼하자, 질투와 원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둘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하지만 그 여인이 바로 미타자신의 다른 모습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다. '그 여인은 너의 딴 몸이었느니, 어리석어라. 너의 시샘이 네 자신을 버렸구나.' 석굴암 부처님을 향해 수백 수천 번의 절을 올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 미타는 그 후 다시는 석굴암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대략의 줄거리다. 문학적 상상력으로 문화재를 읽고자하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들의 현재 삶을 돌아보게 하는 울림도 크다. 이야기와 함께 화가 하경옥씨의 삽화도 곁들여, 보는 즐거움도 더했다.

성씨는 앞으로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에밀레종, 이차돈 순교비, 서산 마애삼존불, 법주사 쌍사자석등 등을 소재로, 우리시대의 새로운 설화를 엮어낼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ejee@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서산 너머 해가 진다. 붉은 석양빛에 앞산의 나무들이 황금색으로 물들고 거리엔 땅거미가 길게 깔리더니, 이윽고 사방에 어둠이 찾아든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지막 남은 붉은 빛이 거의 스러져갈 무렵, 마침내 서쪽 하늘 위에 초롱초롱한 금성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문득 정진규의 시집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에 있는 시 '별'이 생각났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정진규의 별

대낮에도 별들은 빛나고 있지만 햇빛에 가려있다

하늘 위에서 저렇게 찬란히 빛나고 있는 저 별은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대낮에도 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찬란히 빛나고 있었지만, 단지 그보다 더 밝은 햇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 태양도 하나의 작은 화로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것이고, 따라서 해가 진 저녁이 되어야 비로소 온갖 별들이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햇빛이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교훈은 우리에게 몽둥이(棒)를 잘 쓰기로 이름난 덕산선사의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교종 계열의 금강경 학자였던 젊은 덕산은 불립문자를 표방하는 선종의 무리들을 소탕하려는 목적으로, 당시 선지식으로 이름이 높았던 용담선사를 찾아간다. 덕산은 용담을 만나 한바탕 금강경을 설교하였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묵묵히 듣고만 있던 용담은 그만 돌아가 쉬라고 하며 촛불 하나를 켜서 건네주었다. 덕산이 촛불을 들고 방문을 나설 때, 용담은 그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돌아서는 덕산의 손에 쥐어진 촛불을 훅 불어 끄고는, 방문을 탁 닫아버렸다. 촛불의 빛에 의존하던 덕산은 그만 눈앞이 깜깜해졌다. 한참을 멍하니 서있는 덕산이 정신을 차리자, 비로소 하늘의 별빛이 보이며 길도 어렴풋이 드러났다. 그 순간 덕산은 깨침을 얻었다.

촛불을 꺼야 별빛이 보인다. 눈앞의 촛불 하나 때문에 (태양도 우주의 촛불이다) 저 먼 곳에서 보내오는 진리의 메시지를 놓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다. 덕산은 하늘처럼 받들던 경전을 봇짐에서 꺼내 그 자리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대자유인이 되었다.

많은 선방의 입구에는 이런 경구가 걸려있다. '알음알이를 내는 사람은 이 문에 들어서지 마시오(入此門內 莫存知解)'. 진리의 법신인 비로자나불이 계신 곳을 대적광전(大寂光殿)이라 한다. 양광(陽光)보다 적광(寂光)이 참된 빛이다. 번뇌의 불이 꺼질 때, 비로소 열반적정의 빛이 드러난다.

■문학평론가

"'신돈=개혁가'에 맞췄죠"

'파몽기' 무대 올리는 극작가 신봉승 씨



1983년~90년까지 방영된 MBC TV 역사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을 비롯해, 역사적 사실들을 대중에 널리 알리고,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해온 극작가 신봉승씨가 고려말 공민왕과 승려 신돈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시도한 희곡 '파몽기'를 무대에 올린다.

"'파몽기'는 내 나이 70에 쓴 희곡 데뷔작입니다. 사실 공민왕과 신돈의 이야기는 15년 전부터 구상해왔는데, 지난해서야 원고를 탈고했지요. 희곡에 대한 애정심이랄까, 지금도 여전히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신씨는 '파몽기'가 정통사극 형식을 빌려 극화되지만, 실제로 '파몽기'의 역사적 배경은 픽션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동안 나약한 임금으로서의 공민왕과 요승으로 인식되어온 신돈이 아니라, 고려 중흥에 대한 열망과 급진적 개혁정책을 시도했던 역사적 인물로서 두 사람의 면모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패한 고려말에는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고려 훈구세력이 개혁의 주체였던 신돈을 크게 견제했고, 그에 대한 원한이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30년간 9번이나 들어고치면서, 신돈과 공민왕, 우왕 등에 대한 왜곡이 가해졌지요. 그러다보니 그동안 신돈과 공민왕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이 팽배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신돈의 문제는 불교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신씨는 그동안 한국 연극에서 정통 사극과 같은 고전극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에 이번 '파몽기'를 준비하며 〈고려사〉를 다시한번 꼼꼼히 공부하고, 검토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땡전사댁 경사'가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우리 전통 고전 희극이라면, 내가 만든 '파몽기'는 비극으로서 가장 사랑받는 한국적 레파토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신씨는 1970년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경산스님으로부터 법련(法蓮)이라는 불명을 받고, 요즘도 〈법구경〉을 애송하는 불자다.

신씨의 희곡 '공민왕 비사-파몽기(破夢記)'는 조선왕조 5백년에서 호흡을 맞췄던 표재순씨의 연출로 오는 23일~4월 1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된다.(02)2274-3507

이은자 기자

전시소식

동국미술인회 회원전

동국불교미술인회 제5회 정기회원전이 21일~27일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회화, 조각, 공예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 개성을 그대로 살리는 자유주제 작품을 중심으로 한 8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동국불교미술인회 심용식 회장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불교미술의 맥을 이어나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02)733-9512



◇'전통채색' 곽동해 作.



◇티벳사자의 서.

'탕카의 예술' 日 순회전

한빛문화재단은 〈탕카의 예술(Art of Tangka)〉 제3권 출간을 기념해 티베트 불교회화의 정수만을 모은 '탕카의 세계-티베트 불교미술전' 일본순회전시를 갖는다.

17일~5월 6일 토교 고대오리엔트박물관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전시는 만다라, 족상, 여래, 불모, 나한 등 티베트 토착의 다양한 불교미술 장르를 보여 줄 예정이다.

중앙승가대 선서화전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법당 삼천불 봉안불사를 위한 '고승대덕 및 중진작가 선서화전'이 28일~4월 3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 무형문화재 석정스님을 비롯, 근현대 한국화단을 대표했던 이당 김은호, 석전 황욱, 청전 이상범, 천경자 회백 등의 작품 250점이 선보인다.(02)922-7881

연꽃세상

새천년연꽃등

습기에 강한 등 · 꾸김이 없는 등 · 변색되지 않는 등

의장등록 : 제0249763호 / 특허출원 : 0050262

※ 차걸이 등도 있습니다.



빨강 주황 녹색 분홍 노랑 흰색

▶대등 (지름) 33cm / (높이) 21cm 수술길이 : 15cm ▶중등 (지름) 30cm / (높이) 18cm 수술길이 : 11cm ▶소등 (지름) 27cm / (높이) 5cm 수술길이 : 11cm



영전 장엄 (가로 1m×높이 50cm)



영단 장엄 (가로 180cm×높이 90cm)



상단 장엄 (중2m : 도제기 높이 70cm×연꽃 1m30cm)



한국불교 꽃 예술에 20여 년간 발전시키면서 법당과 실내에 장엄이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색상과 우아한 모습의 연꽃등을 기획 · 제작하신 청명스님.

연잎지름 33cm 연잎지름 50cm



위패 장엄

연꽃세상
온평구 진관 외동 146-2

문의전화
☎ 02) 388-0108
☎ 02) 354-0108

농민은협 100124-56-027934
국민은행 024-01-0585-787
예 금 주 연꽃세상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5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순정품)
▶종류 : 3W, 5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칼라멘트가 6배(특 칼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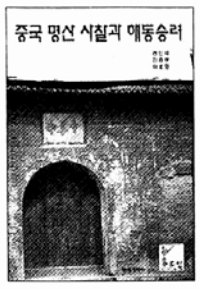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무료전화 (080)5826-236 평생전화 (0502)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986-0277~8


◇혜초 스님이 황제의 칙령을 받아 기우제를 지냈던 선유사 전경.


◇지인 스님이 불경을 번역했던 취미사지의 석불.


◇종남산 신라왕자대의 전경.


◇홍교사에 조성된 원측 스님의 탑.



1천여 신라스님 중국으로 간 까닭은

중국 명산사찰과 해동승려 변인석 외 2인 공저

불법을 구하러 중국 당나라로 갔던 신라 스님은 얼마나 될까. <중국명산 사찰과 해동승려(주류성)>는 입당구법(入唐求法) 스님들의 발자취를 사학자의 시각에서 살핀 책이다. 변인석(전 아주대 사학과) · 이호영(단국대 사학과) 교수와 중국 섬서성 사회과학원 진경부 씨가 함께 쓴 이 책은, 종남산 등 중국의 5대 명산에서 수행한 신라 스님들의 행적을 탐구한다.

〈경덕전등록〉, 〈삼국유사〉, 〈고승전〉 등 문헌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중국으로 유학했던 스님은 약 130여명. 하지만 이들은 중국불교의 법맥에 이름을 올린 스님들이다. 장국동 씨 등 중국 사학자들에 따르면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구법스님들까지 합하면 1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중국의 선진문화를 수용했을 뿐 아니라 불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중국은 물론 인도까지 들어가 경전을 번역하거나 연구하여 중국과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스님도 있다. 대표적인 스님이 혜초와 원측이다.

한국사학회(회장 최근영)는 입당구법 스님의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해 7명의 조사단을 구성, 지난 98년 종남산 답사를 시작으로 매년 구화산, 천태산, 보타산 등 중국불교의 5대 명산을 중심으로 신라스님들의 발자취와 유적을 조사했다.

중국불교의 대표적 성지 종남산에는 신라의 어떤 스님이 어느 사찰에서 정진했을까. 종남산은 중국 불교의 6대 종파가 발원했을 정도로 중국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산으로 꼽힌다. 이 산은 입당 구법 스님들이 한번쯤 거쳐갔다 할 정도로 신라 스님들의 대표적 구법도량이었다. 혜초 스님이 당 대종(代宗)의 칙령을 받아 기우제를 지냈던 선유사의 옥녀담을 비롯해 자장 · 원측 스님이 수행 정진했던 운제사, 지인 스님이 불경을 번역했던 취미사, 현장법사가 역경원을 열었던 홍복사를 비롯해 지상사 정업사 운제사 옥화사 장경사 등 신라 스님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사찰 만해도 30여 곳 가운데 10여 곳에 이른다고 한다.

종남산 등 5대 명산 답사

입당구법 스님 행적 조명

특히 성수사에는 현욱 스님을 비롯해 인광 · 허운 · 정혜 · 내과 스님 등 신라의 역대 고승들이 거쳐갔으며, 화엄학의 중심지였던 지상사에는 의상 스님이 8년간 주석했다고 한다.

글쓴이가 22번이나 찾았을 정도로 종남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수행과 역경 등 신라 스님들의 구법열정이 가장 많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종남산에 온 신라 스님들은 강남과 사천 그리고 오대산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이 점에서 종남산은 한 · 중불교문화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또 천태산은 신라 스님들이 거주하였던 신라원(新羅院)이 있었을 정도로 남조에서 북송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많이 찾았다.

이밖에도 이 책은 구화산, 숭산 등의 중국 명산의 사찰을 열개로 하여 신라 스님들의 행적을 낱낱이 추적하며 분석한다.

변인석 교수는 "문헌이나 구전으로 알려진 곳을 직접 답사하여 정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곧이어 중국의 9개 산의 신라 스님들의 발자취도 조사해 책으로 묶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생명을 노래하는 개구리(심재한 지음, 다른세상) = 우리 나라에는 6과 17종의 양서류가 있으며 크게 나누면 개구리와 도롱뇽이다. 이 책에서는 17종류의 개구리와 도롱뇽의 생김새와 몸 구조, 살아가는 생태습성, 한 종 한 종의 자세한 삶, 자연 속에서 양서류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풀어나간다. 값 1만5천원.



▲구렁이들의 집(최인석 지음, 창작과비평사) = 〈내 영혼의 우물〉로 독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중견작가 최인석 씨의 다섯번째 소설집이다. 완전무결한 중심을 찾다가 길을 잃고 꿈만 남은 큰 아비 앞에서 '나'는 말더듬증을 깨게 된다는 내용의 표제작 '구렁이들의 집'을 비롯해 '잉어 이야기', '모든 나무는 얘기를 한다', '포로와 꽃게', '봉천동 그 찬란하던 날' 등 다섯편의 중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값 8천원.



▲공자 인간경영(주선 지음, 중명) = 공자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현시대 최고 경영자가 실천해야 할 비즈니스 처세법을 다룬 책. 글쓴이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정보와 기술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진단한다. '생(生)과 사(死)는 하늘의 뜻이지만, 사업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공자의 가르침이야말로 이 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인간경영의 기본 축이 된다며 공자의 사상을 경영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값 7천5백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장휘용 지음, 양문) = 기(氣)의 세계에 대해 경영학과 교수가 자신이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한 책. 글쓴이는 우주와 인생에 관해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 곳에 흩어져 존재하는 진리의 단편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다. 기의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도 살핀다. 값 8천7백원.



▲버려서 아름다운 것들(정경 스님 지음, 하남) = 〈참선요가〉 등 건강법에 관한 두 권의 책을 내놓아 화제를 모았던 정경 스님이 내놓은 수상집. 글쓴이는 불교와 참선이 같은 느낌을 주듯 참선과 좌선도 같은 의미로 잘못 이해하기 십상이라며 자신의 수행경험을 토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체로 풀어낸다. 값 8천원.

제3수행법 · 청빈사상 특집

'불교와 문화' 등 불교계 잡지 봄호

월간지 · 계간지를 포함한 불교잡지 봄호가 나왔다. 올봄에 나온 잡지들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문은 수행법과 신행 그리고 불교문화 등 최근 불교계의 주요 관심사들이다.

〈불교와 문화〉는 '제3수행법 이렇게 생각한다'를 주제로 화두선 수행자가 본 제3수행법의 문제점, 이제는 종단과 선승들이 말할 때다 등 제3수행법의 명과 암을 조명하고 있다. 특집 '한글대장경 완간의 의미와 발전적 비판'과 '성낙주의 문화재 소설' 등은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를 모색하는 〈불교와 문화〉다운 기획이라 할 만한 것들이다. 선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교양지를 표방하면서 출발한 월간 〈선문화〉는 '청빈의 사상 선승에게 배워라', '인도 사람들의 선정생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인도의 수행자들' 등 네 분야로 나눠 청빈의 사상을, 월간 〈불광〉은 미공 스님의 출가기를 비롯해 특집으로 출가에 대해 집중조명하고 있다.

한편 만해 스님이 조선 청년을 계몽하기 위해 1918년 펴낸 잡지 〈유심(唯心)〉이 83년 만에 시 전문 계간지로 복간돼 눈길을 끈다. 복간호에는 특집 '만해와의 특별한 만남', 증견 문인들의 좌담 '21세기 문학을 전망한다', '만해 인물 탐구' 등을 통해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경림, 김원각, 최하림, 오세영 씨 등의 시와 시조를 싣고 있다.

김중근 기자

성냄과 미움 다스리는 생활 지침서

지창영 옮김 '명상으로 얻는 깨달음'



티베트의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은둔하며 수행하고 있는 스님과 목자가 우연히 만나 나누는 이야기다.

산 속에서 수행하며 혼자 살고 있는 스님이 있었다. 어느 날 목자가 스님이 살고 있는 동굴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호기심이 발동하여 스님에게 묻는다.

"스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무얼 하십니까."

"인내에 관한 명상이네" 목자는 되돌아서다가 스님에게 "스님, 지옥에나 가십시오"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동굴 속에서 화난 목소리가 되돌아 온다. "뭐라고, 자네나 지옥에 떨어지게." 목자는 웃으면서 인내에 관해 명상한다는 분이 어떻게 그리 쉽게 화를 낼 수 있느냐고 일깨워 주었다.

이 짧은 이야기에는 인내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이 함축되어 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을 자제하고 고요한 상태로 대할 수 있을까.

달라이 라마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인내와 보살의 삶에 대한 4일간의 가르침을 담은 〈명상으로 얻은 깨달음〉(지창영 옮김, 가림)은 분노와 미움이라는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생활 지침서다. 이 책에서 달라이 라마는 산티데바의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주제로 설하고 있다.

산티데바는 글의 첫머리에서 한순간의 분노가 일생동안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며 그 치유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이상적 여성상 '보살의 삶'

불교와 여성

이영자(전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교수. 천태학을 전공했지만 불교계의 여성강의는 대개 그의 몫이었다. 한국 여성학회장을 맡아 활동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교수가 정년퇴임 기념으로 책을 냈다. 〈불교와 여성〉(민족사)이 바로 그 책이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불교여성관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초기교단 · 한국의 여성사 · 여성 성불론 등 다방면에서 탐구한 여성에 대한 사유를 풀어놓고 있다.

이 책은 또 여성 차별에 대한 한국 불교의 태도도 비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성불제자를 바라보는 통념'에 대한 비판이다.

이 교수는 책 곳곳에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평등사상이 보살정신으로 승화될 때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것이 이 책의 진정한 메시지다. 값 9천7백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2	금강경 강의	혜 거	부디스트웹진팀
3	봄 여름 가을 겨울	법정 · 류시화	이 레
4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5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6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7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8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9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 태 완	장 경 각
10	부처님 말씀	성 열	현 암 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제 10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신청 받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매년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포상하고 있사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구 분	대 상	인원	상 금
역경상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 하신 분	1명	500만원
문학상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시, 소설, 극문학(희곡, 방송극, 시나리오 등)부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분	1명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서화부분 제외) 2. 방송, 예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1명	500만원

2. 구비 서류 ❶ 신청서 또는 추천서 (지정양식) 1통
❷ 이력서 (명함판 사진 3장) 1통
❸ 공적서 및 증빙자료 (최근 2년이내 실적자료) 1통
3. 제 출 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기획실 ☎ 031)980-7719~20 (우편번호 :415-070)
4. 신청 마감 2001년 6월 30일
5. 심사 및 발표 본 재단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개별통지 및 불교관계 신문 발표
6. 시 상 일 2001년 9월 24일 월요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 (02)586-652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3월 일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

『元曉學硏究』 제6집에 실릴

논문을 공모합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元曉聖師와 大乘佛敎의 一心思想>이라는 주제로 『元曉學硏究』 제6집을 기획하면서 "기타 주제"의 일반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논문을 발표할 의사가 있는 분은 <논문요지>를 A4 용지 2매 내외로 작성하시어 2001년 4월 30일 까지 下記의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 후 개별 통보합니다.

① 元曉聖師와 관련된 자유주제의 논문 : 총 3~4편
② 대승불교의 一心思想과 관련된 자유주제의 논문 : 총 1~2편

▷ 원고료 : 각 편 당 100만원
▷ 논문요지 제출 마감일 : 2001년 4월 30일
▷ 논문 마감일 : 2001년 10월 31일
▷ 논문 제출 자격 :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박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
▷ 논문요지 제출처 : E-mail - madhyama@chollian.net

(우)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 연구실 ☎ 054)770-2105 / ☎ 011-320-4050

元曉學硏究院 院長 李道業 合掌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원장실 054)770-2392
원효학연구원 원장실 054)770-2106
홈페이지 http://www.wonhyo.org

元曉學硏究院

제 1315주기 원효대재에 초대합니다
4월 22일 (일) 오전 10시 / 경주 분황사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모집

■ 모집학과 : 불전의식과 - 00명 ■ 교육기간 : 6개월
■ 교육내용 : 일용의식 - 도량석, 종송, 축원, 예경
상용의식 - 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 - 대령, 관욕, 시다림, 점안, 방생 등
■ 특 강 :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 본 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 교육시간표

'2001년도 시간표		
요일/과정	수	목
불전의식과(6개월)	19:00~20:30	19:00~20:30

■ 응시자격
① 종헌 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비구(니)
② 재가불자도 청강이 가능함
■ 전형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
■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 (소정양식) 1통
② 승적증명서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 접 수 : 2001년 3월 23일(금) ■ 면 접 : 2001년 3월 24일(토)
■ 개 강 : 2001년 3월 28일(수)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 02-921-3425)

"개성 영통사 옛모습 찾는다"

평양방송 "복원중 … 조사 · 발굴 병행"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출가 · 입적한 개성 영통사(옛 경기도 개풍군 용흥리)가 1065년 당시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북한은 14일 평양방송을 통해 "우리 당의 민족문화유산 보존 정책에 의해 새롭게 복원되고 있는 영통사가 머지 않아 자기의 옛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3월 14일자)

복원작업은 지난 99년 하반기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평양건설건재대학 건축연구실의 복원설계도면을 완성함에 따라 시작됐다. 영통사 복원설계도면에 따르면 의천 스님이 출가하던 해인 1065년의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4만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주건물 8동, 회랑, 비각, 3채의 승방, 의천 스님의 부도 등이 복원된다. 총 건축면적은 2천 8백여 평방미터이다.

지난해 9월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방북, 영통사지를 비롯한 개성 일대의 유적을 들러본 김동현(동국대) 교수도 "북한은 '영통사복원추진위원회' 결성하고 기초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복원 작업을 위해 북한은 이미 98년 일본의 대정대학과 합께 2년 간 4차례에 걸쳐 영통사지에 대한 공동발굴 조사 실시하고, 1천여 년 전의 영통사의 사격을 밝혔다.

평양방송은 이어 "복원 작업과 함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조사 · 발굴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사 · 발굴 작업을 통해 소형 돌탑과 불상 조각, 각종 구슬, 고려자기, 도기, 금속그릇 등 고려시대 유물들이 수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다.

한편 4박 5일 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14일 "남북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성과 고성 내금강 등을 관광자유특구로 지정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복원하고 있는 영통사를 볼 수 있을지에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개성시 용흥리 오관산에 있는 영통사지 모습.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에 따르면 개성이 관광자유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연결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북한도 법제화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고, 개성과 박연폭포를 연결하는 도로가 건설된다는 점에서 관광을 통한 영통사 참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자유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남 · 북한 장관급 회담을 거쳐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때 합의서를 작성한다.

오종욱 · 권형진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경치

태산의 도교와 불교

신근재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고문〉



태산은 중국의 5대 명산이기도 하지만 아시아권에서도 단연 첫째로 손꼽히는 명산이다. 5대 명산이란 호남성의 형산(衡山)을 남악, 하남성의 숭산(嵩山)을 중악, 협서성의 화산(華山)을 서악, 산서성의 항산(恒山)을 북악이라 이르고, 여기에 태산을 덧붙인다.

진시황 · 한무제 등 봉선의식

태산이 자리한 산동성은 중국문화가 꽃피던 춘추전국시대에는 노나라, 제나라가 위치했던 곳이다. 공자의 고향인 곡부가 거기에 있으며, 세계 3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인 황하가 이 지역을 도도히 흐른다. 옛 글에 "제(齊)의 문화가 한 번 변하면 노(魯)에 가깝고, 노의 문화가 한 번 변하면 도(道)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중국문화의 산실이었다. 그러한 산동 지역에는 산이 그리 흔하지 않고, 더구나 높은 산이 별로 없으니 태산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이나 일본에 있어서도 태산은 그 의미가 남다를 것이다.



◇태산 자락에 앉은 보조사 팀림.

태산으로 가기 위해 산기슭에서 케이블카로 남천문(南天門)을 향하면서도 어떻게 하여 이 도교(道敎)의 영산(靈山)에 불교가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태산은 중국 고대의 역대 황제가 제후들을 모아놓고 봉선 의식을 행한 땅으로도 유명하다. 진시황을 비롯하여 한무제, 당 고종과 측천무후, 후한의 광무제, 위나라의 명제, 송나라의 진종에 이르기까지 72인의 황제가 봉선 의식을 거행한 곳이다.

봉선(封禪)이란 황제가 즉위하였을 때 하늘의 명을 받아서 중국을 통치한다는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태안 시가에 있는 태묘(일종의 행궁)에서 태산 정상까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남천문에서 따스한 겨울 햇살을 받으며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서면 벽하사에 이른다. 벽하사에서 왼쪽으로 오르는 도중 깎아지른 벽에 많은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 속에 기태산명지비(紀泰山銘之碑)가 있다. 이 비가 바로 양귀비와의 로맨스로 유명한 현종이 봉선 의식을 거행했을 때 세운 비다.

다시 계단을 오르면 태산의 정상 옥황정에 이른다. 일명, 천주봉이라고도 불려지는 이곳이 바로 그 이름도 거창한 태산의 정상이다. 맑게 개인 하늘은 겨울날씨 같지 않게 쾌적하기 그지없다. 이곳에는 태산에서 추앙되고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인 옥황대제가 모셔져 있는 옥황전이 위치하고 있다. 옥황전을 나오면 모자를 쓴 것 같이 서 있는 무자비가 있다. 표면에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아서 더 유명하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를 연상케 하는 이 거대한 비는 2100여 년 전 한나라 무제 때 세워졌다. 이 비에 글자를 새기지 않는 이유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너무 뛰어나서 감히 필설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적이고 도가(道家)다운 표현이다.

무자비 양쪽에 법당의 협시보살처럼 고즈넉이 서 있는 아담한 비석에 새겨져 있는 곽말약의 글이 나그네의 눈길을 끌게 한다. 이곳은 많은 문인과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태산은 죽은사람 모이는 산"

공자는 "태산에 오르니 천하는 어찌도 그리 작은가"라고 하였고, 두보는 "태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니, 주위의 산은 작은 것이다"라는 글귀를 여기서 남겼다.

도가에서는 태산의 산신(山神) 태산부군이 사람의 수명과 복록(福祿)을 관장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 태산부군의 딸 벽하원군을 모신 옥황묘에는 3월에만 전국에서 수십만의 참배 객들이 모여든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도교(道敎)와는 달리 태산을 죽은 사람이 모이는 산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옥에 대한 것을 태산이라고 부를 때도 있으며, 태산의 산신인 태산부군을 염라대왕의 서기(書記), 또는 지옥의 한 왕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13일 오후 4시 동국대 문화관 그릴에서 열린 '불교장례문화연구회' 창립 총회 모습.

불교장례문화연구회 발족

매년 장례의식세미나 자원봉사단 상시운영도

불교 장례 문화를 연구하고 무료 장례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불교장례문화연구회'(회장 이덕진)가 출범했다.

13일 동국대 문화관 그릴에서 병진(장안사 주지), 보명(여래사 주지) 스님 등과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된 연구회는 장례 의식을 통해 불교가 일반인의 삶에 가까이 다가서는 데 한 몫을 담당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전통적인 불교 장례 의식을 연구하고, 매년 학술세미나를 계획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학술적인 토대를 다져 〈불교장례문화학 개론〉도 펴낼 예정이다. 또한 연구회는 자원봉사단을 상시 운영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난달 28일 개설한 연구회 홈페이지(kdi.net)를 통해 불교 장례의 특징과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상담실도 운영해 바람직한 장례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덕진(고려대 강사) 씨는 "불교장례문화연구회는 불교 장례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강원 매장문화재연구소' 생긴다

강원도 불교 · 선사유적의 조사와 발굴을 전담할 매장문화재연구소가 생긴다. 강원문화재단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강원매장문화재연구소'의 개설 계획을 밝혔다.

그 동안 강원도 내에서는 양구 상무룡리, 양양 오산리, 강릉 안인리, 고성 문암리, 홍천 하화계리 등 불교 · 선사 유적지가 산재한 만큼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불교 유적은 81곳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폐사지는 49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는 이미 매장문화재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문화재연구소는 3월초 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상반기 중에 문화재청의 지정공고를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문화재단의 관계자는 "학계와 연계한 지역문화재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문화재단신

강화 적석사 사적비 시유형문화재 지정

인천시는 14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강화군 적석사 사적비를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적석사 사적비는 조선 숙종 40년(1714)에 세워진 것으로 조선 중기 명필인 백하 윤순 선생이 글씨를 썼다. 절의 창건 내용과 중수기록은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시관계자는 밝혔다.

전국 문화재 안전점검

문화재청은 해빙기를 맞아 국가 및 시 · 도 지정문화재, 문화유적, 향토문화재 등 전국 모든 문화재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30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 산불발생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역주민 협조체제 유지와 방화시설의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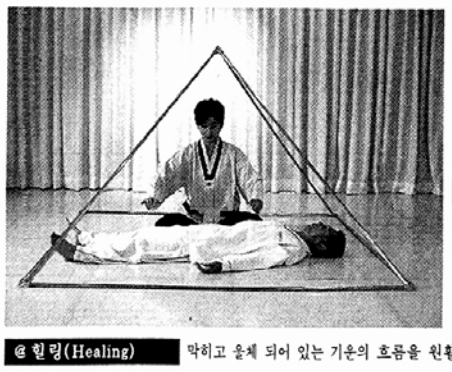
쌍계사 대웅전 등 보수

문화재청은 4월부터 완주 송광사, 하동 쌍계사, 창녕 관룡사 등 3개 사찰의 대웅전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완주 송광사 대웅전은 지난 해 안전점검에서 모서리 기둥이 흔들리면서 건물전체가 뒤틀리고 내부 기둥이 휘는 등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돼 전체를 해체하여 보수할 계획이다. 하동 쌍계사와 창녕 관룡사 대웅전은 지붕을 해체하여 기와 및 부식재를 교체한다.

기공.힐링.명상.자연치유센터 ㈜클리닉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당신의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당신의 의문은 풀리지 않을것입니다.
몸,마음,영혼의 정화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최고의 상담가에게 전생,현생의 의미와 목적을 들어보십시요.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요.



프로그램 안내

@리딩(Reading)요법
전문카운셀러가 상담자의 기운과 영혼의 과장 감지하여 상담자의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각성.

@전생퇴행요법
전생퇴행으로 몸과 마음의 정화와 의식의 확대 인간관계 해결등. 많은 문제 해결과 영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습니다.

@힐링(Healing) 막히고 울체 되어 있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치유력을 극대화
@영능력개발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여 초감각 개발 및 힐링에너지개발.
@치유기공 활.기공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
@소명수련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깨닫게하는과정

㈜클리닉 강남센터:02)3218-7611 여의도센터:02)786-2333
광주센터:062)366-1533
홈페이지주소 http:www.dahnclinic.co.kr
(원장님과직접 상담가능)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 · 가 · 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및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르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중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 진 합장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쳐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렝이콩' 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통미장로는 어떻게 내가 올 줄 알았을까?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㉔

㉓ 동태사(同泰寺)에서의 하룻밤

달마는 종소리가 들려 오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언덕으로 난 길을 넘어서자 엄청나게 큰 절이 시야에 들어왔다. 향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절의 규모를 볼 때 동태사인 듯했다.

달마는 동태사의 주지 통미장로(通眉長老)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양 나라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대덕이었다. 통미장로는 동태사의 주지를 맡은 지도 오래됐지만 무제를 절로 받아들인 공로로 하루 아침에 국사(國師)의 지위에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무제의 존경과 총애를 한 몸에 받았음은 물론이고 유일하게 자줏빛 가사를 입도록 허용되었다. 그것도 무제가 친히 하사한 것이었다.

하지만 통미장로는 결코 공명심에 물든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무제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다. 남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하는 그런 위인도 아니었다. 공(空)과 무(無)의 실체에 대해서도 통찰한 바가 있었다.

그는 설법할 때도 이른바 유(有)와 무(無)는 딱 잘라서 가르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말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파의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완전히 상반된 견해도 궁극적으론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으로 쓴 동태사 편액

통미장로는 달마가 조사임을 굳게 믿었다. 달마가 천명한 '심요(心要)' 설도 결코 사설(邪說)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불교의 교의(敎義)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오온개공(五蘊皆空)을 깨닫기만 하면 능지(能知)와 소지(所知) 또한 없어지게 된다는 이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애욕과 집착의 근거도 사라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선, 나타난 색(色)을 파괴하기도 어렵지만 자신(我)을 깨뜨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법이다.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密多)' 즉 반야의 지혜를 얻어 일체의 고액(苦厄)을 넘어 피안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과 '무'를 철저하게 터득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달마는 통미장로의 경지로 미루어 볼 때 동태사에서 하룻밤 묵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 날이 밝은 다음 배를 빌려 강북으로 건너가기로 마음먹었다.

사방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있었다. 언덕에서 동태사로 접어드는 길까진 잡초가 무성해 찾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때로는 칡덩굴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하면서 거의 한식경이 지나서야 동태사의 정문으로 가는 큰길에 접어들 수 있었다. 절 문 위쪽에 '동태사'라고 쓰여진 편액이 걸려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금으로 쓰여진 글자에선 광채가 났다. 무제의 어필(御筆)이란 인각도 뚜렷했다.

막 절 문을 들어서자 사미승 하나가 달마를 반갑게 맞이했다.

"혹시 달마 조사가 아니신지요?"

"그렇소이다. 한데 노납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승은 통미대사의 명을 받들어 한참 전부터 조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마는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열고 웃음으로 응했다.

"아, 그렇소이까. 통미장로가 법중용상(法中龍象)이라더니 과연 그 비범함을 알겠소이다. 하나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오. 노납을 안내하시지요."

"조사께서는 저를 따라오시지요."

사미승은 달마를 공손하게 안내했다. 그런데 정전(正殿)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잇길 좁은 통로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곧바로 통미장로의 거실에 도착했다.

바로 그때 달마의 머리 속에 퍼뜩 스치는 게 있었다. 이렇게 남 모르게 안내하는 것을 보면 조정에서 이미 밀령이라도 내려온 것일까? 그건 그렇다 치고 통미장로께 수고와 심려를 끼쳐드려 실로 미안하기 이를 데 없소이다."

"저희 절의 철타가 조사께 무례한 행동을 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사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달마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낮에 궁궐에서 일어난 일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통미장로가 어떻게 그리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았단 말인가?

"그 또한 법연이 무르익지 않은 탓인데 어찌 철타를 탓하겠소이까? 장로께서는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통미장로는 다시 한 번 합장했다. 그리고 탄식하듯 말했다.

"빈승은 일찍부터 조사의 가르침을 흠모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이 곳까지 먼 길을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황제가 조사를 금릉으로 모셨다고 하기에 큰 가르침을 전해 주시리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법연이 맞지 않아 마음으로 통하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色을 파괴하기도 어렵지만 자신(我)을 깨뜨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법이다**

통미장로는 인기척이 들리자 방문을 열고 나왔다. 지팡이를 짚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달마를 방 안으로 모셨다. 통미장로는 얼추 백 세쯤 되어 보였다. 치렁치렁한 흰 수염에 이마에선 밝은 빛이 감돌았다. 눈빛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비록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허리는 곳곳했고 걸음걸이도 힘 있었다. 어느 모로 보나 정정해 보였고 대덕의 기품이 있었다.

좌정하자 달마가 입을 열기도 전에 통미장로가 먼저 합장하며 말했다.

상자 사고 구슬 돌려주기

"많이 놀라셨지요?"

달마도 합장으로 답례했다.

"금릉에서의 일이 뜻에 부합되지 못한 것은 법연이 아직 익지 못해서일 것이오. 다만 노납이 한 마디 직언을 할 것이니 받아 주기 바라오. 황제에게 기대어 불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사명대사가 그렸다고 전하는 달마도(종이에 수묵, 24.1×18.1cm, 간송미술관 소장).

그 덕에 전각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불전을 내놓게 하고 전답을 헌납 받아서 어쩌자는 것이오. 또한 몇몇 무예가 출중한 무승을 배출한 것은 좋으나 불법을 제대로 익히지도 않고 행동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오. 그것은 상자를 사고 구슬을 돌려주는 격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소이다."

"상자를 사고 구슬을 돌려준다니요?"

"장로께서는 이런 고사(故事)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구슬장수가 있었는데 한 손님에게 구슬을 팔게 되었더랍니다. 손님은 값을 묻더니 부르는 대로 돈을 치르더랍니다. 장사꾼은 너무나 고마워 상자까지 함께 포장해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구슬을 꺼내더니 그에게 도로 주고 상자만 갖더라는 것입니다. 손님의 말인즉 자기는 상자가 좋아서 그 값을 치른 것일 뿐이고 구슬은 원하지 않으니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상자는 사고 구슬은 돌려준다는 이야기이군요."

"그렇소이다. 불문에 몸담은 사람이 칼이나 창 또는 암기 따위는 가지고 놀 줄 알면서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은 구슬이요, 칼이나 창, 암기 등은 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타 같은 승려는 상자는 사고 구슬은 돌려주는 사람과 다를 바 없지요."

통미장로는 황급히 몸을 굽혀 절을 했다.

"조사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습니다. 철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점 심히 꾸짖어 주시옵소서."

달마는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그럴 것까지 없소이다. 사람이란 깨닫는 만큼 행하는 것이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걸 어찌하겠소. 그저 흐르는 대로 맡겨 두시지요."

통미장로는 진실로 깨달은 바가 컸다. 마음 속으로 거듭 감복했다.

"조사께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보는 즉시 신고하고 체포하라는 칙령이 이미 모든 사찰에 내려와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빈승은 조사를 이 곳에 모셔 두고 성상의 진심을 알아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조사의 신상이 염려되는 바 적지 않습니다. 만약 조사께서 이 절에 계시다가 압송되시면 그 결과는 볼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상의 설득에 응하지 않으시면 죽임을 당하든지 천축으로 쫓겨갈 것입니다."

달마를 잡으려는 철타

달마는 그러한 사태 진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의 말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해 주니 고맙소이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이 곳에서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 줄 수 없겠소이까. 내일 아침엔 마땅히 동태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겠소이다."

통미장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 절은 사람도 많고 보는 눈도 많습니다. 자칫 소란이 일어나 조사께 누를 끼칠까 염려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곳 빈승의 침소에서 묵도록 하시지요."

"좋습니다. 고맙소이다."

달마는 합장하며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장로께서는 진실로 자비로우십니다."

통미장로도 합장으로 화답했다.

달마를 뒤쫓다 놓친 무승 철타는 어명을 받들어 날도 어둡기 전에 금릉의 성문을 닫아걸었다. 물샐 틈 없이 경계를 펼쳤기 때문에 반드시 달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자정이 넘어 이역(異域)의 스님이 동태사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철타는 서둘러 군졸을 이끌고 동태사로 향했다.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안내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평화로움이 머무는 곳
정토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토마을은 불교계에서 유일한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며 더 이상 현대의학의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머무는 평화로운 쉼터입니다. 불교는 이천년에 접어들어 의료복지 포교에 더욱 깊은 관심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되고 의료복지 포교에 있어서 호스피스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게 되고 불교 호스피스 교육이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활성화 되어가고 있지만 신앙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호스피스를 양성하기에는 교육, 관리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불교 호스피스가 질적으로 향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여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씩 보완하여 가면서 금번 제 12기 호스피스 교육을 정토마을 호스피스 시설에서 실시합니다. 이에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교육일정** 2001년 4월 9일 오후 3시부터 2001년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5박 6일
◎ **장 소** 말기환자 전인 치료센터가 은영되고 있는 정토마을에서...
◎ **교육대상**
· 재가 법사 및 포교사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분)
·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불교인으로서 현재 병원 및 유사한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 **연 령** 선착순 25명 남 · 여
◎ **인 원** 38세~ 65세반명함판 컬러 사진 4장
◎ **지 참 물**
세면도구, 필기도구, 108 염주, 목탁, 츄리닝 한 벌, 반명함판 컬러 사진 4장
◎ **원서접수** 전화접수, 우편접수, 직접 방문
◎ **교육 후 활동**
· 수료증 발급
· 한국 불교 아미타 호스피스 협회에 등록되며, 전국 각 병원 및 유사기관에서 협회의 관리를 받으며 불교 전문 호스피스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원서접수 마감** 2001년 3월 30일
※ 명찰, 유니폼, 수료증 발급 및 여러 가지 사전 준비 관계로 교육 1주일전 원서 접수를 마감 합니다.
◎ **문 의 처** 정토마을 사무국 TEL : 043)298-2258 (代) FAX : 043)298-1457

정토마을 전인치료센타 이용안내

1. 정토마을에 관해 .....

◎ **정토마을 호스피스요양센타는?** 정토마을에 건립된 호스피스 요양센타는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말기 환자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독립형 호스피스 전인치료 요양센타입니다.

◎ **정토마을 운영**
· 대 상 : 말기 암 또는 이에 준하는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 운영시간 : 24시간 돌봄을 제공
· 특 징 : 말기환자들을 위한 쉼터인 정토마을 호스피스 요양센타는 2000년 10월에 정토마을 부지에 완공된 독립형 호스피스 전인 치료센타로서 환자들이 자연의 쾌적한 환경속에서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및 간병인들의 간호를 받으며 평화롭게 생활하는 아름다운 마을이며 후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토마을 이용방법** 스님들을 위한 병실 특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신청접수 (전화, 팩스 - 환자의 진단서 제출) →2. 상 담 (전화) / 방문 → 3. 입소심사 → 4. 입소통보 → 5. 입소

1. 정토마을 후원기쪽 만들기

◎ **정토마을 후원안내** 정토마을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 나누어 주실 후원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토마을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토마을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후원접수 방법 – 무통장 입금, 지로납부, 계좌이체, 물품

지 로	정토마을 후원자가 되시면 (전화접수가능) 발송되는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무통장입금	정토마을 후원계좌로 입금
계좌이체	직접 은행을 방문하시어 정토마을 후원계좌번호와 은행명, 예금주를 기재 하시고 '타행간 계좌이체'를 신청 (지참물 : 통장 · 신분증 · 도장)
물 품	정토 마을 주소지로 발송 (보내시기 전에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정토마을
입 금 계좌번호	농 협 : 401142-52-182117 주택은행 : 713701-01-001909 예 금 주 : 아미타 호스피스, 여 둘 금

여러분들이 보내 주시는 모든 후원금 및 물품은 말기 암환자 및 만성환자를 위한 전인 치료센타의 건립과 운영에 쓰여집니다. 정토마을 입소 및 후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사단법인 불교 자제공덕회 정 토 마 을 원장 능 행 합장 ☎ 043) 298-2258 (代) FAX 043) 298-1457

"열린공간 불교동아리 오세요"

대불련 새내기 회원 유치 총력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승배 · 이하 대불련)가 신학기를 맞아 새내기 회원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불련은 지난달부터 새내기 포교팀을 별도로 구성해 대불련 활동이 소개된 동영상 홍보 CD와 버튼 및 디스켓 케이스를 제작해 신입생을 위한 홍보작전을 펼치고 있다. 또 대불련 홈페이지도 '불교교리 공부방' '칼럼' 등의 코너를 신설, 새롭게 단장해 내주부터 인터넷 포교에 들어간다. 지난해 중단됐던 인터넷방송국도 새롭게 업데이트하며 5월중으로 재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173개의 지회를 둔 대불련은 올해 한국종합예술학교를 비롯 대전 보건대, 안동 정보대, 울산 춘해대 등 4개 학교에 지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현재 미등록 상태로 있는 제일대, 한서대, 청운대, 대청대 등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불련은 이런 추세에 힘입어 본격적인 밀레니엄시대가 전개되는 올해를 그동안 침체됐던 대학생 포교의 원년으로 생각하며 신입회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경제한파로 영어회화 · 컴퓨터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에 많이 몰렸던 대학 신입생들이 올해 들어서는 정신적인 안정을 통해 대학생활을 알차게 시작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져 심신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대불련 관계자는 귀띔한다.

포교팀 구성 인터넷 홍보

茶공양 · 등 만들기 '호응'

이에 서울대와 고려대, 충남대 등 일부 대학들은 동아리방을 휴식 및 수행공간으로 개방해 동아리 방을 노크하는 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해 주며 차(茶) 공양을 하는 등 포교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들은 지난 1월 신입생 논술고사때 동아리방을 학부모들의 1일 기도 공간으로 개방해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대불련은 홈페이지 단장, 프로포즈 개최 등 신입 회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한양대에서 개최된 '원성스님과 함께하는 프로포즈'.

경상대를 주축으로 한 경상지부에서는 교내에 가판대를 설치해 컵 연등 만들기를 하고 있다. 또 동아리 방을 노크하는 학생들에게는 컵 연등 제작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만든 컵 연등을 선물하기도 하는 등 신입생 유치에 한창이다.

이승배 대불련 회장은 "요즘들어 대학생들이 이성문제, 취업, 군입대 등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불교의 수행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며 "해외에서 일고 있는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성인인 대학생들에게 까지 파고 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불련 서울지부는 4월 5일 오후 2시 동국대 제 3세미나실에서 각 대학 불교동아리들의 신입생 유치를 위한 '39번째 프로포즈'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영상을 통한 대불련 역사소개, 불교 성악가 정율 스님의 축하공연, 기념식수 등이 펼쳐진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⑬

■ 수상(手相) ②

수상(手相)이나 관상(觀相)이 심상(心相)만은 못하다는 전제하에 손금 이야기를 조금 해 보자.

수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손금은 생명선과 두뇌선 그리고 감정선이다. 해부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세 선은, 모체에서 18주만 지나면 알아



볼 수 있다 한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출발하여 엄지의 뿌리를 휘감고 손목으로 오르는 생명선은, 건강이나 수명과 관련이 깊다 하여 가장 주목을 받는 손금이다. 반원에 가까운 곡선에 갈라져 나온 작은 선들이 위로 뻗어 있을수록 생명력이 왕성하다고 한다.

두뇌선은 달리 지혜선이라고도 불리는데, 생명선과 같이 시작하거나 위쪽으로 조금 떨어져서 출발한다. 관찰력과 판단력, 추리력과 같은 지적 능력을 나타내지만 품성과는 무관하다. 출발점이 생명선과 같은 사람이 두뇌가 우수하고 신중하다고 하나, 생명선 조금 위쪽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행동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생명선 수명 알려줘

두뇌선 지력 나타내

감정선은 직관선이라고도 한다. 자신을 둘러싼 외부 즉, 타인이나 자연과의 공명 기능을 나타낸다. 새끼손가락 아래에서 출발하여 검지와 중지 사이로 흐르는 것이 좋다고 한다. 직관력이 넘치면 독선적으로, 모자라면 소극적으로 되기 쉽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자신의 손금을 관찰해 볼 일이다.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손금만큼은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손금의 차이를 우열로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역시 중요한 건 '마음먹기'다.

포교키 펴내 새싹불자 키운다

대불어 올해 출판 · 문화 사업 역점두기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 스님, 이하 대불어)는 어린이포교를 위한 출판 및 문화사업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대불어가 올 한해 가장 중점적으로 펼칠 사업은 어린이법회 지침서를 비롯해 '어린이 포교 20년사' 및 '동련' '연꽃' 등 어린이법회 교육 관련 포교지 발간이다. 특히 '어린이 포교 20년사' 발간 작업은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대불어가 어린이 포교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불어는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28일 5대 회장으로 정여 스님을 선출한 대불어는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조직 정비에 나섰다. 이에 각 지구별 사무국장들의 지구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구별 어린이 지도자 발굴을 위한 명예기자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회장 정여 스님은 "새싹불자들의 포교는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재목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출판과 문화사업을 활성화 시켜 어린이들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단신

미혼남녀 위한 특강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은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포교원 2층 조계사 불교대학 2강의실에서 '결혼 적령기의 미혼남녀를 위한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이영호(성균관대 가족 경영 · 소비자학과)교수와 서미란(성균관대 생활과학대 박사과정)씨가 강의할 이번 강좌는 △23일 개강식 및 가정 생활의 전망과 사랑 △30일 효율적인 의사소통 △4월 6일 물적자원 관리(1) △4월 13일 물적자원관리(2) △4월 20일 생활설계 △4월 27일 가정철학의 확립, 회향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1만원이다. (02)722-2101

경남 불교대학 개강

창원불교청년회 부설 경남불교대학이 19일 '경남불교대학'을 개강했다. 내년 2월 4일까지 매주 월 · 화요일 저녁 7시 마하연 법당에서 열리는 '경남불교대학'은 불교기초교리와 경전강좌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모집인원은 70명이며, 수강료는 1학기 20만원이다. (055) 267-2307

주부 신행담

금강경을 외우며 ⑤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며 나 자신을 비워가게 되니,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차츰 남처럼 대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남편과 자식들에게 품었던 사소한 불만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즐겁게 가족을 위해 봉사하게 됐으며 감사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내 남편, 내 자식이라는 집착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속을 느끼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속박의 끈에 너무 많이 묶여 있었던 것 같다.

결혼 당시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직장에서 승승장구해 이미 40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남편은 매우 검소했으며 자신에 대해서 퍽 엄격한 편이었다. 그러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일처럼 도와주곤 했다.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특히 오대산 월정사 지장암 등의 법당불사에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일에는 똑똑하던 남편도 부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해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중국 양나라 무제가 절을 많이 짓고 경을 많이 보급한 뒤 달마대사에게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달마대사는 무(無)라고 대답했는데 양 무제가 이 말을 듣고 참회는 커녕 오히려 달마대사에게 크게 섭섭한 마음을 내었다고 한다. 남편의 용심이 꼭 양 무제와 닮은 것 같아서 속으로 혼자 크게 웃기도 했다.

가끔 나에게 어떻게 짧은 수행 경력에도 불구하고 잠도 적게 자고, 피부도 부드러워 졌으며, 생활철학도 완전히 도인처럼 바뀌었느냐며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마다 나는 "알기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있겠소" 하고 응수한다. 이것은 공자님의 말씀인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子曰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라는 논어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아마 짧은 기간에 잠을 적게 자고 생활철학이 완전히 바뀐 것은 어떤 비결이 있어서라기 보다 공부를 즐겁게 하고, 법당에 가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아무 욕심이나 목적없이 순수하게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른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이다.



그림 · 이준석

모든 존재에 감사하며 살자

"모든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그대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대에게 해를 끼친 사람조차도 그대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모든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그대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깊이 인식한다면 더욱 많은 손길이 그대를 도울 것이다" 이것은 절대 감사를 나타내는 인도의 옛말이다.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의 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 글귀를 실천하기 위해 무조건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연습한다. 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머리숙이며 살아가길 발원한다. (끝)

김초심행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2동)

불교 최대 인터넷 쇼핑몰 - 마하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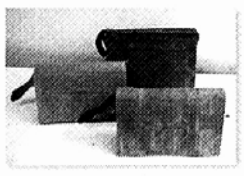
www.mahamall.co.kr 02)732-1522

한지 공예 인형



· 재 료 : 한지
· 사이즈 : 23cm×13cm (케이스포함)
· 종 류 : 승무, 산사가는 길
· 가 격 : 각 35,000원

손가방



· 재 료 : 면
· 종 류
1. 민무늬 (26cm×18cm×7cm) 30,000원
2. 자가드 (26cm×18cm×7cm) 35,000원
3. 민무늬 - 대 (30cm×20cm×5cm) 30,000원

동자 캐릭터



동자저금통
· 높이 : 16cm
· 가격 : 5,000원



꼬리기 동자 세트
· 높이 : 5.5cm · 가격 : 3,600원

108 나한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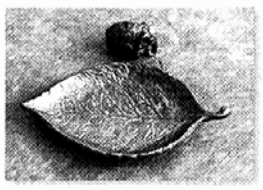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기도포 / 다포



· 기도포 84cm×39cm / 가 격 : 1,600원
· 다 포 50cm×39cm / 가 격 : 800원
· 다량 구매시 할인 및 단체명 인쇄

향꽂이



· 재 료 : 놋쇠 · 종 류 : 보리수, 거북이, 연꽃
· 가 격 : 각 7,000원

아로마 약초 베개



· 재료 : 감국, 참숯, 결명자, 약쑥, 상엽 외 10여가지
· 가격 : 39,000원

아로마 도자기 램프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외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 65,000원 (※ 아로마오일 10ml 포함)

연꽃 불자시계





◇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함죽108염주)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남성용,여성용 각각 1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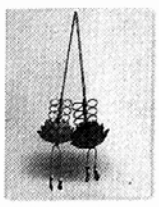
염불 / 강의 (CD · 테잎)



■ 무비스님강의집(금강경 테이프 20개) 가격 : 45,000원
■ 무비스님강의집(지장경 테이프 20개) 가격 : 45,000원
■ 무비스님강의집(진심직설 테이프20개) 가격 : 45,000원
■ 문구암스님법음범패집(테이프 20개) 가격 : 66,000원

· 관세음보살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금강경(영인스님 CD) ₩10,000
· 부모은중경(영인스님 CD) ₩10,000
· 석가모니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신묘장구대다라니(영인스님 CD) ₩10,000
· 약사여래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예불천수경 (영인스님 CD) ₩10,000
· 우리말 천수경(영인스님 CD) ₩10,000
· 장고가락 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장엄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상)(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중)(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하)(영인스님 CD) ₩10,000
· 지장정근(영인스님 CD) ₩10,000
· 천도제 의식 (영인스님 CD) ₩10,000
· 천도타령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천수경, 아미타경(영인스님 CD) ₩10,000
· 팔양경(영인스님 CD) ₩10,000
· 회엄신중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회심곡(영인스님 CD) ₩10,000
· 날개 CD ₩10,000

연꽃 차걸이



· 종 류 (세트 칼라)
1. 분홍, 노랑
2. 연보라, 연두
3. 진보라, 주황
· 가 격 : 각 7,000원

약초 보감 내의 세트



○ 남성 런닝팬티 2종 세트
· 종류 : 쑥 / 숯 / 황토
· 가격 : 각 19,000원
· 사이즈 : 95, 100, 105
○ 여성 한방 팬티 3종 세트
· 구성 : 쑥 / 숯 / 황토
· 사이즈 : FREE
· 가격 : 19,000원

재질 : 면 100% / 사이즈 : FREE / 특징 : 천연염료염색

참선 명상 방석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백화향 선물세트



· 백화향 + 신지단향 + 천연목향 + 향꽂이
· 가격 : 50,000원

모습가진 나로 살기에 묘법 못써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고구마 밭을 다람쥐가 온통 다 파서 제치고 전부 훔쳐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 다람쥐가 어떻게 그렇게 큰 고구마를 가지고 가나하고 보니까 고구마를 돌에다가 굴려서 올려놓고는 이마에다 대고 딱 붙잡으니깐, 아! 딱 붙잡아지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뛰어요. 그거 혼자 보기는 정말 아깝습디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주 못난 사람보다도 그렇게 고구마를 이고 가는 다람쥐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사는 게 뭐가 다른가, 모습만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른가 하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앉았는데, 부처님이 허공에 꽉 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없다면 꽉 차기는 커녕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허공에 꽉 찼다는 거죠. 그러니 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신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 계신 데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아주 뚜렷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들 중 한사람이래도 원망을 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모두 네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 탓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죠.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각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남의 탓이 하나도 없어요. 잘 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더불어 뒹글려서 나오고 또 그걸 따라 다니면서 구경하지 않고도 몸을 가지고 애 쓰지 않아도 살수 있지 않은가. 찰라찰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이 있이 사는 겁니까? 삶이 없이 사는 겁니다. 함이 없이 살구요. 그러니깐 모두가 공 했다고 했죠. 그거 한 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이렇게 살고, 이렇다는 게 다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빤히 알기 때문에 함이 없어요.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놓고 사시라고 말했던 것도, 여러분이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이거를 원망하고 저거를 원망하고 이거를 생각하고 저거를 생각하느라고 사는 재미가 없이 살아요. 사람이 어디 사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하더라도 저 건너 산이 보이면은 내 정원으로 생각하고 웃고 거길 갈 수 있고 그래야 되겠죠.

잘했든 못했든 내 탓

이런 소리하면 좀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겠지만 어떤 스님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다리가 몹시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떼어놓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깨어나시라고 자꾸 건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나 보다 그러고 올른 와서 자기 몸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다 됐더랍니다. 그래서 아픈 걸 면했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소 경험을 해 보지 않고는 이런 소리 못합니다. 이런 것뿐이 아니라 어찌 말로 새록새록 다 하리까. 사람 사는데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삶음이 있다고 단정지어서 몇 마디도 할 수가 없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규정지어 놓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뗏목이 걸쳐 있으면 한다 안 한다도 없이 그냥 치고 갈 겁니다.

그래 부처님의, 즉 말하자면 마음 법은 보살의 응신이 대신하고 있죠. 그런데 보살의 응신으로서의 하는 법은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한다, 이건 아주 큰 법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통신을 해서, 살림하면서 결정짓지 않고 그냥 함이 없이 하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고 하시라.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구정물 들어오는 것도 맑은 물 들어오는 것도 탓하지 마시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꿔서 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세히 말을 해야만 알겠습니까? 아무리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놓고 여러분한테 얘길 해도 이건 펄펄 끓는다는 말이니까 그게 단정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몇도나 되는지 얼마나 찬지 뜨거운지 여러분이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이 맛을 봐야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형제 법회 날은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구석구석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분은 또 다음에 알아 들어야죠. 이 세상을 간파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럼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1: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람의 출생과 임신에 대한 몇 가지 의학적인 문제들입니다. 고래로 불가에서는 사람 몸 받기 힘들고 정법 만나기 힘들고 또 정법 만나 수행해서 보리과를 얻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사람이 되는 건데 사람이 되어 가지고 온전하게 출산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위험과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신이 되고 나면은 임산부의 약 15%가 자연 유산이 됩니다. 그 자연유산은 태아의 결함인 경우가 한 60, 70%가 되고, 산모에게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태아의 결합은 염색체 기형으로 밝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색체 이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치료법은 없고요. 그래서 전체 임산부의 15%가 유산이 되는 건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숫자인데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기는 건지 법의 차원에서 어떠한 까닭이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이전에 한마디하죠. 우리 신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에 나는 그냥 열심히 주인공에 관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관하라고 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되죠. 그 아이 주인공과 통신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보기만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뱃속에 들어 있어도 과거의 자기가 그 모습을 안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를 지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그 얘기를 형성시키는 거니까 잘 데리고 나와야 하잖아.'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수습합니다. 태기가 떨어지려고 한다면 수습하고, 또 떨어지려고 한다면 태반이 옆으로 기울어지죠. 옆으로 기울어지는 반면에 거북하니깐, 돌다가 보면은 목으로 감길 수도 있고 또 목으로 감기기 전에 입을 막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상태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코치가 들어 가야만이 수습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산은 해결을 하고요, 다음에 임신 초기에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이 입덧을 경험합니다. 사람에 따라 경중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경우는 산모들이 입덧을 못 견뎌서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입덧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아직 뚜렷한 설명이 없고 물론 전혀 대책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바랍니다.

▲스님: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애기의 원소하고 자기의 원소하고 결부가 되면 입덧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거 같지만 쉽고, 쉬운 거 같으면서도 모르면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수습을, 주인공이 다 그거를 해결을 하니까, 주인공이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모체에 기반이 있죠. 물론 척추에도 있고 또 머리 정수리에도 있고 왼쪽 다리에도 있죠. 그런 이치가 있지만 그거를 하지 않게 한다고 했다가 잘못되면은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질문자1: 그렇게 해서 임신이 죽 진행이 되면은 약 11%의 산모들은 40주 열달을 못 채우고 36주 이전에 조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7%는 35주 이전에 조산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약 15%정도 목숨을 잃고 살아남은 애기도 상당히 많은 수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애기를 낳게 되면 또 조산아를 출생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따르는데 이러한 조산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산이 왔을 적에 그걸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예방법이라고 그러지만 방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0%가 될 수가 없어요. 방편으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손이 닿다, 예를 들어서 괄하자면 손이 닿아 들어가야 그거를 완치시킬 수 있는데 손이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기한테 통신이 되면은 즉석 그게 무마가 되죠. 정말입니다. 그거를 자세히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삼분파로 나누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데 합치지 못하면 기울어지게 되고 태반이 손상이 되죠. 잘못하면 태반 절반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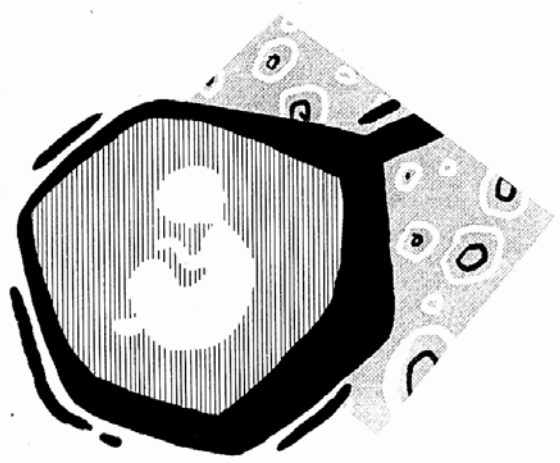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법 배우면 유산·조산 막을 수 있어

헌물 새물 탓 말고 내게 맞게 바꿔 써라

▲질문자1: 스님 말씀대로 조산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게 태반이 찢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현상을 태반조기 박리라고 병명을 붙이고 있는데요, 스님 말씀처럼 미리 태반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조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애기 원소 자체하고 통신이 되면은 잘 알아들고 있거든요. 애기 모습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원소는 알아듣거든요. 그래 자기가 부모의 인연을 따라 형성시켰는데 그거를 잘 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를 얻으려면 어린애 갖기 전부터 해라. 한달 전부터 해라. 두 달이 되도 좋고 석 달이 되도 좋고, 또 그 뒤에 임신을 했으면 한데로 태에 교육을 자꾸 해야 되겠죠.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말로 좋은 모습을 얻기 위해서 등 뭐 여러 가지죠. 타반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뱃속에서 불구가 돼서 나오고, 별일이 다 많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도 그렇고 그런 일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어린애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수술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삼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 얘기가 떨어지면은 모두 문제가 되고 이혼도 해야 하고 살질 못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의사가 오진을 한 모양이야, 상관이 없어, 걱정하지 말아 그리고 열심히 관해.' 라고 말했죠. 그 사람 더러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소용없는 거고 또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소리를 해봤자야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만 그대로 있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의 원소 자체 과거 생 자기와 통신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낳아 가지고 아주 건강하다고 기별이 왔더군요. 그게 의사의 오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의사들은 어째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척추 끄트머리의 그걸로 인해서 애를 돌려서 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차원대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구정물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맑은 물로 갈아서 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게 다죠.

▲질문자1: 산모가 진통을 겪게 되면은 그 중에서 약5%의 경우 애기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간 오늘날 첨단의 태아 감시장치를 부착시켜서 태아하고 산모를 관찰하면은 한 5%정도의 애기는 여러 가지 나쁜 소견을 보여서 적절한 처치를 하다가 안되면은 제왕절개수술을 해서 끄집어내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나빠진 애기를 다시 좋게 만드는 게 100% 가능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서 뇌성마비거나 완전히 예방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인데 이 마음법으로도 일단 분만 진통 중에 나빠진 애기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좋은 묘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신력 없으면 송장

▲스님: 뱃속에서 나빠진 애들, 거꾸로 되어 있는 애기들 얘기가 많거든요. 그럴 때 한번 돌아서 바로 서게끔 되는 것도 자기 원소가 해야죠. 그래서 태교를 해라, 태교를 하면서도 자꾸 관해라 그럽니다. 애기 원소한테 통신이 되면은, 애기를 이끌어주는 원소니깐, 에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기를 잘 나오게 하죠, 순산을 하게 하죠. 그런데 순산하게 하는 것은 태반 옆에 애기의 발뒤꿈치가 거기에 딱 닿으면서 누르고 나오거든요. 그래야 빨리 산모도 힘이 생기고 애기도 힘이 나서 나오는 거죠. 어린애 발뒤꿈치가 거길 닿아서 스스로 그렇게 돼야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스스로 그렇게 돼요. 관해서 통신이 되면은, 즉 말하자면 애기의 원소하고 산모의 원소하고 박사님이 관하는 그 마음하고 동시에 같으면 아주 재참 애기가 힘이 생기고 절대로 나쁘게 되지를 않죠. 그러고 빨리 순산될 수가 있죠. 그러고 더디면은 더딘 데로 좋은 수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지혜의 정신력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고 넣어졌다 이러면은 조금 쉬는 동안에 정신력을 되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신력이 아니라면 송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 사는 걸 봐도 참 욕심난다, 뭐 어쩐다 이런 게 도무지 없죠. 이걸 말로 하려니까 힘드는 군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질문자1: 다음은 비슷한 예가 될는지 모르는데 분만 진통을 겪으면은 약 15%의 애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똥을 싸게 됩니다. 태변이라고 하는데요. 똥을 싸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그 똥을 고대로 다 코로도 마시고 입으로도 마셔 가지고 폐 속으로 박히게 되는 경우가 한 15%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나와서 호흡을 잘 못하게 되고 심하면 사망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사망한 애기를 경험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는 늘 관해서 그런 사망사고는 지금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애기가 태변을 뱃속에서 싸는 경우에 저희가 의사로써 해 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지고 기도를 청소를 한다든지 흡입하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 줘도 애기가 폐 속에 태변이 박혀 가지고 호흡을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예방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변 흡입을 하는 애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하는 것 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을, 마음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론 방편이 여러 가지죠. 즉 말하자면 내가 그 아이한테 관한다, 그래서 태교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태교를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조금도 거기에 압박을 받지를 않아요. 그거를 진정 믿고 박사님들은 아셔야 돼요. 애기가 허겁지겁을 해서 둥글려지면은 그렇게 돼죠, 둥글려지면 안돼죠. 그러면 문제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그렇게 되지 않게 관해 주고 또 옛날에는 참기름을 산모머리 위에다 세 번 칠해주죠. 그러면 애기가 절대 손상이 없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우스운 방편이지만 세 번 찍어 주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삼심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자1: 산모 머리의 어느 쪽에 찍어 주는 겁니까? 앞쪽입니까 뒤쪽인가요?

▲스님: 뒤쪽이든지 앞쪽이든지 박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정수리겠죠. 그런데 이 원소 자체는 과거에도 살았고, 미래에도 살 거고, 현재에도 살고 있으니까 그건 보배 아닌 보배지요. 그러기 때문에 애기든지 어른이든지 모두 이끌어 가는 선장 아닙니까. 모두 이끌어 가는 선장인데 그 선장이 잘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1: 이렇게 해서 분만을 다 마치고 나면은 또 대단히 불행스럽게 상당히 많은 수의 산모들이 하혈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자궁 수축제를 투여하면 출혈이 멎고 별 탈이 없는데 개중에는 하혈이 멎지 않아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는다든지 혹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이나 산모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처럼 마음공부를 안 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 문제가 전부 의학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 이런 환자가 닥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산후의 출혈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또 이게 워낙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출혈이 꼭 수도꼭지 물 틀어 가지고 물 쏟아지는 것처럼 펑펑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 이십분 동안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저도 관하는 도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방편이 있으시면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이건 방편이 아니고 실지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건 이름이며 방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한다 안 한다 할 게 아니라 그대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위험하니깐 아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말입니다. 관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라고 단정지어서 결정을 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자기 공체에 들어 있는 자기 원소가 진짜로 자기라는 걸 믿고 알아야 되겠죠. 딴 생각을 하면서 딴 데로 빠지면 100% 믿어지지가 않죠. 내가 믿지 않는 이상 거기도 믿지 않게 되죠, 서로가.

태아와 통하면 순산

옛날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넌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일어나서 색경을 보아라.' 그래 색경을 보니까 내 상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생판을 보니까 똑같지?'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데 그러니까. 거죽에서 볼 때는 똑같지만, 너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고 할 수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서는 수없이 바꿔진다 이겁니다. 화해서 바꿔지니까 너는 거기에 발끝도 못 쫓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말이지 아주 재주가 많고 묘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써먹지 못하는 것은 이 모습 가진 나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모습 가진 나는 자가 되고 보이지 않는 자기는 부가 된다고요. 묘지가 두 개 있는데, 그건 날 가리키느라고 그랬겠죠. 자로 오면 자가 하나가 되고 부로 가면 부로 하나가 되는데 그건 무슨 연고로 그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의 모습이 나로만 생긴 게 아니라 쓸모 있게, 화해서 변경이 돼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변경이 되고 바꿔지는 거죠. 바꿔져서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깐 말로 할 수 없으리만큼 실천이 되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참 묘하다. 이건 도깨비 장난 같구나. 이렇게 선지식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깐 진짜로 박사님의 원소 자체 주인공을 믿는다면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할 게 없죠. 이런 사람도 있었죠. 어린애를 낳고 하혈을 하는데 피가 코로도 나오고 다 죽게 돼서 숨쉬는 거 꽃고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일 퇴원하겠느냐고 물었어요. 내일 퇴원시키겠느냐고, 그러니 미쳤다고 그러지 그거 성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서 나와서는 바로 5분이나 됐나 그런데 다 멎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됐다는 거는 다 알겠지만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찰나의 한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2: 제가 위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고 질문 올리겠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할 때에 항상 관하고 합니다. 주인공 당신이 하는 거지. 나는 심부름만 할테니 환자가 편안했으면 하고 관하고 검사를 합니다. 며칠 전에 위 내시경 검사를 할 때에 구역질을 하는 환자이어서 검사하기 전에 또 관했습니다. 이번에는 관할 때에 좀 더 깊이 관해지며 제가 뒤로 쑥 빠지며 간절해지는 순간 마음이 환자와 통함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부터 환자는 편안하게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체험을 바탕으로 감기 환자나 위장병환자를 진료할 때에 또 그렇게 관하려 했으나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잘 낫기만을 바라고 마음만 내었습니다.

☞ 20면으로 계속

주인공에 맡겨 놓고 재미있게 살라

☞ 19면에서 계속

환자를 진료할 때에 마음이 모아져서 제가 쑥 뒤로 빠지며 근본을 관하는 거와 환자가 잘 낫기를 바라는 마음만 내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스님: 믿어지면 박사님이 그렇게 안 해도,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박사님이 생각만 해도 거기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인체에 모든 것을 들어가게 되니까요. 박사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걸 모르시지만 즉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열도 되고 스물도 되고 병자가 만약에 수술을 해야 할 텐데 거죽으로 수술은 할 수가 없고 안으로 들어가서 막힌 걸 떼어내야만 되겠다 한다든가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자기 하나가 화해서 넷이 되든지, 그걸 수술을 하려면 셋 넷이 되어야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도 찰나입니다. 그걸 아시게 되면 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라는 말이 없더라도 박사님이 진짜 그렇게 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진찰하면서 마음이 급하지 않고, 이렇게 잘돼라 저렇게 돼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돼야돼 하는 거죠. 그냥 결정이죠.

믿어 결정하는 도리

그게 결정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문제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구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자기 분야가 돼야죠, 그냥. 그래서 자기는 화해서 바뀌지는 걸 모르겠지만 화해서 바뀌지기 때문에 인체로 들어가죠. 인체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도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해서 하나가 거기 지키고 있어도 무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좁쌀 알갱이만 하게 돼서 들어가겠죠. 좁쌀 알갱이도 아니고 흔적도 없이 들어가는 사이 없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걱정이 없고 한다 안 한다 말도 떠 벌일 것도 없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박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꾸 실험을 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질문자3: 제가 질문 올리려고 했던 답을 이미 스님의 법문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나온 김에 질문 한 두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요즘 보면 흉악범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도망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들은 언뜻 저 놈 잡혀야 할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르게 마음을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하는지 가르침을 바랍니다.

▲스님: 옛날에 어떤 도둑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건을 훔쳤는데 그 배에 있으면 붙잡히기가 똑 참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남의 쪽배를 탔어요. 그런데 큰배에 타고 있던 어느 선지식이 그것을 다 알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 도둑의 내력을 보니까 아주 비참하게 살았고 비참한 행동을 한 겁니다. 알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모르고 했기 때문에 조상 탓으로도 들어가고 인연으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그렇게 고생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찌나 묘한지 한번도 붙들려 들어간 본 예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둑질하지 안 하도록 조금 붙은 거를 떼어 버렸답니다. 여러분도 한량없거든요. 도둑질을 왜 했겠느냐. 먹기 위해서 했다. 식구들을 다 굶겨 죽일 수가 없어서 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관계로 도둑질을 했는가를 알아보면은 도둑이라고 해도 도둑이 아니죠 따지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법에는 빵 하나를 훔쳐도 도둑이라고 몰고 가두지마는 부처님 법에는 도둑질을 해도 잘 간파해서 보고 그 도둑질하는 의식을 떼어서 바꿔서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 안 하게끔 노력을 하게 만들어 주어서 모두 건진다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죠. 이 부처님 법에는 너는 나쁘니깐 유치장으로 가거라, 너는 좋으니깐 좋은 데로 가거라 이게 아닙니다. 유치장으로 갈 사람도 유치장으로 안 가게 할 수 있는 게 보살의 응신이요, 또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끝끝내 좋은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응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라 이러는 겁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야 그 뜻이 자유스러워지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귀신 방귀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고르게 다 건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남을 조금도 해롭게 하는 법이 없죠.

그래서 화엄경에 보니깐 말입니다. 옆으로 지내 가다가 보기만 해도 그 은혜가 말도 못하고, 옆으로 가다 손만 만져도 그 은혜가 말도 못하고, 얼굴만 쳐다보기만 해도 자기의 죄명이 다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남을 원망 안하고 남을 미워 안하고 남에게 악설 안하는 사람이 돼야 그거를 알겠습니까. 이 소리를 거짓으로 알지 마세요. 진정 너희들이 안 다면 진정코 보살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데로, 언짢게 생각하니까 언짢은 일이 생기고 죽이고 살리고 일이 생기지 먹고사는 거 아니라면 왜 싸움이 나고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레들도 싸우다가도 자기 몸이 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먹을 것을 그냥 두고 떠납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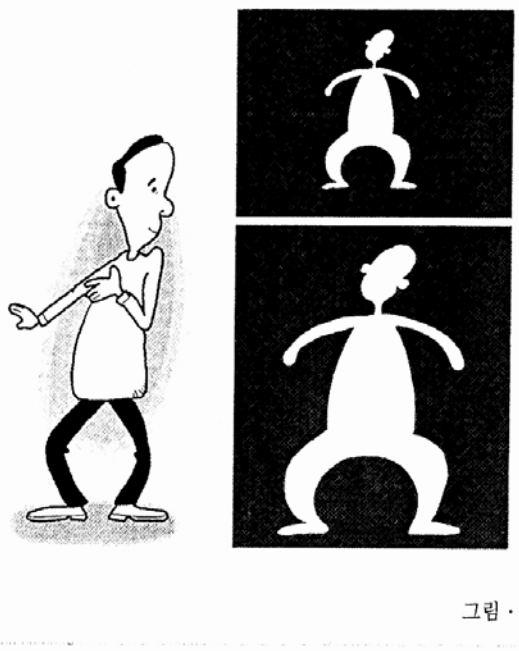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쁘다 좋다 떠나야 자재할 수 있어

사람으로 살던 습 모두 놓을때 승천

남 미워 안해야 보살

돌아서서 떠나더라고요. 개미도 그렇게 떠나구요. 그래서 자기가 먹지 못할 거라면 그냥 떠나면 되지 그거를 악착같이 뺏어 먹으려고 싸우다 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그 문제가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결정적으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깐 도둑이 붙잡히지 않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생각한 대로 어차피 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그저 어떡하든지 잘 살아라,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질문자3: 저는 몇 년 전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거라고 항상 관하면서 함이 없이 한다고 했지만 사업이 잘 안되어 얼마 전 그만 두었습니다. 절대로 남을 탓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하면서 관했습니다. 그러나 빚을 정리하다 보니 돈은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려고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 팔리지도 않고 시시각각으로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관하면서 오직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관합니다만 얼마 안 있으면 빚에 대한 걱정이 살며시 들고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주인공 자리에 탁 맡겨 놓을 수 있는지 큰 가르침 바랍니다.

당하지 않는것도 법

▲스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마음을 고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댁에도 마음이 악해서, 남의 말만 안 들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아주 100% 믿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당하지 않는 것도 부처님 법입니다. 안 당하는 것도 부처님 법이지마는 자기가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미리 넣어야죠. 당하지 않게 너만은 할 수 있잖아 하고요. 물어 보더라도 내면의 자기한테 물어 보지 딴 사람한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러면 벌써 그 사람하고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 길로 갈려고 하는데 그 길이 가기 싫어서 이 길로 갔더라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도 안 당하고 살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다음에는 제 3자를 지금처럼 아주 떡 먹듯이 믿으면 안돼죠. 믿기는 하되, 사랑을 하되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그 사람도 나쁘게 만들지 말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소근소근하는 까닭에 댁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구를 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해 놓고, 뒤에도 회향이 제일 어렵죠. 처음 시작뿐만 아니라 끄트머리에 가서 회향할 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회향 끄트머리에 할 것까지 결정을 짓고 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질문자4: 스님 법문에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형제가 소가 되어서 있었는데 얼른 자기의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자기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연있는 불쌍한 생명들을 자신의 근본자리에 흡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흡수해서 살아가는 것과 무당이 귀신을 불러서 점도 치고 하면서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확실히 좀 알고 싶습니다.

▲스님: 내면의 주인공 자리는 우리가 남이 볼 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는 귀신 방귀씨를 얻었느냐. 얻었으면 공치기 할 공 마당은 만들어놨느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죠. 공부하는 도반들끼리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만 명을 넣었다 하더라도 넣은 사이가 없고 만 명을 꺼냈다 하더라도 꺼낸 사이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병자가 만약에 100명이다 하면 100이 다 수술 들어가서 한다고 해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도 들어간 사이가 없고 나가도 나간 사이가 없고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고 넣어도 넣는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님들도 공부를 못해서 모두 처참하게 사시고 활현을 못하시는데 우리 자손들의 몸이 있으니 공부하셔야 될텐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조상들이 거기 들어가도 절대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간 사이 없이 들어가 있고 배우는 사이 없이 배우고 자식이 배우는 대로 배우고 또는 나가도 나가는 사이 없이 활현하십니다. 만약에 자기가 알고 싶다면 꿈으로래도 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서워서 쩔쩔 매고 해결을 못해서 쩔쩔 매고 이런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짐승의 모습을 다 벗고 나와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이 돼서 살아 나오던 습을 다 놔야만이 승천에 오르죠. 더불어 같이 사는 공식으로서 우리가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살죠.

몇 해 전에 어느 분이 와서 그래요. 형제들이 막 싸우고 집안이 다 망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 까를 말로 해줘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때는 신도님들이 더 몰랐을 때이니까요. 그래서 알겠노라고 그러고, 천상 내가 심부름을 해야 하니까, 아래 위 할 것 없이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그런데 말았습니다, 형제들끼리 작대기를 가지고 죽인다고 싸우는 게 하는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지금도 잘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시는데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공부해서 세세생생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자식들을 거죽만 귀엽다고 생각했지 어디로 굴러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차원으로 살건가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부모가 저쪽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와서 내 자식으로 태어나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식이 되든지 부모가 되든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지원 여러 곳에 영탑이 있지마는 일년에 한번씩이래도 스님들이 닦아 내고 씻어 내고 해서 깨끗하게, 내 부모처럼 해 놓아야죠. 그게 누구입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세생생을 얻습니다. 우리 더불어 같이 세세생생을 얻읍시다.

※위 법문은 3월 4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글대장경』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견본모델 가로 340cm × 세로 2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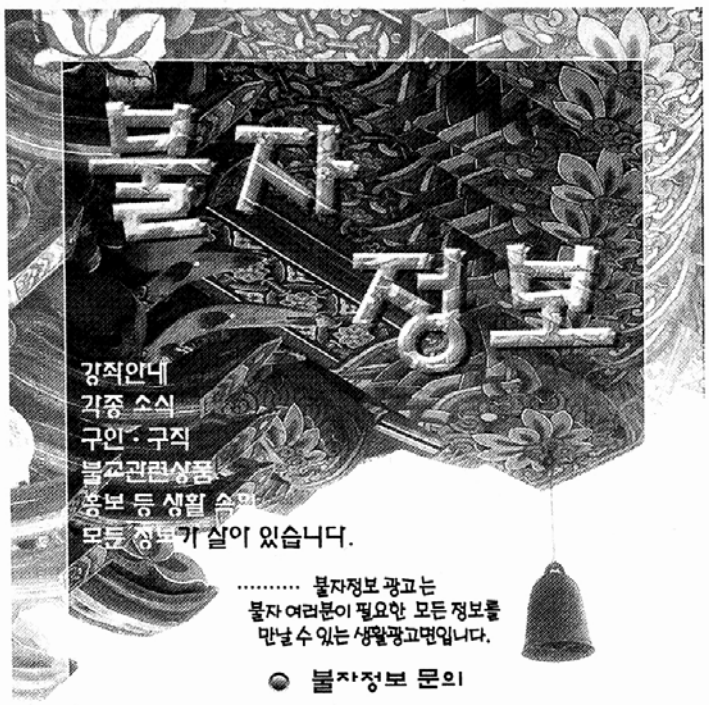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장경각은 사찰(포교당)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집무실용 세가지가 있습니다.
※ 장경각 가격은 주문사양에 따른 상담가로 결정됩니다.



.....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숙식비 : 30만원
- 명퇴지,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김 창 본
011) 545-7252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사람을 찾습니다
이 름 : 김차선 (77세)
가출일 : 2000. 10. 12
연락처 : 032)654-5120
02)679-2069
011)758-6842
가까운 파출소
꼭 사례 하겠습니다.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나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충대충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재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재즈와 클락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벽조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 부처님 복장용 사리함 ◎ 다(茶)상
◎ 목탁 (호신용) ◎ 거북이 (수명장수)
천주, 108염주, 담주, 합장주, 인감도장 특수용도장, 차량용걸이 열쇠고리 옴자
농 협 150042-52-200478 이 민 택
모든 수익금은 지장선원 불상 복원 불사기금으로 쓰여집니다. 혜봉합장
053)982-6778 011)813-3679 **지장선원**

영가천도 해드립니다
석법용 스님은 영가 천도 (중복경도 겸함)를 해드립니다.
여러 보살님 절에서 불러 주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과 같이 기거할 스님을 원하시면 전화요망
062)525-4877

공양주 모십니다.
061)337-3440

판매 합니다. (직접가공함)
≪ 흑단염주, 108주 : 6천원
≪ 합장주 (매듭) : 천 오백원
≪ 일천주 (케이스 포함) : 6만원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번지
덕림산방 : 박 정후
연락처 : 061-337-4879
011-610-4879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및 출가에 뜻이 있는 신자님 모십니다.
▷인천
032)435-0478

참선 선방 불사 중 재정관으로 일시 중단 됨.
경제력 있으시고 참신하신 불자님을 **평생 모십니다.**
- 1998년도 원주시 치악산 430고지에 2000평 부지 확보
- 99년 50평 목제 요사채 완공
- 2000년 대웅전 30평 전통사찰 목제, 9포 7포 90% 완공
- 현재 참선선방 150평 불사 중
- 치악산 자락에 물맑고 경치 최고 좋음, 계곡 청정수를 그대로 먹음, 교통 편리
- 참선선방 불사에 동참하실 분은 내왕하시여 확인하시고 상담 바랍니다.

☎ 033)763-1514 H.P 011)271-0669
원주시 치악산 백운암 (무위선원)

부전스님(비구니 스님)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60세 미만) 모십니다
02)877-7514

같이 기도하면서 지낼 보살님, 처사님들은 연락 바랍니다
052)254-2427
011)562-553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둔촌동 정각사
02)470-3635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유달산 달성사
011)624-2133

스님이 안계시는 절이나 의식을 필요로 하는 도량에서 각종의식(천도재, 사십구재,점안등)을 여법하게 봉행하여 드릴 인연 닿은 절 연락 바랍니다.
017)337-4168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나이 : 50대 후반)
기도하여 함께할 분
017)261-790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서해 바닷가 사찰
041)673-2333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581-1616
(주지실)
581-8844 (사무실)
011)262-2208
가평 극락정사

부전스님 모십니다
30~40세 스님으로써 법당 일 맡아 보실 수 있고 아울러 초하루 법회도 함께 보실 스님을 모십니다.
053) 585-0450
(전화녹음 - 연락처 바람)

기도,공부할 분
심신을 수련하고 공부 정진 하실 불자님 모십니다.
청정도량 정안사
031)375-1831

사찰 (급) 안내
- 신축 사찰을 조성 원가 20억 일부 보시하고 양도 합니다. 뜻있으신 스님 연락 주십시오.
- 부지 2천평, 건물 180평, 포집양식, 정남향 기와, 황토집 (건물 7동)
- 경부 고속도로 용인, 기흥 IC 인근

031) 375-7063 (창건주 직접)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근무시간 : 오전 10시~오후 17시
주 5일 근무
자 격 : 고졸이상
연 령 : 35-55세
전 화 : 02) 3675-6864
※ 의욕적이고 침신한 사고를 가진 주부사원을 모집합니다

토굴 안내
- 위치: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샤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062)234-470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 20평 방 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세 가능

031)868-0516
016)335-8257/011)365-4408

포교당(급) 안내
- 경남 김해시 내동(시내중심지)
- 건물 : 40평 2층 방 2개 법당 현재 운영 중
- 가액 : 보증금 + 시설비 포함 3500만원

055)526-1725
016)501-272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예당 저수지 10분거리 (2차선 도로 접)
- 평수 : 전답대지 2만여평 나머진 뒷산에 저수지 3천평 포함 6만 5천평 합 86,500평
- 가액 : 총 평당 25,000원, 주인직접
- 특징 : 440년된 원님 관사 두채

011)323-392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만덕소재
- 평수 : 대지 52평, 공터 30평 3층 건물
- 특징 : 부처님 후불탱화 · 신중탱화 · 산신탱화 1등급
지하철역 50m 인접, 버스종점 옆
- 가액 : 1억 8천만원

051) 331-9937

사찰안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거리
- 법당 21평, 요사채 50평 (신축건물)
- 대지 : 360평 주차장 80평 밭 173평
- 특징 : 심야보일러, 태양열 온수기 설치 도로근접, 동네를 끼고 있음, 절뒷편 등산로, 지방문화재 3층 석탑
- 가액 : 2억 9천 (절충가능)

011) 671-5161 / 011) 673-2410
063)451-241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 4가 (요지)
- 평수 : 70평 4층 건물 3층
- 구조 : 법당시설 A급, 개금동불 (아미타불 5자) 일급 탱화 모든 시설 완비, 요사채 2, 주방 1, 앰프시설완비, 샤워장,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전세) 월세(답사 후 결정)시설비 3,000만원

011)523-0716/054)292-4117

지리산 시로암 선원
- 위치:실상사 미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탑 둘레 25m 텃밭 • 가액:1억 9천
- 특징: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임야 2583평 • 가액:1천 8백만원
- 함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포교원 안내
- 위 치 : 방학 전철역 부근
- 평 수 : 20평 4층건물의 2층
- 가 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2)955-6609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 대지 : 38평, 실사용평수 : 45평
- 특징 : 인법당, 주변녹지, 경관 수려, 교통편-전철역 10분 버스종점에서 5분 거리
- 가액 : 1억5천2백만원

016)481-6909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산 명당
- 부지 : 1만평, 자연녹지 우거지역 등산로
- 가액 : 평당 80만원

011)241-0408

토굴(급)안내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 건물 : 30평 임법당1개 큰방 2개 거실 욕실
- 가액 : 건물만 1,500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033)763-9737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 지장, 관음(동불조성), 후불, 신중, 칠성탱화, 대북, 범종,(불단조각,달집) 경탁, 경상, 영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엠프, 도시가스 완비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	• 위 치 : 경기 용인	• 위 치 : 밀양
• 법 당 : 15평	• 법 당 : 24평	• 법 당 : 10평
• 요 사 : 20평	• 요 사 : 67평	• 요 사 : 20평
• 부 지 : 170평	• 부 지 : 670평	• 부 지 : 220평
• 가 액 : 1억5천	• 가 액 : 4억 5천	• 가 액 : 5천 5백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 (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 법당 31평 (목조 3포, 5포, 금단청필)
- 요사 : 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 명부전 : 10평 (단청필)
- 기타 :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 8억 (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47 053)652-9598 02)326-1060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금정산 밑)
- 대 지 : 4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40평

※ 산세좋은 고찰이며, 차량 진입 가능 주차장 있음
- 양도가 : 6억

- 위 치 : 충북 증평 소재
- 대 지 : 400평
- 법 당 : 35평
- 요 사 : 70평 (2동)
- 양도가 : 3억

※ 50년 역사의 역사깊은 소행도량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 (버스 정류소 5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2천

016)651-1800
011)870-1463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 평수 : 약 83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3동 (30평 이상) 산신각 종각 5층탑 미륵존부처님
- 특징 : 기차역이 도보로 5분거리 버스터미널 3분거리, 경관이 좋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2) 561-7791
018)273-9390 / 011-753-0768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
- 대지 : 300평
- 건물 : 법당, 기와, 요사채, 미륵 3존불 58년된 사찰
- 특징 :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
- 가액 : 5천만원 (가격 절충)

전북 군산 미륵사
011)9646-322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부천여중 뒤
- 평수 : 3층 29평
- 보증금 :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천만원

032)654-5859/011)294-0528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좋은인연
의령 자굴산 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조선 선비 별장입니다. 대략 내용은 건평 18평, 대지 287평, 전답 1003평 입니다. 조용하게 정진하실 분의 토굴이나 암자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32km됩니다. 희망가액은 2억 5천만원이며, 연락주실 분은 (055)573-8972 번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근교
- 부지 : 250평 • 법당 : 40평
- 가액 : 6억 • 요사 : 140평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 723-4082
광진불사 (절대 비밀 보장)

포교당(급)안내
- 동대구 용계 전철역 입구
- 4층 건물에 2층 (4차선도로)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백만원 (절충가)
- 정남향 교통편리 호조건

053)982-6778
011)813-3679

사암연 회장에 듣는다

복지불사로 호남불교 중흥

전북불교총연합회 도영스님



"봉축행사를 지역 문화축제로 가꿔 호남불교 중흥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350여 사암의 연합단체인 전북불교총연합회 회장 도영스님(조계종 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은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봉축행사를 통해 지역불교계의 단합은 물론 호남불교 활성화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21일 전주시내 구 한진고속옆 주차장에서 열리는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일 단위사찰별 법요식으로 펼쳐지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꾸며진다.

봉축행사 주민축제로 승화

문화행사로는 22일 연합합창제(전북학생회관 공연장), 25일 연등제(35사단 세병호)에 이어 28일 청소년 연등축제(객사)와 등 만들기 대회(난장 및 객사), 거리 관불의식, 사경대회, 부처님 그리기 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로는 각 사찰별로 양로원, 갱생원 등 복지시설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벌이고 전주 · 군산교도소와 소년원, 9군단 예하 부대 등에서 위문법회를 거행한다. 특히 운전기사불자회와 룸비니산악회는 객사 앞에서 염주 3천개를 나눠줄 계획이다.

도영스님은 1986년 9월 10일 창립이래 봉축행사와 함께 불우이웃돕기 및 자선행사, 교도소 교화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펼쳐온 연합회의 활동영역을 더욱 넓히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북지역 5개 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를 비롯 단오축제와 전북불교예술제 개최, 전북불교자원봉사단의 운영, 모악산 살리기 캠페인, 성교육 · 낙태금지 서명운동 등 내부적인 단합을 기초로 대사회적인 문화 · 복지 · 환경 · 생명불사로 불교계의 역량을 회향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전주불교방송 건립도 추진

지역 불교문화센터인 전북불교회관을 중심으로 99년 노인 무료식당과 경로당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및 노인불교대학 설립을 추진키로 한 것도 지역사회에 구체적인 회향이 될 수 있는 포교사업을 구상한데 따른 것이다.

도영스님은 조계종 금산사복지원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복지사업이 지역 사찰의 주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복지불사를 통한 호남불교의 중흥을 이루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98년 전북불교회관이 조계종 전법도량으로 지정되는 등 활발한 포교사업을 펼쳐 온 도영스님은 "지역불교계의 숙원사업인 전주불교방송 건립과 노인 · 장애인 · 아동복지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단 및 사찰간의 단합이 선행돼야 한다"며 "호남불교의 중흥을 위해 회원 사찰들과의 유대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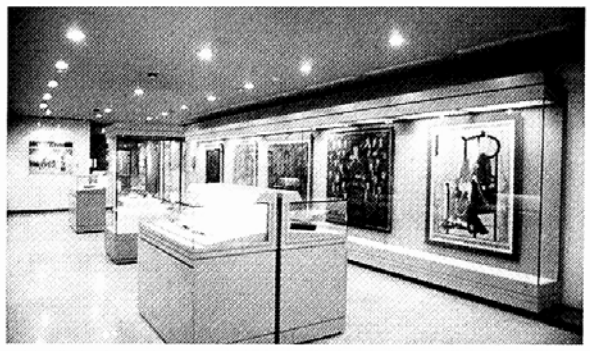
선암사 성보 1800점 한자리

23일 박물관 개관…의천스님 진영 등 전시

태고종 사찰로는 처음으로 순천 선암사에 성보박물관이 생겼다. 태고총림 선암사는 성보박물관(관장 지허 선암사 주지)을 완공해 23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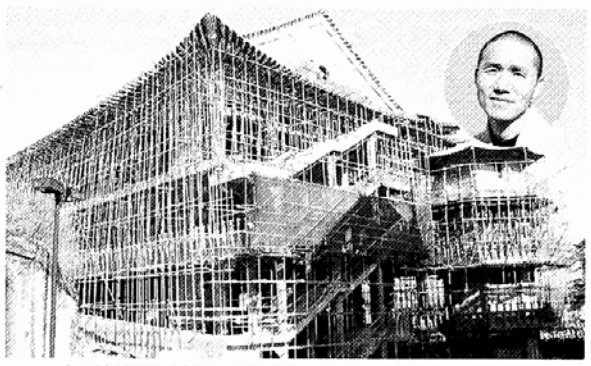
지난 98년 12월 기공해 2년여 만에 완공된 성보박물관은 지상 2층 연건평 114평으로 국비 및 시도비, 사찰부담 등 총 16억 5천만원이 소요됐다.

선암사 박물관에는 국가지정 보물 2건 4점, 지방유형문화재 3건 5점 등 약 1800여점의 탱화, 조각, 공예, 전적, 경판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성보들이 순차적으로 전시된다. 특히 보물로 지정된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진영, 민화풍의 환월당 스님 영정, 추사 김정희의 제찬이 있는 해붕당 스님 영정을 비롯 27명의, 선암사에 주석했던 스님들의 진영과 의천스님의 금란 가사, 선암사 동탑에서 발견되어 보물 955호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 사리구,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1702년에 조성된 '과거칠불과 53불탱화' 등은 선암사가 자랑하는 성보들이다.



◇성보 18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선암사 성보박물관이 23일 개관한다. 선암사 성보박물관 내부 전시장 모습.

관장 지허스님은 "첨단시설을 갖춘 성보박물관이 신축 개관됨에 따라 그동안 보존에 어려움이 많았던 소장유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면서 "수집 보존 연구 활동 이외에도 불교문화의 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61)754-6062 이경숙 기자



◇18일 상량된 춘천불교회관의 골조. 원내는 삼운사 주지 월도스님.

춘천 최대 불교회관 생긴다

삼운사 2003년 초 완공

대웅전 · 도서실 등 갖춰

춘천지역 최대의 종합불교회관이 들어선다. 천태종 삼운사(주지 월도)는 18일 불교회관 골조공사를 마치고 상량식을 거행했다.

삼운사는 70년 10여 가구의 소모임으로 출발, 30여년만에 춘천지역 최대의 사찰로 성장했다. 50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3년 초 완공할 예정인 불교회관(4층)은 연건평 1200평 규모로 종무소와 신행단체 사무실 유치원 도서실 소강당 요사채 등의 용도로 쓰인다. 특히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웅전에는 불단 앞에 무대를 설치해 공연 행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체장애인과 노인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전용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

주지 월도스님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강당을 지역의 문화단체에 개방할 계획"이라며 "침체된 춘천지역 불교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운 기자

불교지도자 아카데미 개설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강선태)는 오는 5월부터 5개월 과정으로 '제1기 불교 최고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부산불교회관에서 진행하는 강의 내용은 불교사상과 역사, 문화, 신행은 물론 비교종교와 종교사회학, 불교교육과 복지, 불교와 과학, 현대사회와 불교, 지도자론 등이다.

거조암 독거노인 후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은해사 거조암(주지 돈명 사진)이 지역내 홀로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꾸준히 보시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거조암은 지난 1월 청통면내 혼자 사는 노인과 경로당에 쌀 80kg들이 11포대와 난방용 기름 11드럼(110만원상당)을 전했다. 지난해에도 면내 혼자 사는 노인 6명과 생활이 어려운 주민 등 11가구에 쌀 11포대, 청통면 경로당 11개소에 사탕과 빵(50만원상당)을 선물했다.

거조암은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설치하고 신도들이 구입하는 초와 향, 열쇠고리 등 판매수익금 전액을 혼자 사는 노인과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해오고 있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외국인스님 의식 집전

교육원은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27일부터 30일까지 중앙승가대 안암학사에서 각종 의식 · 집전 실수, 제불통첩, 습의 · 발우공양 교육을 실시한다. 외국인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 집전 교육은 이번이 처음으로 봄교어산작법학교가 주관한다.

태고종

부산종무원장 학성스님

부산종무원장에 김학성스님이 재선출됐다. 수석부원장에는 주청봉스님, 상임부원장에는 신청공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임명된 각 국장은 다음과 같다. △총무국장=경담 △교무국장=영각 △재무국장=도광 △사회국장=만각 △사정국장 =갑주 △규정국장=혜각 △교육국장=도오 △종무위원=무공, 영춘, 재웅, 지명 스님.

진각종

밀교 문화대학 수료식

교육원(원장 일정)은 스승행계 승급과정으로 개설한 진기54년도 제6기 심학과정 수료식을 13일 서울 성북구 총인원 종의회 회의실에서 봉행했다. 종단 스승들과 신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수료식에서는 묘각정(의밀심인당) 전수 등 13명이 수료했다.

한편 같은 날 진각대학(학장 석붕)은 제11회 졸업식과 제13회 입학식을 총인원 대강당과 종의회 회의실에서 각각 봉행, 졸업식에서는 식재심인당 원암 정사가 진각대학장상을, 화친심인당 적광주 전수가 통리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포교사 양성을 위한 2년 과정의 밀교문화대학 포교사과정 수료식도 봉행되어 19명의 포교사가 탄생했다.

연꽃 향기 감도는 제주 법화사

구품연지 복원…내달 7일 연꽃심기 축제

천년고찰 법화사(주지 시몽)의 구품연지가 연꽃으로 장엄되어 제모습을 찾게 됐다.

법화사와 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김승제)는 지난해 기공식을 가졌던 구품연지 복원이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7일 오후2시 법화사 구품연지에서 제1회 연꽃심기 축제를 개최하는 등 구품연지의 옛 정취를 되찾아줄 연꽃 공양을 받고 있다.

제1부 문화행사, 제1부 법요식, 제3부 연꽃심기 등으로 진행되는 이날 축제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민주당 장영신의원, 김태환 제주시장, 강상주 서귀포시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등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서방정토 구품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연못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구품연지의 연꽃은 진흙속에서 찬란한 아름다움을 피우는 연꽃의 상징과 함께 과거 법화사의 고아한 자태를 되찾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천500평의 구품연지에 1천여 뿌리가 심어지면 연꽃이 만개하는 오는 7 · 8월이면 구품연지는 연꽃의 그윽한 향기가 가득한 옛모습을 찾게 된다.

통일신라 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법화사는 원나라 황실과 고려 왕실의 원찰로서 중창되기도 하는 등 육지부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 지난 82년 발굴조사가 시작되면서 과거 법화사에 4천여평의 구품연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끈 바 있다. (064)738-5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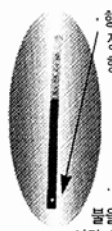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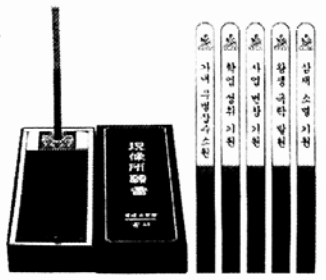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부니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 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네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나무 재배하실분!
⊙전망좋고 사업성 있는 작물을 찾고 계십니까?
국산 토종오가피나무를 심어보십시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도와드립니다.
재배설명회에 직접오셔서보고 듣고 오가피 농장도 확인하신후 결정하십시오.
오가피 건강상담 · 설명회 참가신청 ☎02)968-7711

발명특허NO. 0060218
現像所願香
현 상 소 원 향
소원성취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건강, 사업, 학업등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現像所願香이 소원성취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소림사의 달마대사가 오랜 面壁修道로 달마의 형상이 面壁洞 벽면에 投影되어 나타나듯이 現像所願香에도 여러분의 念願이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소원의 성취는 僥倖이나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現像所願香이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을 증폭시켜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本 製品의 特性
本 現像 所願香은 燃燒된 後에도 남은 재가 부서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本來의 形態를 維持함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燃燒가 進行되면서 재 위에 부처님의 形象과 함께 貴下께서 念願하시는 文句가 나타나는 本社의 發明特許品입니다. 本 香은 정신을 맑게 하여주고 心身의 氣運을 북돋아 주는 人體에 有益한 最上質의 天然材料만을 嚴選하여 使用하였으며 一切의 人工香料는 添加하지 않았습니다.
人體에 有益함은 물론 燃燒時 담배냄새, 기타 惡臭제거에 卓越한 효과로 室內의 공기가 맑아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재료 : 침숯, 지단향, 모과향, 목향, 백단향
使用時 有意 事項

· 향에 표시된 부분이 정면 하단에 오도록 하여 향꽂이에 꽂아 주십시오.
· 연소된 향이라 할지라도 화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화재 및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 향이 굵은 관계로 처음 불을 붙이실 때 시간이 여타 향에 비하여 조금 더 요구됩니다.
· 제조 유통 중 파손된 제품은 본사 또는 판매점에서 교환하여 드립니다

(株) 富好
본 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66 ☎ (02) 733-1235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38-13 ☎ (053) 764-6610

교계 사이버테러 '심각'

단체명-단체장 도용 바이러스 활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안티불교' 폐쇄명령

조계종 포교사단에 근무하는 하영태 국장은 며칠 전 재가연대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그 메일은 재가연대가 보낸 메일이 아닌, 단체명을 도용한 바이러스였다.

최근 교계 각 언론사와 단체에 '재가연대' 등 단체명과 단체장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로미오와 줄리엣' 바이러스 메일이 배달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는 수법이나 행태로 보아 일단의 훼불세력이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러한 사이버테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종단차원의 공개적인 사이버수사 의뢰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조계종 총무원은 2월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이틀간 업무가 중단돼 모든 컴퓨터를 점검해야 했다. 교계의 한 언론사도 바이러스로 인해 컴퓨터 모드를 새로 세팅하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바이러스메일과 스팸메일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져 단체들과 불자네티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단체명과 단체장 이름을 도용하여 제목에서 눈길을 끈 뒤 바이러스를 보내거나 한번에 200~300개의 메일을 대량으로 보내 업무를 방해하는 스팸메일 범죄(밤메일)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교계차원의 대처방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바이러스에 걸리면 내 컴퓨터의 주소록에 있는 모든 이메일 주소로 감염된 메일이 나가 평소 이메일을 주고 받던 사람들의 컴퓨터도 감염시켜 불교단체간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자우편으로 확산되며 전자우편 클릭만 하면 감염되는 '로미오와 줄리엣' 바이러스 퇴치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홈페이지(windowsupdate.microsoft.com)에 들러 보안패치를 설치하면 된다.

한편, 본지 304호 보도이후 조계종 포교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다음카페에 개설된 '안티불교'가 '안티' 사이트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 불교를 비방하기 위한 사이트이므로 형법 제100조에 위배된다' 판단하고 12일 다음카페에 폐쇄를 통보했다.

하지만 국내사이트가 아닌 미국 yahoo(야후)에 개설해 국적세탁을 한 안티불교사이트는 현재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새만금 살리자" 종교인 한마음 새만금 반대 범종교인 기도회에 참석한 성직자 5백여명은 14일 갯벌에 사는 생명체를 목조인형으로 만들어 조계사에서 멍동성당까지 시위를 벌였다. 사진=고영배 기자

'노인들 일거리 만들기' 금산사 복지원 나섰다

조계종 금산사복지원(이사장 도영 · 금산사주지)은 2월 26일 전주시로부터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돼 조만간 노인 30~100명을 대상으로 불교용품을 만드는 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산사복지원은 전주시로부터 예산 1천440만원을 지원받아 염주, 합장주, 연등, 주름등, 예수재 및 수륙재 제수용품, 수의, 상복 등 불교용품을 만드는 일거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노인성 질병 및 생활고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불교용품을 신도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금산사복지원 이원일 사무국장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불교계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생산품목을 개발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에 대지 808평방미터의 '노인 일거리 마련 작업장'도 마련해 노인복지의 중심센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일 복지법인을 설립, 전북불교회관내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노인복지사업에 뛰어든 금산사복지원은 앞으로 노인불교대학을 설립하는 등 노인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위덕대 '우수대학' 선정

재정 · 경영 · 시설 영역 등

진각종립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2000학년도 대학종합평가에서 재정 · 경영 · 시설 · 설비영역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종합평가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얻게되는 제도로 1994년에 시작되어 2000년에 제1주기 평가를 마무리하고 2001학년도부터는 제2주기 평가가 시작된다.

위덕대는 개교한지 5년만에 대학종합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0점 만점에 441.48점(88.30%)을 획득, 463.08점의 최상위 평가를 받은 대학과 비교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재정 · 경영영역은 상위 3개 대학에 속하는 최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시설 · 설비영역은 우수평가를, 교육 · 연구 · 사회봉사 · 교수 등 여타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경숙기자

자비행 2題

한성포교원 법농스님 서울시장 표창장



서울 한성포교원 법농스님은 지난 13일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불우이웃돕기에 솔선수범해 시민들에게 귀감이 됐기 때문이다.

법농스님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것은 95년 육바라밀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부터. 94년 개원한 포교원 재정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에 매년 600여만원씩 7년간 계속해 가정환경이 어려운 초 · 중 · 고 ·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스님은 또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매년 노인잔치를 베풀고 김장을 담궈주는 한편 명절 때마다 차례상을 마련해 주고 있기도 하다.

"부끄럽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사실 우리 포교원도 형편이 어렵지만 힘들 때 조금씩 돕는 것이 진정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경기 양평 양수리에 가족이 함께 불교를 공부하고 운동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찰을 지어 어린이포교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광주 자비신행회 불우이웃 '장학금'

지난 10일 광주 자비신행회(지도법사 현장 · 대원사 주지)는 광주 · 전남지역 교사불자회 소속 학교 학생 24명과 중앙승가대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한 스님에게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자비신행회 회원인 보성건설 대표이사 이기승씨의 보시금과 회원들이 모은 기금을 합한 것이다.

350여 자비신행회 회원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자고 나선 것은 지난 1월부터. 보성군 관내 17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모두 340만원의 장학금과 쌀 등을 전달하는 등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했었다.

자비신행회의 자비행은 신행회가 창립된 99년부터 시작됐다. 현장스님과 회원들은 지역의 어려운 노인을 돕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오고 있다.

현장스님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장학사업을 확대해 한 학생이라도 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약사사 창건주 보살 사리 5백여과 나와

성남 약사사 창건주인 윤숙현 보살이 입적한 후, 법신에서 사리 5백여과가 출토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대승불교여래종 본산인 성남 약사사(주지 혜안)는 윤 보살이 지난 9일 오후 5시 97세로 입적한 후, 욕천 대약사사 다비장에서 5일장을 치른 후 이마에서 5mm 가량의 황금사리 1과 등 사리 500여과가 출토됐다고 밝혔다.

약사사 주지 혜안스님은 "33년전 약사사를 창건한 윤 보살은 인왕산 법륜사 등 여러개의 사찰을 창건한 원력 보살이었다"며, "매일 자정 12시에 참선정진하고 사찰내 약사여래불의 촛불을 한 번도 꺼뜨리지 않았으며, 신도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등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신도들의 존경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여래종은 윤 보살의 사리를 안양 약사사와 대전 금강대약사사, 성남 약사사에 나눠 공개하기로 했으며 49재일에 맞춰 사찰내에 부도탑도 세울 계획이다. (031) 734-3205 김재경 기자

사찰 국보급 문화재 절도범-수집상 검거

전국의 사찰 등을 돌며 국보급 문화재를 훔쳐온 문화재 전문절도범과 일당 1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7부(이한성 부장검사)는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에서 '불경언해 활자본' 등을 훔친 문화재 전문절도범 추모(60)씨와 고미술품 등을 밀거래해 온 W화랑 대표 차모(47)씨, 골동품 수집상 박모(47)씨 등 5명을 특수절도 및 장물은닉 혐의로 12일 구속하고 달아난 문모씨 등 5~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99년 2월 봉원사에서 '불경언해 활자본' 7점과 동경 1점 등을 훔친 뒤 골동품 수집상 서모(40 · 구속)씨를 통해 구모(56 · 수배)씨에게 판 혐의다.

검찰은 최근 서초경찰서에서 해남 대둔사 성보박물관 불경 도난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새로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형진 기자

삼풍참사 6주기 대규모 천도재

조계종 주최 4월5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6주기를 앞두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대규모 천도재가 봉행된다.

화엄사 주지 종걸스님은 12일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대형참사였다"고 삼풍사고를 회고하고 "옛 일을 털어내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원하기 위해 '삼풍참사자 및 유주무주 고혼 천도재'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95년 6월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502명이 목숨을 잃었다.

천도재는 4월 5일 사고 현장에서 조계종 총무원 주최, 화엄사 주관으로 봉행하며, 전남곡성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과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법어와 추도사를 할 예정이다.

총무원과 화엄사는 이에 따라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천도재 봉행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꾸려 구성해 천도재 봉행을 준비한다. 봉행위원회는 24개 교구본사 주지, 집행위원회는 화엄사 주지 종걸스님(위원장)과 총무원 집행부 부장급 스님들로 구성된다.

한편 삼풍백화점 부지(6870평)는 96년 (주)대상에 매각됐으며, 대상은 이곳에 대형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윤 기자

조계사 신협 지홍스님에 손해배상 5억 청구소송

지난해말 파산선고가 내려진 조계사 신협 이사장과 감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9민사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신협 이사장 지홍스님에게 5억원, 감사였던 이종현(전 조계사 재무계장)씨와 김지형씨에게 각각 1억원을 청구했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적멸보궁 금강계단을 개설하여 근 천사백여년간 전국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전승해 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금년도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이 자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무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 통 편

통도사 버스 - 부산 : 온천장 지하철역앞 · 울산 : 태화호텔, 공업R, 무거R

대 중 교 통 - 부산 : 명륜동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 울산 : 시외버스터미널 · 서울 : 동서울고속터미널

▷ 동참금 : 5만원 ▷ 접수처 : 본사 기와 접수처 및 각 말사

입 제 : 2001년 3월 29일 (음력 3월 5일) - 3일간 -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전계사 현 산 대화상

주 지 신 허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 055)382-7182 FAX 055)382-7196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강원 학인 모집

1901년 지방학림의 인가로 출범한 통도사 강원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교계의 인재를 배출해온 불학의 전당이었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학불장(學佛場)으로 그 역사와 전통은 오늘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최고 경력을 자랑하는 강주 지안스님, 강사 진원, 혜엄스님, 중강 양관스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지 신허스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중의 학인생활이 면학위주로 개선되어 새로운 학풍을 드날릴 주인공이 될 동수도반(同修道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학과

· 치문과 ——— 0명

· 사집과 ——— 0명

· 편입학 : 사미과 수료증 및 전학증 지참

기 간

2001년 양력 3월 31일까지

▣ 20기 행자교육 수료자

서류접수 : 2001년 양력 3월 24일 ~ 4월 6일까지

▣ 문 의 처 : 055)383-2363(강원), 382-7182(종무소)

통 도 사 승 가 대 학

주지 : 신 허 강주 : 지 안

자연은, 계절을 맞고 보내는 일에 사람처럼 힘겨워하지 않는다. 그 어떤 기대나 회한도 투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겨울 내내 눈을 덮고서도 신음하지 않고, 봄을 맞아 꽃을 피워 올리고도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

만약 자연도 사람처럼, 하는 일마다 기대나 의도를 담는다면 자연의 순환에는 심각한 혼란이 따를 것이다. 싫다고 버리고 좋다고 놀려앉는다면, 마냥 봄꿈에 취해 여름 볼 일이 없을 것이고, 여름 가을 겨울 또한 제멋에 겨워 한 세월을 온통 제것으로 삼고 말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자연의 순환에는 그 어떤 의도나 희망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저, 그냥 그렇게 맞고 보낼 뿐이다. 자연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들고 다닐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경전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작은 몸짓에도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반응한다. 싫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슬퍼한다. 자연은 그냥 그러할 뿐인데. 그렇지만 그러한 인간적 반응들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거나 자학에 가까울 만큼 부끄러워하지는 말자. 그것이 곧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움이기도 하니까. 그러다 언젠가는 온전히 자연을 닮거나 아니면 죽음의 형태로라도 자연으로 돌아갈 테니까.



◇고적대에서 조망을 즐기는 취재진 너머 봉우리가 청옥산과 두타산의 정상이다. 고적대에서는 멀리 소백산까지 눈에 들어온다.



걸음 닿는 곳마다 비로요 천왕

백두대간 속으로 〈31〉

원방재→백봉령

세찬 바람 겨울과 봄 사이 좌충우돌
원방재 호쾌한 능선 파도치듯 굽이쳐

◇두타산에서 바라본 청옥산과 고적대. 군더더기 없는 형국의 청옥에 비해 고적대는 돌탑을 쌓은 듯한 바위 봉우리다.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에서 원방재로 오른다. 겨우내 얼음장 밑으로 숨죽여 흐르던 냇물이 얼굴을 내밀고 길동무를 해 준다. 내 귓속으로도 냇물이 흘러드는 것 같다. 마음 속에선 벌써 봄이 찰랑댄다. 하지만 아직 두 다리는 하얀 겨울을 밟고 지난다.

난초의 잎을 그리는 붓끝을 따르듯 임도를 오르다 보면 원방재(690m)에 닿는다. 길은, 백두대간 등성마루를 넘지 않고 이기령까지 이어진다.

바람이 세차다. 겨울과 봄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것 같다. 땅거미가 밀려온다. 바람도 조금씩 겨울쪽으로 기울어진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바람이 비껴가는 곳을 찾는다. 계곡이 끝나는 곳이 그곳이다. 제법 세찬 물줄기가 쏟아지며 얼음 계곡을 헤쳐 샘을 이루고 있다. 눈을 녹이지 않고도 끼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상첨화로 바람이 눈으로 계곡을 메워 놓아서 조금만 다지면 잠자리까지 간단히 해결되겠다.

또 간간이 눈발이 날린다. 올해는 봄 가뭄이나 산불 걱정은 덜 할 것 같다. 밤이 깊을수록 바람이 더욱 거세진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바람 소리뿐인 것 같다. 동해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라 생각해 본다. 한결 듣기가 편하다.

원방재에서부터 백봉령 사이에는 이름 난 산이 없다. 하지만 실망할 일은 아니다. 어차피 백두대간을 밟는다는 것은, 산보다는 산줄기, 부분보다는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다. 한걸음 한걸음 닿는 곳 모두가 비로요 천왕이 아닐 수 없다. 낮은 봉우리 없이 어떻게 높은 봉우리를 오를 것이며, 내려서지 않고 어찌 오르기만을 바랄 것인가. 백두대간이라는 이름 아래서는 금강산의 비로봉이든 이름 없는 작은 봉우리든 똑같이 소중한 존재다.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어떨까. 한명 한명이 다 인류의 대표가 아닐 수 없다.

원방재에서 이어지는 대간 등성이는 1000미터 이상까지 몸을 일으켜 세웠다가, 다시 서너번 크게 솟구쳤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백봉령을 향한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과 닿는 백봉령 전까지는 오른발은 동해시, 왼발은 정선군 땅을 밟아 나간다.

이 구간에서는 동쪽으로 시야가 열린 어디서건 동해 바다를 볼 수 있다. 겹겹이 펼쳐지는 능선들은 마치 동해 바다가 일으킨 커다란 파도가 쉼없이 밀려오는 듯한데, 골격을 다 드러낸 겨울산이어서 그런지 그 형국은 대단히 호쾌하다.

야지 백두대간의 등성마루엔 눈이 깊다. 하지만 신설과 달리 녹고 얼기를 반복한 부분은 제법 단단하다. 살얼음판 디디듯 걸으면 빠지지 않고 몇걸음 옮겨 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갑자기 허벅지까지 쑥 빠지게 되면 허탈과 낭패감이 왈칵 밀려온다. 역시 겁음이 순조롭지 않다. 백봉령을 눈 아래 두고 또 하룻밤 대간에 몸을 누인다.

강원도 정선과 동해를 넘나드는 42번 국도 위의 고갯마루인 백봉령은 공식 지명으로는 백복령(白伏嶺, 780m)이라 불린다. 하지만 〈택리지〉에는 백봉령(白鳳嶺)이라 표기되어 있고 〈증보문헌비고〉에는 백복령(白福嶺)과 백복령(白複嶺)이 함께 쓰이고 있는데, 일명 희복현(希福峴)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희복현(希福峴)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이름이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제가 바꿔놓은 이름인 백복령(白伏嶺) 대신 어감이나 뜻도 우아한 백봉령(白鳳嶺)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이 글도 그것을 따랐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석(사진작가)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비단등 산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립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만월등



(육각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안공원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